

이야기가 있는
농촌마을 생태 체험



김경희 외 엮음

농촌의 생물자원들은 단순히 생태적 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가 담긴 자원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의 삶
과 함께 해온 생물자원들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
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보고 관찰하는 형태의 생태체험을 넘어
보다 재미있고 입체적인
체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머리말

•
이야기가 있는
농촌마을
생태체험

**우리 마을의 생물자원에
이야기를 입히면 더욱
흥미로운 생태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체험객들에게
재미있는 동식물 이야기를
들려줄수록
우리 마을도 더욱
특별해집니다.**

농촌의 생물자원들은 단순히 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가 담긴 자원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생물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보고 관찰하는 형태의 생태체험을 넘어 보다 재미있고 입체적인 체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농촌마을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야기가 접목된 해설자료를 통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더욱 흥미로운 체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책에서는 농촌마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들을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생, 양서·파충류, 저서생물(물속생물), 어류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마을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선별하여 생태체험 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생물자원들이 마을 어느 곳에 서식하고 있는지 마을에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왔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별로 더욱 알차게 해설자료집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농촌마을에서 생물자원을 보다 쉽고 흥미 있게 관찰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역은이 일동

이야기로 알아보기

우리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동식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서부터 이름의 유래, 생태적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들은 체험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고, 해당 동식물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지침으로 보충하면 두 배의 해설 효과

해설지침을 보시면 체험자들에게 해설할 때의 구체적인 요령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정보를 강조해서 들려줌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물자원에 관한 해설은 생김새, 분포 및 서식지, 효용, 활용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놓았습니다. 생김새의 설명에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이 책에 수록된 용어해설 부분을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식물·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발견하고, 발견한 장소와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특히 식물의 경우 생육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두면 후임 해설자가 이어받아 활용하기에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차레
·
식물편

가

- 115 가래 중에서도 가늘어서 가는가래 **가는가래**
113 물 위에다 가래떡을 썰어놓았나? **가래**
123 호젓한 물가에서 흔들리며 가을의 운치 더해요 **갈대**
133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아이도 다 아는 풀 **강아지풀**
89 나라 잃은 설움 잊지 말라고 피는 꽃 **개망초**
121 더 이상 식용하지 않는 밀의 원조 **개밀**
25 흔한 개여뀌로 물고기 잡아먹던 추억 **개여뀌**
23 소는 맛있다고 고맙고 물고기는 깨끗하다고 고맙고 **고마리**
127 여우의 발목을 낚아채는 풀 **그령**
135 밀 대신 한때는 곡식 구실 **금강아지풀**
75 은은한 향내 나며 염증도 완화 힐링하는 풀 **긴병꽃풀**
41 퍽엄퍽엄 한가로이 꽃이나 피네 **깽깽이풀**

나

- 19 닭의덩굴과 닮은 유럽산 귀화식물 **나도닭의덩굴**
47 농부 따라 다니며 봄 향기 전해요 **냉이**
73 하루만에 피고 지는 꽃 속의 소중한 시간 **노랑어리연꽃**

다

- 45 열매가 다닥다닥 소리도 다닥다닥 **다닥냉이**
67 달을 보는 꽃에 담긴 애잔한 전설 **달맞이꽃**
125 역세, 갈대는 알아도 나는 잘 모른다고요? **달뿌리풀**
149 농부에게는 성가신 잡초 두보에게는 꽃 피는 대나무 **닭의장풀**
101 생긴 것도 도깨비 하는 짓도 도깨비 **도깨비바늘**
87 아무에게나 붙는 열매 그 속에 담긴 기구한 이야기 **도꼬마리**

- 17 강에는 베스 눈발에는 돌소리쟁이가 골치 **돌소리쟁이**
139 피죽도 먹기 어려웠던 시절의 바로 그 식물 **돌피**

마

- 117 작은 물고기들이 숨는 물속의 은신처 **말즘**
91 철도 침묵에 묻어온 씨 일제 수탈의 생생한 증인 **망초**
39 이름은 흔해 보여도 람사르습지로 보호받는 군락지 **매화마름**
93 겨울에 강한 우리나라 토종 허브 **머위**
21 구박받는 머느리 애한 담긴 풀 **머느리밀싹개**
27 조선 최고의 철학자도 명아주 지팡이에 기대어 **명아주**
63 열매로 염주도 만드는 통증 치료 나무 **모감주나무**
153 눈에만 피는 잡초 그래서 더 골치 아파 **물달개비**
65 울 밑에 선 봉선화 물가에 핀 물봉선 **물봉선**
95 남자 말고 여자에게 좋아요 **물쑥**
9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 **물오리나무**
119 어여쁜 꽃보다 더 어여쁜 수질 정화 능력 **물질경이**
141 벼보다 빨리 자라는 농부들의 골치덩어리 **물피**
99 갈수록 까맣게 변해서 측은함이 느껴지는 잡초 **미국가막사리**
31 미국에서 건너온 환경 지표식물 **미국자리공**
71 임금에게도 진상했던 오랜 식용 역사를 가진 채소 **미나리**

바

- 137 방심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풀 **바랭이**
51 뱀이 좋아한다고? 뱀이 살기 좋은 곳에 산다고! **뱀딸기**
111 보기에 운치 있고 쓰임새는 다양하고 **부들**
37 물속 풍경에 늘 등장하지만 이름은 잘 몰랐던 **붕어마름**

차
·
식물편

사

- 151 몸에 난 사마귀 없애는 신기한 풀 **사마귀풀**
61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백년해로의 상징 **사철나무**
55 공은 공인데 먹지 않는 공 **새콩**
105 어린이에게까지 사랑받는 귀화식물 **서양민들레**
79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벌게지는 풀 **선개불알풀**
15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나는 풀 **소리쟁이**
7 에너지 담백 담긴 다재다능한 풀 **쇠뜨기**
29 소 무릎처럼 생겨 관절에도 좋다니 신기해 **쇠무릎**
33 닭장에서 피어나는 별을 닮은 꽃 **쇠별꽃**
131 결초보는 고사성어의 주인공 **수크령**
97 쑥대밭을 만들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공존 **쑥**
107 씹새름한 나물 맛으로 더위를 이긴다 **썸바귀**

아

- 57 꽃을 따먹던 시절의 추억만 남은 나무 **아까시나무**
43 노란 애기 동이 흐르는 신기한 식물 **애기똥풀**
143 바람 불 때마다 역새발은 가을 노래 **역새**
35 인간의 인연 깨우치는 불교의 꽃 **연꽃**
145 춘궁기 건널 때 든든했던 올방개목 한 그릇 **올방개**
109 수확 지난 텅 빈 밭에 덩으로 자라는 기특한 풀 **왕고들빼기**
129 연약해 보인다고 알보면 허리 다치기 십상 **왕바랭이**
155 아들 낳게 해주는 풀 옛날 부인들에게 인기 만점 **원추리**
77 어머니께 바친다 식물계의 효자 **익모초**

자

- 147 개구리는 개구리밥을 먹을까? **좀개구리밥**
13 작고 양중맞은 방울 달리는 희귀식물 **쥐방울덩굴**
103 소독 효과 가진 길가의 상비약 **지칭개**
83 끈끈한 생명력 가진 질기디 질긴 풀 **질경이**

차

- 85 밤에 불이 켜질 것 같은 청사초롱 닮은 꽃 **초롱꽃**
53 식용에서 생활용품까지 쓰임새 많은 식물 **취**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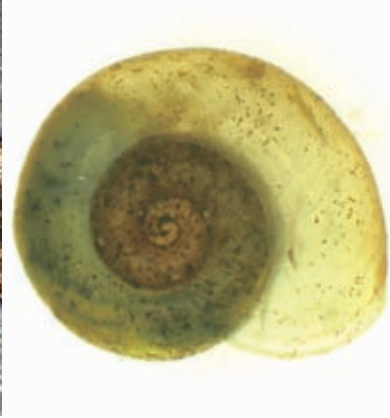
- 69 달밤에 나방 유혹해 경쟁자 없이 번식 **큰달맞이꽃**

타

- 59 행운 찾는 이들에게 행복의 가치 알려주는 풀 **토끼풀**
81 겉보기엔 귀엽지만 물속에서는 무서운 사냥꾼 **통발**

하

- 11 사람을 따라다닐 만큼 빨리 자라요 **환삼덩굴**
49 사랑과 후회 담긴 전설의 꽃 **황매화**



차 례 · 동물편

가

- 185 온몸이 빨갛게 변해서 더욱 아름다운 잠자리 **고추잠자리**
- 189 여름에 산으로 피서 떠나는 잠자리 **고추좀잠자리**
- 231 찾아보기가 금처럼 귀해진 개구리 **금개구리**
- 201 작아도 너무 작은 초소형 물방개 **깨알물방개**

나

- 195 잠자리계의 꽃미남은 바로 나! **날개띠좀잠자리**
- 177 하트 모양 만드는 사랑의 기술 **노란실잠자리**
- 239 술 냄새가 날 것 같은 나무 타기 명수 **누룩뱀**
- 243 능구렁이가 담 넘어 가는 것 보셨나요? **능구렁이**

다

- 267 이산가족 되면서 서로 달라졌어요 **대륙송사리**
- 219 바위에 알 낳으면 큰 장마 물속에 낳으면 가뭄 **도롱뇽**
- 171 자연산 혈액 응고 방지제 **돌거머리**
- 193 바다를 건너오는 모험심 강한 잠자리 **된장잠자리**
- 191 얼굴 이마에 커다란 점 두 개 **두점박이좀잠자리**
- 273 논두렁 뚫는 귀신 한때는 미움 받던 물고기 **드렁허리**
- 179 화려한 청색 뽀내는 멋쟁이 실잠자리 **등검은실잠자리**
- 175 등에 긴 줄이 멋스런 실잠자리 **등줄실잠자리**
- 253 일본에서 건너온 맛좋은 담수어 **떡붕어**
- 165 또아리를 튼 납작한 물달팽이 **또아리물달팽이**

마

- 169 거머리는 거머리인데 피를 빨 줄 몰라요 **말거머리**

- 183 왕잠자리보다 더 멋지게 화장했어요 **먹줄왕잠자리**
- 221 새들도 깨름칙해서 먹을까, 말까? **무당개구리**
- 237 우리가 물뱀으로 아는 뱀의 본명은 무자치 **무자치**
- 161 청소도 하고, 먹이도 되는 생태계의 모범생 **물달팽이**
- 209 물고기도 무서워서 피하는 대형 물방개 **물방개**
- 263 가을철 보양식 추어탕의 주인공 **미꾸라지**
- 261 물고기 방귀로 지은 유별난 이름 **미꾸리**
- 187 개체수 많은 만큼 짝짓기 경쟁도 치열해요 **밀잠자리**

바

- 255 멋쟁이 아빠 물고기의 지순한 부성에 **버들붕어**
- 269 맑은 물에 사는 버드나뭇잎 같은 물고기 **버들치**
- 227 야생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251 월척의 기준은 내 몸 길이 30센티미터 이상 **붕어**

사

- 245 이름과 달리 모성애가 강한 뱀 **살모사**
- 265 먹을 것 없었지만 아이들은 가장 좋아해 **송사리**
- 197 이름처럼 별난 생김새 더욱 별난 수영 솜씨 **송장헤엄치게**
- 247 작다고 알보면 큰 코 다치는 독사 **쇠살모사**
- 159 우렁각시가 살기엔 작아도 너무 작아 **쇠우렁이**
- 167 무엇이 부끄럽길래 몸이 발그레 **수정또아리물달팽이**
- 259 미꾸리를 닮았지만 종개과 물고기 **쌀미꾸리**

아

- 173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암컷의 변신은 무죄 **아시아실잠자리**



차 레 · 동물편

- 215 뒤둥뒤둥 겉듯이 해엄쳐요 **알물뽕뽕이**
- 203 얼룩무늬 뽕내는 멋쟁이 물방개 **알물방개**
- 207 이름과 달리 성격은 난폭해 **애기물방개**
- 213 산란할 때 아기방 만들어요 **애물뽕뽕이**
- 199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곤충 **애실소금쟁이**
- 233 작아도 독을 가진 개구리 **옴개구리**
- 157 우렁이농법의 주인공 맛도 좋아 **왕우렁이**
- 181 살아 있는 화석 실감나는 커다란 잠자리 **왕잠자리**
- 163 왼쪽으로 꼬였다고 붙여진 이름 **원돌이물달팽이**
- 241 예쁘게 단장한 꽃뱀의 정체는 유혈목이 **유혈목이**
- 257 등용문에 등장하는 출세의 상징 **잉어**

자

- 211 육식에서 초식, 다시 육식하는 변덕스런 식성 **좀물뽕뽕이**
- 217 검은 반점으로 구별되는 물진드기 **중국물진드기**

차

- 229 개구리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개구리 **참개구리**
- 249 붕어라기보다는 돌고기와 닮은 **참붕어**
- 223 나보다 크게 우는 개구리 나와 봐! **청개구리**

파

- 271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가장 많은 수 자량 **피라미**

하

- 225 대한민국 국적 되찾은 토종 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 205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물방개 **흑외줄물방개**
- 235 생태계 파괴하는 위험한 무법자 **황소개구리**

Equisetum arvense

쇠뜨기

에너지 담뿍 담긴
다재다능한 풀

과명	속새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지혈, 이뇨, 폐와 심장을 보호, 납중독 예방과 치료 그밖의 활용 : 공예품, 가구의 면을 고르게 하는 데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쇠뜨기는 어떻게 쇠뜨기가 되었나?

농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쇠뜨기는 쉽게 볼 수 있는 풀이었다. 소가 잘 뜯어먹는다고 해서 쇠뜨기라고 불렀는데, 논둑, 밭둑 지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쇠뜨기를 달여 먹으면 좋다고 만병통치약처럼 TV에 소개되면서 논밭에서 쇠뜨기가 죄다 사라지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쇠뜨기를 구할 수 없는 겨울에 비싼 값에 팔리며 귀한 약초 대접을 받은 적도 있다.

골절에 효과가 있다고 접속초, 절골초라고도 불렀다. 쪼아서 바르거나 5~7월에 뜯은 풀을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쓴다.

해설 지침

쇠뜨기가 고사리보다 더 오래된 원시식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깊은 뿌리를 가진 식물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식물 효용을 알려줄 때는 마을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통해 쉽게 인지시킬 수 있다.

잘 먹으면 약, 못 먹으면 독!

“TV에 좋다고 나오니 너도 나도 뜯어다 달여 먹고는 설사병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쇠뜨기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

쇠뜨기는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멎게 하고, 이뇨 효능이 뛰어나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하고,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저혈압 환자에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고사리보다 더 원시적이라고?

400만 년 전 고생대부터 살아온 풀로, 고사리보다 더 원시적인 분류군이다. 뱀 머리와 닮았다고 뱀밥이라고도 부르는 생식줄기는 살아 있는 화석처럼 원시의 모양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농정보다 먼저 유목이 발달해 말이 더 귀했던 서양에서는 호스 테일(horse tale, 말꼬리)라고 부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속이 빈 원통형의 줄기가 마디져 있고, 각 마디마다 가지가 나온다. 마디를 엮초가 둘러싼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3월부터 5월까지 볼 수 있는 생식줄기는 그 끝에 포자낭이 달린다. 생식 줄기가 쓰러진 후 광합성을 하는 녹색의 영양줄기가 나온다. 영양줄기는 높이 30~40cm로 마디에 비늘같은 퇴화한 잎과 잎처럼 보이는 가지가 둘러난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 양지 바른 곳에서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 양치식물. 국외는 사막을 제외한 북반구에 분포한다.

효 용

쇠뜨기는 지혈약으로 코피, 장출혈, 각혈, 치핵 출혈, 월경 과다 등에 쓰여 하루 10g을 달여먹거나, 전초 가루나 생즙을 출혈 부위에 바르면 피가 멎으며 상처도 빨리 아문다. 해산 촉진약, 유산시키는 약으로 사용된다. 오줌을 누지 못하여 물고임 현상이 일어날 때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만성·급성 납중독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폐를 보호하기 때문에 결핵, 기관지,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기침 등에 사용한다. 또 만성적인 심장부전에 강심약과 함께 쓰이며, 심장 찢줄 계통 부전증,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콩팥에 대한 자극 작용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급성콩팥염, 신장증성콩팥염 등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활 용

봄에 포자 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줄기의 세포막에는 규산이 들어 있어, 사포처럼 굳으면 공예품이나 가구 등의 면을 고르게 할 때 사용되었다. 쇠뜨기 추출물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세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화장품, 샴푸, 린스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땃땃이라고도 부르는 생식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쇠뜨기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재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재록일자 :

내용 :

Alnus japonica

물오리나무

촉촉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

과명 자작나무과

구분 자생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물오리나무? 산오리나무?

물기가 어려 있거나 촉촉한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물오리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본에서는 산진목(山榛木)이라 부르는데, 산에 사는 오리나무의 종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을 번역해 산오리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리랑 친해 오리나무

오리나무는 쓰임새가 많고 다양해 남획이 많이 이루어졌다. 요즘은 오리나무 보기가 귀해서 물오리나무가 오리나무 행세를 하는 형국이다. 물오리나무는 산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다.

오 리(2km)마다 심은 나무라 오리나무로 불렸다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근거 없는 말이며, 이 나무가 자라는 저습지에 오리가 많이 서식해 부르게 된 것이다.

해설
지침

물오리나무에 담긴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0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짙은 회색빛을 띠면서 윤기가 난다. 어린 가지는 털이 뽀뽀이 나 있으나 점차 사라지면서 색도 밤색을 띤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가 12cm 정도다. 서로 어긋나게 자라고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잎 표면은 짙은 노색, 뒷면은 회백색을 띠고 갈색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2~4cm이다.

4월이 되면 가지 끝과 잎겨드랑이에 수꽃 이삭이 2~4개씩 달리고 암꽃 이삭은 3~5개씩 달린다. 꽃의 형태는 겹총상꽃차례를 이룬다. 열매는 매우 좁은 날개 모양의 견과로, 익으면 흑갈색이 된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낙엽큰키나무로, 국외에는 러시아,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물오리나무의 열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물오리나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사람을 따라다니는 만큼
빨리 자라요

과명	삼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고혈압, 피부병



이야기로 알아보기

아무튼 엄청나게 자라요

환삼덩굴은 흔히 ‘사람을 따라다니는 잡초’라 일컫는다. 사람의 행보만큼이나 빨리 자란다니, 다소 과장이 섞인 말인 듯한데 그만큼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식물이다. 한글명은 한삼으로, 한과 삼이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 많다, 흔하다, 한창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접두사이고, 삼은 잎 모양이 마(麻)를 닮아 비로워진 것이다. ‘빈터를 순식간에 가득 매운 삼’이라는 데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설 지침

빈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킨다. 환삼덩굴의 미세한 가시가 피부에 들어가면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삼덩굴 군락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꿀칫덩어리도 쓸모는 있어

환삼덩굴이 못 자라는 곳은 없다. 쓰레기터나 빈 공터에도 무성하게 우거진다. 이 환삼덩굴 군락은 들쥐, 꽃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꽃가루병을 일으켜 유해식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환삼덩굴 군락 속은 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한다. 일단 밭으로 손을 뻗기 시작하면 재배 작물이 햇빛을 못 받게 가려 성장을 방해하거나, 재배 작물과 뒤엉켜 잡아 뽑으면 작물이 함께 뽑혀 나가 농부들의 꿀칫거리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줄기는 길이 2~4m에 이르며 밑을 향한 거친 가시가 있다. 길이와 폭이 각각 5~12cm인 앞은 5~7갈래의 손바닥 모양으로 깊게 갈라져 마주난다.

갈래는 난형이나 피침형에 규칙적인 톱니가 가장자리에 있으며, 양면에 거친 털이 난다.

개화 시기는 7~10월로, 암수 판포기에 핀다. 수꽃은 황록색이고 꽃받침과 수술이 각각 5개씩 있다. 암꽃은 짧은 총상꽃차례에 달린다. 열매는 수과, 난상 원형에 길이와 폭이 각각 4~5mm이며 황갈색이다.

분포 및
생육지

전국의 길가, 훼손된 들 등에 흔하게 자라며,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덩굴성 한해살이풀이다.

효 용

한방에서 울초, 한삼 등이라 부른다.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며, 피부병, 폐결핵, 소변 곤란 등에도 좋다. 벌레나 뱀에 물린 환부에 연고처럼 만들어 바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환삼덩굴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환삼덩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ristolochia contorta

쥐방울덩굴

작고 양중맞은 방울
달리는 희귀식물

과명	쥐방울덩굴과
구분	자생식물, 희귀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가래, 천식 그밖의 활용 : 나물, 쌈



이야기로 알아보기

쥐방울이 말방울이 된 사연

쥐방울덩굴은 열매가 작은 방울 같이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쥐방울덩굴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재로 많이 쓰였다.

이 열매 말린 것을 마도령(馬兜鈴)이라고 하는데, 말린 열매가 말의 목에 거는 방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쥐방울이나 말방울이나 어차피 방울이니 크기로 짤 게 아니다. 마도령은 가래, 천식에 좋다고 한다. 종기나 뱀에 물린 상처에도 마도령을 썼다고 한다. 다른 이름은 까치오줌요강, 방울풀이 있다.

해설 지침

작은 방울 같은 모양을 가진 열매를 부각시킨다. 특이하게 생긴 꽃 모양을 보여준다.

사진작가들에게 인기 만점

쥐방울덩굴은 열매와 관련이 많은 식물이다. 이름도 열매의 모양에서 유래했고, 약재로 쓰이는 것도 열매다. 그러나 요즘 관심을 받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꽃이다. 특이하게 생긴 꽃 모양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쥐방울덩굴 꽃을 즐겨 찾는다고 한다.

갈수록 즐겨 찾지만 또 갈수록 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열매가 약재로 쓰여 남획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5m 정도로,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간다. 잎은 심장형으로 서로 어긋나게 자라고 길이 4~10cm, 폭 4~8cm이다. 7~8월 여름에 잎겨드랑이로부터 길이 1~4cm의 꽃자루가 나와 하나의 녹자색을 띤 트럼펫 모양의 꽃이 달린다. 열매는 둥근 삭과로 6개로 갈라지면서 낙하산처럼 매달려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국외에는 일본, 중국에도 분포하고 있다.

효 용

방울 모양의 열매를 약으로 쓰며, 약재로 쓸 때는 말방울이라는 뜻으로 마도령(馬兜鈴)이라 한다.

활 용

잎을 삶아 나물이나 찜으로 먹는다.



쥐방울덩굴의 꽃과 열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쥐방울덩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발견 일자:

촬영자:

Rumex crispus

소리쟁이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나는 풀

과명	마디풀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피부병



이야기로 알아보기

사그락사그락 소리 나는 풀

소리쟁이는 물결 모양의 잎을 가진 귀화식물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데, 이름처럼 소리가 나는 풀이라고 해서 소리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면 씨앗 대가 서로 부딪쳐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가 난다.

잡초라도 배울 게 있네

소리쟁이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인한 번식력이다. 종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린다고 할 정도다. 그만큼 땅 속에 정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빨리 자라는 데다 종자 생산량도 많고, 이 종자들이 살아 있는 기간도 길다. 토양의 조건만 잘 맞으면 80년 가까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물속에 떨어져도 생명력이 3년을 간다고 하니 이렇게 강인한 번식력만큼은 인정해 줄 만하다.

해설 지침

귀화식물이라는 걸 알려주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라는 걸 강조해준다. 직접 식물을 흔들리게 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관찰하게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60~120cm이고 얇은 흙이 있다. 잎은 끝이 뾰족한데 가장자리에는 물결 모양이 나 있다. 길이는 15~25cm, 폭은 2~6cm이다.

뿌리잎과 아래의 줄기잎은 긴 잎자루가 있으나 윗부분의 줄기잎은 잎자루가 짧다. 5~6월에 피는 녹색의 꽃은 줄기 끝에 원추꽃차례에 달린다. 열매는 수과로 세모진 난형이고 윤기가 난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들이나 길가, 물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유럽이 원산지이다.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효 용

피부병에 외용한다.



소리쟁이의 잎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소리쟁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umex obtusifolius

돌소리쟁이

강에는 베스

논밭에는 돌소리쟁이가 골치

과명 마디풀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미움 받는 천덕꾸러기 풀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돌소리쟁이는 농경지나 목초지까지 침입해 농가에 피해를 준다. 다년생인데다 뿌리가 깊어 제초제로 방제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잎에서 나오는 점액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나 가축들이 기피한다.

가축도 뜯어 먹지 않는 풀은 한 번 목초지로 들어오면 금세 범람하고 만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어류 베스처럼 돌소리쟁이는 하등에 쓸모 없어 농부들에게 고민스러운 풀이다.

해설
지침

잎이 넓은 귀화식물이라는 걸 알려주고,
천적인 곤충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돌소리쟁이 잡는 곤충들

이렇게 골치 아픈 잡초 돌소리쟁이에게도 천적이 있을까? 토종 곤충인 좀남색잎벌레와 분홍무늬들명나방 애벌레가 바로 돌소리쟁이의 대표적인 천적이다.

토종 곤충이 외래종 식물과 싸워 이긴다는 게 의미심장하기도 하다.

좀남색잎벌레는 다른 풀은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돌소리쟁이와 같은 잡초만을 갉아먹는다고 한다. 분홍무늬들명나방은 돌소리쟁이 잎에 알을 낳는데, 그러면 유충이 줄기를 타고 뿌리로 내려가 잡초를 죽게 만든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60~120cm이고 밑부분의 잎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 20~30cm, 너비 8~15cm이다. 경생엽은 긴 피침상 타원형이고 길이 10cm 정도다.

6~8월에 피는 연한 녹색의 꽃은 많이 모여 땃땃이 구상으로 운생하고, 꽃자루는 가늘며 화피보다 길다. 열매는 수과로 세모지며 검은 능선에 돌기가 나고 붉은색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유럽에 분포한다.



돌소리쟁이의 잎을 갉아먹는 토종 곤충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돌소리쟁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Bildarchyia convolvulus

나도닭의덩굴

닭의덩굴과 닮은
유럽산 귀화식물

과명	마디풀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결다리로 생긴 듯한 이름

나도닭의덩굴은 유럽과 서부아시아에서 들어와 귀화한 식물이다. 나도닭의덩굴은 닭의덩굴이라는 식물과 이파리가 잘 구분되지 않을 만큼 많이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나도 닭의덩굴이라니, 이름은 이름인데 왜지 결다리처럼 끼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성의 없이 지은 이름 같기도 하다. ‘나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식물이 죄다 그렇다. 나도바람꽃, 나도송이풀, 나도옥잠화 등등. 그것들은 대부분 ‘나도’라는 단어가 빠진 식물이란 흡사하게 닮았다고 보면 된다.

해설 지침

유럽과 서부아시아에서 귀화한 식물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귀화식물의 정확한 의미도 알려준다.

귀화식물과 외래식물의 차이

외래식물은 비토착종으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식물을 말한다.

농업이나 목축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들여오기도 하고 외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수입 농산품이나 여행객에 의해 전파되어 퍼져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야생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며 생존하여 자생식물과 공존하는 종을 귀화식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귀화식물이 개망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100cm 안팎으로, 가늘고 길게 다른 물체를 감아 오른다. 잎은 어긋나게 나고 난형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길이 3~5cm, 폭 2~4cm이다.

잎의 끝은 뾰족하지만 가장자리는 둥글고, 양면에 털이 없다. 5~10월에 피는 연한 녹색의 꽃은 잎겨드랑이와 가지 끝에 수상꽃차례를 이룬다. 열매는 수과이며, 타원형이다. 표면에 반구형의 돌기가 있으며, 광택이 없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양지바른 들판이나 길가에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에 분포한다.



나도닭의덩굴의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나도닭의덩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ersicaria senticosa

며느리밀씻개

구박받는 며느리
애환 담긴 풀

과명	마디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독작용, 피부병, 타박상 등 그밖의 활용 : 비료로 사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밭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큰일이 급해 눈에 안 띄는 구석 아무데서나 불일을 보았다. 둘러보니 밀 땀을 풀이 없어 함께 일하던 시어머니에게 풀 좀 뜯어다 달라고 소리쳤다. 평소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풀이 아니라 숨털 같은 가시가 촘촘하게 뒤덮인 풀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밀을 닦기는커녕 손으로 만져도 아픈 풀이다. 그래서 며느리밀씻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그야말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의 애환을 대변하는 식물이다.

해설
지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 담긴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이름에 며느리가 들어가면 슬픈 꽃이래요

식물 이름에 며느리가 들어가는 것은 며느리배꼽, 며느리밀씻개, 며느리밥풀꽃 등이 있다.

구박받는 며느리가 연상되는 며느리밀씻개와 마찬가지로 며느리밥풀꽃에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구박을 받던 며느리가 밥이 다 되었는지 밥풀 몇 개를 집어먹다 시어머니에게 들켜 매질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무덤에서 못 보던 꽃이 피었는데 꽃이 며느리 입술처럼 붉은데 그 안에 밥풀 몇 개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치질도 다스린다고?

며느리밀씻개라는 이름의 다른 유래는 한방에서 나왔다. 이 풀을 진하게 우린 물로 좌욕을 하면 치질 예방과 치료에 좋다고 한다. 옛날엔 속 끓는 며느리만큼 치질에 많이 걸릴 사람도 없다고 여긴 탓일까? 이름의 유래로 보건대 며느리는 이 풀로 치료할 가장 표본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2m로 뻗어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붉은빛이 돌면서 네모진 줄기와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다. 잎은 서로 어긋나 달려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길이와 폭이 각각 4~8cm이다. 양면에 털이 있고 엽맥과 엽맥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다.

7~8월에 피는 꽃은 양성화로 가지 끝과 엽액에 모여 달린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은 깊게 5개로 갈라지며 연한 홍색이지만, 끝부분은 적색이다. 암술은 1개이며 화주는 3개. 열매는 둥글지만 다소 세모지고 흑색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들이나 물가에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부에 분포한다.

효 용

잎과 줄기는 음, 버짐, 습진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또 멍, 피땀힘, 타박상을 푸는 데 사용하며 치질에도 쓰인다.

활 용

쓴맛이 도는데, 어린잎을 나물로 무쳐먹으며 된장국 등의 국거리나 튀김으로도 먹는다. 또한 관상용으로도 사용된다.



메느리밀싹개의 꽃과 삼각형 모양의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메느리밀싹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ersicaria thunbergii

고마리

소는 맛있다고 고맙고
물고기는 깨끗하다고 고맙고

과명	마디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지혈, 소화 그밖의 활용 : 수질 정화, 가축 사료



이야기로 알아보기

고만 피라고 고만이

고마리는 고만이라고도 불린다. 고만고만한 꽃들이
여기저기 쉬지 않고 피어나니 이제 고만 피라고 고만
이다. 그런데 고마리를 부르는 이름은 한둘이 아니다.
고만이, 꼬마리, 조선꼬마리, 줄고만이, 큰꼬마리.
충청도에서는 돼지가 잘 먹는다고 하여 돼지풀로도
불린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고유의 농경사회 특징인 소를
이용한 농사를 부각시키며, 고마리가 소
의 먹이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고마
리의 수질 정화 능력을 설명해준다.

소의 심심풀이 간식

고마리는 소가 좋아하는 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소와 같은 가축의 먹이로 많이 쓰인다. 자양분이 많아
영양소를 제공하는 사료로 제격이다.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논둑이나 도랑 근처에 풀어놓은
소가 한가로이 고마리를 뜯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청소해줘서 고마워!

고만 피라고 고마리라지만, 고마운 풀이라서 고마리라
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고마리는 냇가나 연못가에
서 주로 자란다. 발달된 뿌리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니 함께 사는 물고기나
물속 곤충에게는 그야말로 고마운 풀일 것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줄기는 능선을 따라 밑을 향한 가시가 달리며 털은 없다. 서로 어긋나서 달리는 잎은 아래쪽은 엽병이 있으나, 윗부분은 없다. 모양은 창검처럼 생겼으며 길이 4~7cm, 폭 3~7cm이다. 가운데 잎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결잎은 서로 비슷하게 옆으로 퍼져서 난다. 잎밑은 심장 모양이고, 짙은 녹색으로 털이 약간 있지만 윤채는 없다. 엽병에는 날개가 있으며 뒷면 맥 위에 밑을 향한 잔가시가 있다. 엽초 길이는 5~8mm로 가장자리에 짧은 털이 있다. 꽃은 8~9월에 피고 가지 끝에 연분홍색 또는 흰색 꽃이 10~20개씩 뭉쳐 달려 핀다. 소화경은 매우 짧고 꽃잎은 없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진다. 수술은 8개, 꽃받침보다 짧고 암술대는 3개이다. 씨방은 난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저지대 도랑, 물가에서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동시베리아), 인도 북부, 인도차이나 북부에 분포한다.

효 용

줄기와 잎은 지혈제로 사용되며 잎을 달여 마시면 소화에도움이 된다고 한다. 씨앗은 눈을 밝게 해주는 약으로, 이질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활 용

수질정화식물로 축산농가 주변에 심어 폐수를 정화하며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과거 열매를 수제비로 만들어 먹는 등 구황작물로 재배해 잎과 줄기를 데쳐 나물로 무쳐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어린순만 식용으로 사용된다.



고마리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고마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ersicaria longisetia

개여뀌

흔한 개여뀌로
물고기 잡아먹던 추억

과명	마디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열, 해독제 작용, 타박상 치료 그밖의 활용 : 매운맛을 낼 때 사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개여뀌

식물 중에서 쉽게 구하거나, 흔하게 보이는 것들에게는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 이름을 지었다. 개여뀌도 마찬가지다.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있어 개여뀌라고 불렀다. 개망초, 개쑥부쟁이도 같은 의미에서 개가 붙은 식물들이다.

논두렁이나 냇가, 길가에서 자줏빛의 꽃이 무리지어 피는데, 대부분 개여뀌다.

해설 지침

혈관과 혈압에 관한 질병에 약효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접두어인 ‘개’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여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매운맛이 나 물고기 잡이에 사용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물고기 잡는 풀

개여뀌는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다. 예전에는 고된 농사일이 끝나면 사내들이 아무런 낚시 도구도 없이 개울가에 천렵을 가기도 했다. 그때 사용했던 천연 낚시 도구가 개여뀌였다.

개여뀌를 꺾어 짓쪼른 다음 물에 풀어놓는데 그러면 잠시 후에 매운 맛에 기절한 물고기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일은 많고 굶주리기는 예사였던 시절엔 개여뀌 물고기 잡이가 손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40~100cm로 줄기는 여러 개가 모여 나고 4~6개의 마디가 있다. 잎은 길이가 20~30cm, 너비가 5~10mm로 길고, 잎혀는 1mm 이내이며, 끝이 편평하다.

6~7월에 피는 꽃은 수상꽃차례로 피는데 그 길이는 15~25cm로 옆으로 처진다. 잔이삭은 곧게 서거나 꽃대에 붙으며 5~10개 달린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저지대 길가나 초원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효 용

가을에 뿌리를 포함해 말린 것을 해열제, 해독제, 지혈제, 이뇨제 등으로 사용하며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낮게 해준다. 그리고 옴, 버짐, 타박상에 잎과 줄기를 찢어 붙였다고 한다. 여름철 식중독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였다.

활 용

옛날, 남자아이들이 잎과 줄기를 찢어서 물에 풀어 물고기를 잡았다.

매운맛은 향신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여뀌의 꽃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개여뀌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명아주

조선 최고의 철학자도
명아주 지팡이에 기대어

과명	명아주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독작용 그밖의 활용 : 식용, 지팡이의 재료



이야기로 알아보기

장수와 효도의 상징

명아주 줄기는 가볍고 단단해서 지팡이의 재료로 적당하다.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목질화되어 딱딱하게 된 명아주 줄기를 그늘에 말리면 훌륭한 지팡이가 된다.

이렇게 만든 명아주 지팡이를 ‘청려장(靑藜杖)’이라고 불렀는데,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청려장을 짓고 다니면 중풍에도 안 걸린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

조선시대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께 바치는 청려장을 따로 가정(家杖)이라고 불렀다. 어르신이 환갑이나 일흔의 나이에 이르면 이렇게 청려장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청려장은 장수와 효도의 상징이었다.

해설 지침

퇴계 이황이 사용한 지팡이가 명아주로 만들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명아주 지팡이를 직접 보여주면서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효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가장 유명한 청려장은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청려장은 도산서원에 남아 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생전에 쓰던 청려장이다. 임금 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가 노구를 이끌고 청려장에 기대어 만물의 이치를 헤아리는 모습이 지팡이만 보고도 선하게 떠오른다.

명아주 지팡이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 ① 가을에 가장 높이 자랐을 때 명아주 뿌리까지 캐어 낸다.
- ② 통째로 폭 삶아 그늘에 말리는데, 그냥 말려도 상관 없다.
- ③ 지팡이를 쓰게 될 어른의 키 높이에 맞춰 잔가지와 뿌리를 자른다
- ④ 이렇게 만든 막대는 칼로 다듬고 사포로 문질러 손질한다.
- ⑤ 아주까리 기름을 발라 마무리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 60~150cm로 곧게 뻗으며 녹색줄이 있다. 잎은 서로 어긋나 달리며 달걀 모양 또는 삼각상 달걀 모양으로 어린잎은 중심부에 붉은빛이 돌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다. 전체에 털이 없고 잎자루는 길다.

5~10월에 피는 꽃은 양성화로 황록색이며, 가지 끝과 잎겨드랑이에 수상꽃차례가 모여 원추꽃차례를 이룬다. 화피 조각은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수술은 5개이다. 열매는 포과로 납작한 원모양이고, 씨는 검은색으로 광택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양지 바르고 교란이 심한 곳이나, 밭, 길가, 초지 등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전 세계에 분포하다.

효 용

잎·줄기를 약재로 쓰며 생약명은 여, 낙려, 회려, 지연채 등이다.

위를 건강하게 하고, 강장, 살균, 해열, 해독 등의 효능이 있어 대장염, 설사, 이질 등을 치료할 수 있으며 벌레 물린 상처나 사마귀(티눈) 치료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생즙을 복용하면 동맥경화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활 용

식용으로 어린순을 나물이나 국거리로 사용한다. 줄기가 곧으면 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



명아주 줄기와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명아주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chyranthes japonica

쇠무릎

소 무릎처럼 생겨
관절에도 좋다니 신기해

과명	비름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나물, 쌈



이야기로 알아보기

소 무릎처럼 생긴 데다 관절에도 좋아

소의 무릎처럼 줄기 마디가 굵어 쇠무릎이라 부른다. 한자어도 소의 무릎이라는 말로 우슬(牛膝)이다. 한때 관절에 좋다고 해서 남획하다 보니 그 흔했던 들풀이 눈에 안 띄더라는 얘기도 있었다 한다.

『동의보감』에 무릎이 아파 굽혔다 폈다 하기 어렵거나 노인이 오줌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쇠무릎 뿌리를 사용해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다.

다른 이름은 우경, 우석, 접골초, 고장근, 쇠물팍 등이 있다.

해설 지침

소의 무릎이 연상되는 굵은 줄기를 부각한다.

쇠무릎 열매가 바다제비 잡네

쇠무릎은 뿌리와 줄기, 잎을 모두 약재로 사용할 만큼 유용하지만 바다제비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만큼 두려운 식물이라고 한다. 쇠무릎 열매 때문이다.

산에 올라갔다 오면 바지에 깨알 같은 열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떼느라 애를 먹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쇠무릎 열매들이 묻어온 것이다. 바다제비에게 이 쇠무릎 열매가 치명적이다. 날갯짓이 약한 바다제비가 한번 열매 가시에 걸려들면 날개를 빼지 못해 결국 죽고 마는 것이다.

바다제비 서식지가 있는 섬에서는 쇠무릎 열매가 열리는 철마다 쇠무릎 제거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 50~100cm에 이르고 마디가 볼록하며 가지가 갈라진다. 서로 마주나는 잎은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양쪽 끝이 뾰족한 모양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8~9월에 피는 녹색 꽃은 잎겨드랑이와 원줄기 끝에서 수상꽃차례로 달린다.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휘어져 밑을 향해 달린다. 열매는 포과로 모양은 타원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흔히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중국, 대만, 히말라야 등지에 분포한다.

효 용

한방에서는 쇠무릎을 우슬(牛膝)이라 한다. 혈액 순환,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 간과 신장 보호, 소변 촉진 등의 기능이 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월경을 원활하게 하여 어머니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약재다.

또 관절이 결리고 아프거나, 코피, 입 속 종기나 상처, 두통, 어지럼증, 무력한 병증 등에 응용한다. 음식으로는 식혜를 만들거나 술을 담가서 먹는데, 신경통, 이뇨, 강정, 통경, 임질, 두통 등에 효능이 있다. 임신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활 용

봄, 여름에 채취한 잎은 부드러운 쌈으로 먹거나 나물로 무쳐먹는다.



소 무릎처럼 굽은 줄기 마디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쇠무릎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hytolacca americana

미국자리공

미국에서 건너온
환경 지표식물

과명	자리공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미국에서 건너 왔다고 미국자리공

미국에서 건너온 자리공이라고 해서 미국자리공인데, 뿌리와 열매에 독성이 있다. 여느 귀화식물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농부들은 일찍부터 미국자리공의 독성을 이용해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자리공 외에 자리공과 올롱도에만 사는 특산종인 섬자리공이 분포하지만, 흔하게 보는 자리공은 대부분 미국자리공이다.

해설 지침

여러해살이풀로 오염지대 지역이나 도시 주변 및 공단 주변에서 자라는 붉은 색 또는 녹색의 풀이다. 독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환경 지표식물로 활약해요

미국자리공도 할미꽃과 마찬가지로 환경 지표식물이다. 할미꽃을 통해 오염도가 낮은 지역임을 확인하듯이, 미국자리공을 통해서도 토양 오염도를 확인하다. 미국자리공은 할미꽃과 반대로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보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토양의 산성도를 확인하려고 심어보기도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3m에 이르며 녹색 또는 붉은색을 띤다. 어긋나게 달려 있는 잎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길이 10~30cm, 폭 5~15cm이다.

녹색이 도는 흰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흰색 꽃은 잎겨드랑이와 마주 달린, 길이 10~40cm의 총상꽃차례에 뽕뽕하게 달려 있다. 꽃받침은 5장, 꽃잎은 없다. 열매는 장과로 모양은 둥글며 10개의 곶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도시 주변이나, 공단 주변 오염지대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에 분포한다.



자리공(좌)과 미국자리공(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미국자리공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Stellaria aquatica

쇠별꽃

닭장에서 피어나는
별을 닮은 꽃

과명	석죽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부인병 치료 그밖의 활용 : 어린순 식용, 해장국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 꽃은 누가 봐도 별이네

별꽃에 비해 잎이 넓고 풍성하게 나 있다고 쇠(牛)를 붙여 쇠별꽃이라 부른다. 둘을 구별하는 것은 암술대로 가능하다. 암술대가 5개면 쇠별꽃, 3개면 별꽃이다.

이름에서도 연상되듯이 쇠별꽃은 작은 모양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 밤하늘 별들처럼 환하게 보인다. 쇠별꽃의 학명에 나오는 스텔라리아(Stellaria)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이 꽃을 보고 똑같이 별을 떠올렸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줄기가 가늘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모습이 닭의 창자와 같다고 해서 계장초(鷄腸草)라고도 부른다.

해설 지침

닭과 관련되어 이름의 유래가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 쇠별꽃과 별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닭들이 노는 공간에 피었다고?

쇠별꽃이라는 이름은 20세기 들어와 새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 오랫동안 우리말로 불렸던 이름은 ‘닭의 십가비’다.

십가비라는 말은 닭의 혀 모양이나 여성의 성징(性徵)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십가비는 씨받이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하니, 풀어보면 닭의 씨받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된 것은 아마도 생육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농촌 마을의 경작지나 시냇가에 자라는데, 이곳들이 주로 닭들을 풀어놓는 곳이다. 여기서 닭들의 생식과 번식이 일어난다고 보면 아주 엉뚱한 말은 아닐 것 같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0~80cm이고, 바닥 부분이 연약하여 옆으로 누워 자란다. 줄기는 밑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마주달리고, 길이는 2~6cm, 폭은 0.5~3.0cm다.

4~5월에 피는 흰색 꽃은 가지 끝에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꽃자루의 길이는 1~2cm로 털이 많이 나며, 꽃이 진 후 밑으로 굽는다. 꽃받침조각은 5장이고, 가장자리는 막질이 있고 뒷면에 털이 많다. 꽃잎은 5장인데, 길게 2갈래로 갈라지며, 길이는 3~4mm다. 수술은 10개이고 꽃잎보다 짧다. 암술대는 5개이고, 꽃받침잎과 어긋나게 붙는다. 열매는 삭과이며, 모양은 난형으로 5갈래로 갈라진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습기 있는 밭이나 들에 자라는 두해살이풀 또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북반구와 북아프리카 온대지방에 분포한다.

효 용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며 생즙을 내어 먹거나 달여 먹는다.

생약명은 번루, 아아장 등이 있다. 맹장염, 위장병, 심장병 등을 치료하며, 젖분비 부족, 산후 복통, 자궁병 등과 같은 부인병 치료에도 좋다. 그리고 타박상이나 종기의 환부에 생즙을 짓찧어 붙이면 효과가 좋다.

활 용

식용으로는 어린순이 사용되며 나물이나 국에 넣어 먹으며 해장국으로도 좋다.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는 쇠별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쇠별꽃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Nelumbo nucifera

연꽃

인간의 인연 깨우치는
불교의 꽃

과명	수련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심장, 신장, 위장, 근육 보호, 부인병 그밖의 활용 :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사람의 인연이 이와 같다네

연(蓮)은 뿌리의 마디마디가 싹뿌리를 깊게 내리고 진흙 속에서 계속 이어져 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만나게 되는 게 한자 잇닿을 연(連)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래서 연꽃에는 유난히 남녀의 인연과 사랑 이야기가 많다.

불교에서는 연이 극락세계를 상징하는데, 장수, 건강, 행운 등의 좋은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다.

해설 지침

연꽃에 담긴 깊은 인연, 장수, 행운 등의 의미를 이야기와 함께 알려준다. 연의 씨앗은 오랫동안 휴면기를 가질 수 있으며, 무려 4천 년 전의 씨앗이 발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중국에서 음력 6월 24일이 연꽃의 날이 된 사연

연꽃에 전해 내려오는 사랑 이야기가 있다. 옛날 중국에 서로 사랑하던 선남선녀가 있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양가의 반대가 극심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절망한 연인은 다음 생에서라도 인연을 맺자며 함께 연못에 투신하고 만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일 년 후인 음력 6월 24일 연못에서 하얀색의 어여쁜 연꽃이 올라와 만개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음력 6월 24일을 연꽃의 날(관련절)로 정해놓고 해마다 기념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연의 뿌리인 연근은 줄기에 왕대 모양 마디가 있으며 옆으로 길게 뻗는다. 풀잎은 땅속의 줄기에서 길게 뻗어 나온다. 잎자루는 1~2m로 물 위로 솟는다. 연잎의 지름은 약 40cm 정도이며, 둥글고 우산을 펼친 것 같은 모양이다.

분포 및
생육지

7~8월경 잎자루와 뿌리 사이에서 꽃대가 나온다. 주로 붉은색의 꽃이 피는데 담홍색이나 흰색도 경우에 따라 피는 종류가 있다. 10월경 꽃이 지고 나면 별집 모양의 열매가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 타원형의 검은색 씨앗이 하나씩 들어 있다.

효 용

우리나라 각지의 연못에서 자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 농가에서 작물로 연못이나 논 등에 심어 키우기도 한다. 여러해살이풀이다.

활 용

심장, 신장, 위장, 근육을 보호하고 눈과 귀를 맑게 한다. 또 갖가지 부인병을 치료한다. 저혈압인 사람이 연근즙을 마시면 좋다. 특히 연밥은 기력을 왕성하게 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연밥은 쌀과 함께 밥을 지을 수 있고 연근은 조림, 튀김 등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
연잎으로 담근 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술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별집 모양으로 나는 연꽃의 열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연꽃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eratophyllum demersum var. *demersum*

붕어마름

물속 풍경에 늘 등장하지만
이름은 잘 몰랐던

과명	붕어마름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혈압을 다스리는 열 내림의 효능 그밖의 활용 : 관상식물로 활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붕어마름은 어떻게 붕어마름이 되었나?

붕어마름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붕어가 사는 물속의 말’이라는 의미다. 습지나 연못에서 자라는 붕어마름은 물속 수초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물속 풍경을 그릴 때면 물고기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붕어마름을 그리게 되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붕어마름은 금붕어풀, 금어조(金魚藻), 금어초(金魚草)라고도 부른다.

뿌리가 없으면 줄기로 버틴다

붕어마름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는 걸까?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며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줄기가 뿌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헛뿌리로 변한 줄기가 바닥에 달라붙어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다.

줄기를 잘라서 수조에 넣어두면 금세 헛뿌리를 내려 새로운 장소라도 구애받지 않고 번식한다. 붕어마름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설
지침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인 점을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30~80cm의 줄기는 물속에 잠겨 가지를 치는데 가늘고 길다. 잎은 녹색 또는 연두색으로 8~9개가 둘러나고 2~3회 깃꼴로 갈라져 난다. 갈래 조각의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톱니 끝에 투명한 가시가 있다.

5~6월에 피는 꽃은 암수 한 그루에 피고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막질의 총포에 싸여 있다. 수꽃은 수술이 많고 꽃잎이 없다. 열매는 수과로 아랫부분에 2개의 가시가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강, 습지, 연못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러시아,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붕어마름 줄기나 뿌리 등을 우려내어 혈압을 내리게 하거나, 주기적으로 열이 나는 학질의 열내림 약으로 사용한다.

활 용

관상식물로 수족관이나 연못 등에 자라게 한다.



붕어마름이 줄기로 뿌리를 내린 모습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붕어마름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nunculus kashusensis

매화마름

이름은 흔해 보여도
람사르습지로 보호받는 군락지

과명	미나리아재비과
구분	자생식물, 희귀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피부병 치료 그밖의 활용: 관상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물매화도 닮고 붕어마름도 닮고

매화마름의 꽃은 물매화의 꽃과 닮았다. 잎은 붕어마름의 잎을 닮았다. 물매화도 닮고 붕어마름도 닮아서 이름을 섞었다. 그렇게 매화마름이라 불린다. 매화마름의 다른 이름으로는 미나리마름, 미나리말이 있다.

해설 지침

희귀식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꽃모양이 매화를 닮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람사르습지와 매화마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더불어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등을 설명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매화마름 군락지

물매화의 꽃을 닮고 붕어마름의 잎을 닮았다고 성의 없이 이것저것 섞어놓은 이름처럼 매화마름은 원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흔한 식물이었다. 그러나 농약과 제초제 살포로 급격하게 사라져 지금은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강화도 초지리 일대의 논에 매화마름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것이 보고되었고, 2008년 논습지로는 처음으로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농약에 취약한 만큼 매화마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기농의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cm까지 곧게 자라고 속은 비어 있다. 물속의 잎은 3~4번 가는 실처럼 갈라져서 나고 땅 위로 올라오는 잎은 통통하다.

꽃은 4~5월에 피고, 잎과 마주난 꽃자루가 물 위로 나오면 그 끝에 꽃이 한 개씩 핀다. 꽃의 지름은 1cm 이고 흰색이다. 꽃받침잎과 꽃잎은 각각 5장이다. 열매는 수과이며, 여러 개가 모여 둥글게 된다. 생육은 차광에 의해서 저해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길이생장이 증가한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서해안과 서해안 섬, 경주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논, 수로 등 주로 물속에 잠기거나 물 밖에 나와 자란다. 국외로는 일본에도 분포한다.

효 용

사마귀가 난 자리, 뽀루지, 습진, 두드러기, 부스럼과 같은 피부병에 잎을 짓찧어 바른다. 민간에서는 부엌을 때나 열을 내리기 위해 달여 먹는다.

활 용

주로 관상용으로 사용된다.



매화마름의 꽃(좌)과 물매화의 꽃(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매화마름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발견 일자:

촬영자:

Jeffersonia dubia

깽깽이풀

띠엄띠엄

한가로이 꽃이나 피네

과명	매자나무과
구분	자생식물, 희귀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건위, 소화불량, 식욕 감퇴, 설사 그밖의 활용 : 관상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개미를 통해 번식하다 보니

깽깽이풀 군락지는 약간 독특하다.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띠엄띠엄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것은 깽깽이풀의 번식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깽깽이풀은 씨앗 표면의 달콤한 물질로 개미를 유인 하는데, 씨앗을 물고 가던 개미가 씨앗을 흘리거나 단 물을 먹고 버려 그렇게 땅에 떨어진 씨앗이 묻혀 싹을 틔워 자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씨가 띠엄띠엄 뿌려진 꼴이 된 것이다.

깽깽이풀이란 이름도 개미가 제 가던 길을 따라 깽충깽충(깽깽) 뚫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해설 지침

도 알려준다.

농사철과 관련되어 이름이 붙여진 점을 알려준다. 개미를 통해 번식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멸종위기식물로서의 가치

별난 이름에 숨은 별난 이야기

모내기철이라 농사일이 한창 바빠지는데 근처에서 활짝 핀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일은 안 하고 한가롭게 별이나 찍며 깽깽이(해금)을 켜는 것 같다 하여 그리 불렀다고도 하고, 이 풀을 뜯어먹은 강아지가 환각을 일으켜 깽깽거린다 하여 깽깽이풀이라고도 한다.

이름과는 달리 귀하신 몸

깽깽이풀은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그만인 데다 뿌리가 약재로 쓰이면서 마구 남획되었다. 그 바람에 지금은 산림청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좀 경망스런 이름에 비해 깽깽이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접받는 귀하신 몸이 되었다. 깽깽이풀 군락지가 발견되면 매스컴을 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0cm 정도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중국 동북부에도 분포한다. 모양을 보면 잎은 뿌리에서 여러 장이 나며, 잎자루가 길다. 잎몸은 둥근 모양, 밑은 심장 모양, 끝은 오목하고,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다.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뿌리에서 난 긴 꽃자루 끝에 1개씩 달리며, 꽃의 색상은 붉은 보라색인데, 드물게 흰 꽃도 있다. 꽃받침잎은 4장으로 피침형이며 일찍 떨어진다. 꽃잎은 6~8장, 난형이다. 열매는 삭과다. 지하경은 약으로 쓰인다.

분포 및
생육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 중턱 아래에 드물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전국의 산 중턱 낙엽활엽수림 아래에 드물게 자라며 습기가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

효 용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된다. 갯깁이풀은 쓴맛이 나는데 이는 위를 건강하게 해주며 설사를 멈추고 열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소화불량, 식욕감퇴 등을 다스린다. 구내염, 안질 등에도 사용된다.

활 용

꽃과 잎이 예뻐 관상용으로 사용된다.



예뻐기로 소문난 갯깁이풀의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갯깁이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발견 일자 :
촬영 자 :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노란 애기 똥이 흐르는
신기한 식물

과명	양비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신경통, 복통, 설사, 모기 물림 등 그밖의 활용 : 비료로 사용, 수질 정화



이야기로 알아보기

애기가 똥 썼네

이 식물의 줄기를 꺾어보면 노란색의 액체가 뭉쳐 흘러나온다. 그게 아기의 똥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애기똥풀이다.

산에서 벌레에 물렸을 때 근처에 있는 애기똥풀을 꺾어 거기서 흐르는 유액을 바르면 진통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른 이름은 까치다리, 젓풀, 씨아똥 등이 있다.

새끼 제비 눈 뜨게 하는 풀

애기똥풀의 학명 Chelidonium은 제비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애기똥풀이 제비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갓 태어난 제비 새끼가 눈을 못 뜨고 있으면 어미가 애기똥풀 가지를 꺾어온다. 그래서 그 유액을 눈에 발라 주는데 그러면 신기하게 눈을 뜬다는 것이다.

노란색으로 곱게 물들여보자

옛날 시골 아이들은 가지에서 흐르는 노란 즙을 손톱에 바르며 놀기도 했다. 그러나 맛을 보는 것은 금물. 독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설 지침

꺾인 줄기에서 흐르는 노란색 액체를 관찰하며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동부아시아의 온대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원줄기는 분을 칠한 듯한 흰빛이 도는데 상처를 내면 등황색의 유액이 흘러나와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줄기는 높이 30~80cm, 잎은 어긋나기, 1~2회 깃꼴로 갈라진다. 5~8월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서 산형 화서가 발달하고 황색꽃이 달린다. 꽃잎 4개, 1개의 암술과 많은 수술이 있는데 암술머리는 약간 약간 굽고 끝이 2개로 얇게 갈라진다.

열매는 좁은 원주형의 길이 3~4cm, 지름 2mm이며 양끝이 좁고 같은 길이의 대가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의 부락 근처의 양지 또는 숲 가장자리에서 흔히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효 용

약용으로는 꽃을 포함한 잎과 줄기가 쓰이며, 암, 위통, 생리통,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 뿌리 달인 물은 신경통, 항암, 복통, 설사에 좋다.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노란즙은 모기 물린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통증도 약해지며, 옷이 오른 곳에도 좋다. 또 지혈작용을 한다.

활 용

독성이 강하여 함부로 먹으면 안되지만, 어린잎은 식용할 수 있다.



애기똥풀의 꽃과 꺾으면 노란 유액이 흐르는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애기똥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Lepidium apetalum

다닥냉이

열매가 다닥다닥
소리도 다닥다닥

과명	십자화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이뇨, 거담, 완하 등



이야기로 알아보기

미스터리한 귀화식물

대부분의 귀화식물이 개항 이후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왔는데 다닥냉이는 개항 이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미스터리한 귀화식물이 되었다.

다닥냉이와 달리 콩다닥냉이는 개항 이후에 들어온 게 확실하다고 한다. 둘 다 귀화식물이라 그런지 다닥냉이는 선배 행세를 하지 않고 콩다닥냉이와 같은 생육지를 공유하며 함께 자란다.

가난한 사람들의 후추

한글 이름인 다닥냉이는 줄기에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열매가 담긴 자루가 흔들리면 ‘다닥다닥’ 하는 소리가 들려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다닥냉이가 귀화식물이라면 원래 원산지에서 부르는 이름은 무엇일까? 원산지에서 부르는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후추(poor man's pepper)다. 실제로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매운 맛이 난다.

해설 지침

다닥냉이의 이름 유래를 알려준다. 원산지에서는 어떻게 불렀는지도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30~60cm안팎으로 털은 없다. 잎은 서로 어긋나게 자리하며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이 1~2cm이고 깃꼴겹잎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어긋나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가장 위쪽에서는 선형이 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어진다.

흰색 꽃은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꽃받침은 녹색이며 4개이고 꽃잎의 수도 4개이다. 열매는 각과이고 둥근 타원형이며 익으면 2갈래로 갈라진다. 씨는 납작한 타원형이며 적갈색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들에 자라는 한해 또는 두해살이풀로, 국외에는 러시아, 몽골, 인도, 중국, 유럽,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

효 용

이뇨, 거담, 완하 등의 효능이 있고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작용도 한다



다닥냉이의 꽃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다닥냉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apsella bursapastoris

냉이

농부 따라 다니며
봄 향기 전해요

과명	십자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고혈압, 당뇨, 아기의 경기 그밖의 활용 : 식용으로 사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름은 다 달라도 먹는 법은 같아

냉이는 먹을 수 있는 약, 채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두식 발음으로 내이(乃耳), 나이(那耳), 한글로 나시, 나이, 남새, 나생이 등에서 유래된 고유의 우리 말이다.

한자를 빌린 향명(鄉名)으로 ‘내-’나 ‘나-’에는 ‘낳다(生)’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사투리로 나생이, 나승구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은 전역에 분포하는 것은 물론 어디서나 비슷한 방법으로 섭취를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냉이는 예로부터 춘궁기를 넘겨야 했던 서민들에게 배고픔을 덜어주었던 요긴한 먹을거리였다.

농부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녀요

냉이는 초봄에 여느 밭이나 밭둑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냉이의 생육지에는 소박한 비밀이 하나 있다.

냉이가 자라는 자리는 늘 일손 바쁜 농부의 발길이 지나간 자리다. 농부가 모는 경운기 바퀴나 장화 밑창에 묻은 진흙 속 열매들이 농부를 따라다니며 여기저기로 멀리 퍼져나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부가 삶의 터전으로 삼는 곳마다 냉이가 서식한다. 넓은 채소밭에 냉이가 함께 자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해설 지침

냉이의 향을 함께 말아보면서 풍미를 느끼게 한다. 냉이의 어원에 담긴 생명력의 의미를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0~50cm로 곧게 뻗어 서며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뿌리에서 나는 잎은 여러 장이 모여 뭉쳐나고 깃꼴로 갈라진다. 줄기에 나는 잎은 어긋나고 위로 올라가면서 잎자루가 없어지며, 바소꼴로 줄기를 반쯤 감싼다. 줄기 잎의 가장자리는 깃꼴로 갈라지지만 위로 갈수록 크고 날카로운 이 모양으로 된다. 5~6월에 피는 흰색 꽃은 줄기와 가지 끝의 총상꽃차례에 달리며 난다. 꽃받침잎은 4장으로 긴 타원형이고 꽃잎도 4장이며 주걱 모양이다. 열매는 삼각형 모양으로 끝이 오목하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저지대 길가나 초원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효 용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에 쓰이거나 아기가 경기할 때 냉이 냄새를 맡게 하면 좋다고 한다.

활 용

잎과 뿌리는 향과 씹히는 맛이 좋아 찌개를 끓일 때 넣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며, 영양분이 높아 춘곤증을 없애고 입맛도 돋워준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냉이 씨를 물에 타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고 한다.



냉이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냉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Kerria japonica

황매화

사랑과 후회 담긴
전설의 꽃

과명	장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지혈제로 사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매화는 아니에요!

꽃은 매화꽃을 많이 닮았고, 색깔은 매화와 달리 노란 색을 띄고 있어 황매화라 부른다. 전남 지방에서는 제당화, 금완, 수중화, 황매, 죽도화 등으로 부른다.

이야기 많은 전설의 꽃

부잣집 외동딸과 사랑을 나누던 청년은 딸의 아버지의 반대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 여인은 청년에게 손거울을 반으로 나눠주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청년이 떠난 사이 도깨비가 나타나 여인을 외딴 섬으로 끌고 갔다. 청년이 뒤늦게 외딴 섬을 찾아갔으나 가시나무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피를 내어 여인과 나눠 가진 손거울을 합쳐 도깨비에게 빛을 반사시키자 도깨비가 사라졌다. 그러자 가시나무의 가시도 부드러워지면서 가시마다 꽃이 피었다. 그 꽃이 황매화다.

해설 지침

노란 꽃이 피는 점을 부각시키고, 과거 지혈제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황매화에 대한 상반된 전설을 들려준다.

황매화와 겹황매화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소녀가 병이 들더니 눈이 멀고 말았다. 소녀를 좋아했던 이웃집 소년이 같은 날 태어난 산 너머 마을의 소년의 눈을 멀게 하면 소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소년은 소녀를 위해 산 너머 마을의 소년을 찾아가 몇 달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려 소년의 눈을 멀게 했다.

소년이 돌아와 보니 이미 소녀는 숨을 거둔 뒤였다. 그 때서야 잘못을 뉘우친 소년이 산 너머 소년에게 사죄를 하러 갔으나 이미 그 소년도 죽고 말았다. 소년의 무덤가에 꽃이 한 무더기 피었는데 그게 황매화였다. 그 황매화 가지를 꺾어 소녀의 무덤가에 심어주니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 꽃이 겹으로 생겼다고 한다. 그게 겹황매화였다. 황매화는 눈을 멀게 한다는 속설이 이 전설에서 나왔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2m로 곧게 서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 잎은 난형 또는 긴 타원상 난형으로 길이 3~5cm, 폭 2~2.5cm이다. 끝이 길고 뾰족하며, 가장자리는 톱니처럼 되어 있다. 잎 앞면은 녹색으로 털이 없고,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잎맥에 잔털이 다소 있다. 잎자루는 길이 3~9mm, 짧고, 털이 없다.

꽃은 작은 곁가지 끝에 잎과 함께 1송이씩 피어난다. 5장의 노란 꽃잎을 가졌으며 지름은 3cm 안팎으로 핀다. 꽃자루는 길이 8~12mm로 털이 없고, 꽃받침잎도 양쪽에 털이 없이 녹색을 띤다.

열매는 수과, 길이 4~5mm, 털은 없고, 꽃받침잎이 남아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의 산 중턱의 수풀, 숲 속 물가 주변에 자라는 낙엽성 떨기나무다. 국외는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황매화의 꽃을 말려 지혈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황매화 꽃(좌)과 겹황매화 꽃(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황매화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Duchesnea indica

뱀딸기

뱀이 좋아한다고?

뱀이 살기 좋은 곳에 산다고!

과명	장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당뇨 및 항암 효과, 통증 완화 기능 그밖의 활용 : 식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뱀딸기의 주인은 뱀일까?

뱀이 먹는 딸기라고 해서 뱀딸기라 불렀다고 한다. 혹은 자라는 근처에 뱀이 자주 보여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그럴 만도 한 게 뱀딸기가 주로 자라는 곳이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다.

식물 이름에 뱀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생육지와 관련이 깊다. 음침하고 습한 곳에 뱀이 사는 것처럼 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식물도 비슷한 곳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

뱀딸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

옛날부터 뱀딸기는 독이 있다고 해서 먹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맛이 차고 밋밋해 굳이 따서 먹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서늘한 맛으로 가슴이나 배에서 열이 계속 나는 것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산딸기에 비해 맛이 떨어져 웬만하면 거들떠도 안 보던 뱀딸기가 요즘 다양한 약효가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설 지침

딸기 앞에 접두어 '뱀'이 붙은 이유를 알려준다. 뱀딸기 열매를 이용해 목걸이나 팔찌 등을 만드는 체험을 해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줄기는 땅 위로 뻗으며 뿌리를 내리고, 전체에 긴 털이 많다. 어긋나 달려 있는 3장의 겹잎은 난상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는 겹톱니가 있다.

4~5월에 피는 노란꽃은 잎겨드랑이에서 긴 꽃줄기가 나와 끝에 1개의 꽃이 달린다. 부꽃받침잎은 꽃받침잎보다 조금 크다. 꽃잎은 넓은 난형이다. 열매는 수과로 6월에 익으며 둥글고 지름 1cm 정도로 붉게 익으면 먹을 수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풀밭 또는 숲 가장자리에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 인디아, 인도네시아에 분포하고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는 귀화식물이다.

효 용

당뇨, 설사, 암, 간질병과 같은 발작, 감기, 천식, 생리통, 위염, 충수염, 피부염, 화상, 타박상,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각혈, 보혈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활 용

식용으로 연한 잎과 줄기를 삶아 나물이나 된장국에 넣어 먹었다.

열매와 꽃 등을 엮어 목걸이나 팔찌 등을 만들어 놀았다고 한다.



뱀딸기의 잎과 열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뱀딸기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ueraria thunbergiana

칠향

식용에서 생활용품까지
쓰임새 많은 식물

과명	콩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식욕 증진 및 숙취 해소 그밖의 활용 : 가내 공업, 생활용품 제작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아빠와 아들이 함께 씹던 추억거리

칠향은 원래 ‘갈(葛)’이라 불렸다. 지역에 따라 건갈, 감갈, 분갈 등으로 불린다.

칠향은 계속 씹으면 단물이 나와 옛날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아이들이 껌처럼 노상 씹고 다녔던 만만한 간식이었다.

칠향의 뿌리인 갈근은 숙취 해소 기능도 있어 아버지가 술을 마신 다음날 술국이 없으면 칠향을 씹으며 술을 깨기도 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의 추억담이다.

해설
지침

목공예, 끈 등에 활용되는 재료임을 알려준다. 칠향을 직접 씹어보고 맛을 느끼게 한다.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들려준다.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생활 자원

칠향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구황식물이기도 하지만 식용 이외에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칠향을 가늘게 벗겨 만든 섬유인 청올치는 면포처럼 갈포를 짜기도 하고, 물건을 묶는 줄도 만들었다. 칠향을 엮어 삼태기나 광주리, 바구니도 만들었고, 소의 코뚜레를 메거나 연장 자루를 뿔 때도 소용되었다.

토사가 내려와 쓸려 가지 않도록 칠향을 심기도 했다.

갈등은 칠향과 등나무

칠향(葛)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藤)는 항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이렇게 칠향과 등나무처럼 서로 화합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葛藤)이라는 말이 생겼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줄기는 갈색 또는 백색의 퍼진 털과 반곡모가 많다. 잎은 3출엽으로 작은 잎은 털이 많고 마름모꼴 또는 난형이다. 엽병은 털이 있고 탁엽은 피침형이고 떨어진다.

8월에 피는 홍자색 꽃은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많은 수가 달리고, 짧은 털이 있다. 포는 선형으로 긴 털이 있다. 열매는 9~10월에 익는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빈터나 숲 속의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로, 국외는 일본, 중국, 대만, 극동 러시아에 분포한다.

효 용

속의 뿌리줄기를 갈근(葛根)이라 한다. 갈근은 발한, 해열, 지갈, 지사, 경련 가라앉히기 등의 효능이 있다. 칩의 꽃을 갈화라 하는데, 술로 인한 구토, 식욕부진, 장출혈 등에 응용하며 숙취 해소에 좋다.

활 용

갈근을 뺀아 만든 갈분은 어린이와 노약자에 좋으며 국수나 떡,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또 가내 공업용으로 물건이나 끈, 목공예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칩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칩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mphicarpaea bracteata

새콩

콩은 콩인데
먹지 않는 콩

과명	콩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팔과 다리 등의 통증 완화 그밖의 활용 :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콩은 콩인데 콩 대접 못 받아요

새콩은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만 좋으면 잘 자라는 콩과 덩굴성 식물이다. 콩은 콩인데 새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품질이 떨어져 따로 생산하는 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콩은 콩의 원종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에 '새'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품질이 다소 떨어지거나 모양이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설 지침

콩에 접두어 '새'가 붙은 이유를 알려준다. 열매의 모양이 무엇을 닮았는지 얘기해본다.

흉년이 들면 새콩도 아쉬워

새콩은 일부러 먹지 않을 뿐이지 아예 먹을 수 없는 콩은 아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가을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잘 익은 씨를 거둬 쌀이나 보리에 섞어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길이는 1~2.5m로, 바닥을 향해 털이 퍼져서 난다. 줄기는 덩굴 지어 자라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간다. 잎은 서로 어긋나게 달려 있고, 3장의 작은 잎이 나온다. 작은 잎은 난형으로 길이 3~6cm, 폭 2.5~4cm이다. 잎 표면에는 털이 있으며 뒷면은 흰색을 띤다. 턱잎은 좁은 난형으로 끝까지 붙어 있다.

8~9월에 피며 꽃은 연한 자주색이고, 잎겨드랑이에서 난 꽃대에 6개쯤이 총상꽃차례로 핀다. 꽃받침은 끝이 5갈래로 갈라지며, 갈래는 통 부분보다 짧고 털이 있다. 열매는 협과이고 모양은 타원형으로 길이 2.5~3cm, 폭 0.7~0.8cm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들에서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러시아(극동), 일본, 중국, 인도차이나, 히말라야에 분포한다.

효 용

뿌리는 '양형두'라 하여 약재로 사용되는데, 팔과 다리 등에 통증이 있을 때 복용한다.

활 용

씨앗은 식용으로 활용된다.



새알을 닮은 열매(위)와 꽃(아래)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새콩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꽃을 따먹던 시절의
추억만 남은 나무

과명	콩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이뇨, 완하 등



이야기로 알아보기

꽃으로 배 채웠던 그 시절의 추억

아까시나무의 꽃에는 꿀샘이 있어 송이 모양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5~6월이면 아이들이 꽃을 생으로 따먹기 바빴다.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 아직 열매들이 익지도 않은 숲에 놀러 갔다가 배부르게 먹고 콧노래 부르며 내려오던 기억들이 어른들에게는 남아 있다.

보릿고개를 넘길 때는 아까시나무 꽃을 따서 밀가루에 찌먹기도 했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귀화식물로, 흑갈색 씨를 가지고 있으며 콩 모양이다. 6~70년대 우리나라 녹화사업의 대표적인 조림수종이었으나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져 조림수종에서 제외되었다는 걸 알려준다.

최고령 아까시나무는 130살

흔히 아카시아라고 잘못 부르는 아까시나무는 북미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다. 아카시아는 전혀 다른 식물로, 아카시아 식물 속 종류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아까시나무는 구한말인 1880년대 도입되어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낮은 식물이 되었다. 경북 성주 지방리에 심은 우리나라 최고령 아까시나무가 약 130여 살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입 시기가 얼추 비슷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 25m 정도로 표면은 황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진다. 잔가지는 털이 거의 없고 턱잎이 변한 가시가 많다. 서로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홀수 회 깃꼴겹잎이고, 9~19장의 작은잎으로 구성된다. 잎 양끝은 둥글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양면에 털이 없다. 길이는 2.5~4.5cm이다.

꽃은 새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비 모양의 흰색 꽃이 10~20cm 길이의 총상꽃차례에 달린다. 열매는 협과로 긴 타원형이며, 길이 5~10cm로 납작하다. 흑갈색 씨는 콩팥 모양으로 길이 5mm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라는 낙엽큰키나무로 국외는 북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다.

효 용

뿌리껍질을 약재로 쓰고 이뇨, 완하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수증, 임질, 변비 등에도 좋다.



아까시나무의 잎과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아까시나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Trifolium repens

토끼풀

행운 찾는 이들에게
행복의 가치 알려주는 풀

과명	콩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꽃반지, 꽃팔찌 등 아이들 장난감



이야기로 알아보기

토끼풀의 유래

토끼가 잘 먹는 풀이라서 토끼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중부 유럽에서 건너온 귀화식물이다. 우리에겐 잡초로 취급받지만 아일랜드에는 국화로 대접받는다.

토끼풀보다는 클로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보기 드문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며, 흔하게 널린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귀한 행운을 찾는 대신 늘 곁에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리라는 의미심장한 꽃말을 가지고 있다.

해설 지침

꽃말을 통해 삶의 가치를 들려준다. 행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행운의 꽃말에 얽힌 이야기들

프랑스의 어느 가난한 청년이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늘 일에 지쳐 풀밭에 누워 잠을 청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마침 누운 풀밭에서 네 잎 토끼풀을 발견하고 잘 간직해두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잘 풀려 무일푼이었던 청년은 어여쁜 처녀와 결혼도 했다. 청년은 이게 모두 네 잎 토끼풀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한다.

또 다른 행운의 이야기도 있다. 전투에 참전한 나폴레옹이 잠시 토끼풀이 무성한 풀밭에 앉아 쉬고 있다가 네 잎 토끼풀을 보고 신기해 몸을 숙였는데 그때 이슬아슬하게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다고 한다. 네 잎 토끼풀은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행운을 상징하게 되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전체에 털이 없고, 줄기는 옆으로 자라다가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며 비스듬히 선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며 3장으로 된 겹잎이고 길이 6~20cm이다. 작은잎은 도란형 또는 도심장형으로 길이 15~25mm, 폭 10~25mm이다. 끝이 둥글거나 살짝 들어갔으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턱잎은 난상 피침형이고 끝이 뾰족하다.

4~7월에 피는 흰색 꽃은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길이 20~30cm 길이의 꽃자루 끝에 30~80개가 모여서 두상꽃차례로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끝이 뾰족하고 털이 없다. 열매는 협과로 모양은 선형이며 4~6개의 씨가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낮은 산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유럽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활 용

어린이들의 꽃반지, 꽃팔찌 만들기 재료로 활용되었다.



토끼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토끼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uonymus japonica

사철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백년해로의 상징

과명	노박덩굴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월경 불순, 두통



이야기로 알아보기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잎이 사시사철 푸르다 하여 사철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겨울에도 뚜렷하게 푸른 이파리들을 유지해 겨우살이나무, 무른나무, 개동굴나무, 동청 등으로도 불린다.

6~7월에 노란빛이 나는 작은 꽃들이 피고, 겨울에 주황색의 작은 열매를 볼 수 있다. 추위와 공해에 강해 조경용뿐만 아니라 울타리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해설 지침

백년해로의 의미를 담아 전통 혼례식 상에 사철나무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려 준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전통 혼례의 대례상에는 닭과 송죽(松竹)이 올라오지만 송죽 대신 사철나무의 잎과 줄기를 올려놓기도 한다. 혼례식에 올라오는 사철나무는 백년해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철나무의 꽃말도 ‘변함없음’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6m이고, 가지는 녹색이고 표면은 매끈하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타원 모양이며 잎 가장자리에는 작은 톱니가 있다. 잎 표면은 짙은 녹색을 띠고 뒷면은 노란빛이 도는 녹색을 띤다.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연한 황록색의 꽃이 취산화서로 꽃송이가 여러 개 달린다. 꽃의 색은 녹색이 도는 흰색이며 지름 7mm 정도다. 꽃잎과 꽃받침, 수술은 4개씩이다. 열매는 삭과로 둥글고 붉은색을 띠며 열매가 익으면 4갈래로 갈라져 씨가 나온다. 씨는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껍질에 싸여 있다.

분포 및
생육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의 바닷가, 산기슭에 자라는 상록떨기나무로 국외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에 분포한다.

효 용

여성병인 월경 불순에 사철나무의 뿌리를 달여서 약용하면 효과가 있다. 열매는 두통과 같은 진통제로 이용한다.



사철나무의 열매와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사철나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Koelreuteria paniculata

모감주나무

열매로 염주도 만드는
통증 치료 나무

과명	무환자나무과
구분	자생식물, 희귀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염증 및 충혈 증상에 뛰어남 그밖의 활용 : 염주, 꿀, 염료



이야기로 알아보기

아픈 곳도 사라지게 한다고

모감주나무는 우리말 이름이다. 예전에는 제주도와 전남 지역의 방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무환자(無患子)의 옛말인 모관주에서 비롯된 모관주나모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무환자는 『동의보감』에 아픈 곳을 사라지게 하는 신통한 약재로 언급되어 있다. 모감주나무를 바로 이 무환자로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모감주나무는 실제로 염증 치료에 뛰어난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모감주나무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한다.

해설 지침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는 ‘무환자’에서 유래한 이름을 알려준다. 불교에서 열매로 염주를 만든다는 점을 알려준다.

스님들이 사랑하는 나무

나무에도 종교가 있다면 모감주나무의 종교는 단연 불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감주나무의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 때문이다. 염주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다. 나무 이름에 대한 좀더 불교적인 색채의 유래도 있다. 모감이라는 말의 원형을 묘각이라고도 추정하는데, 묘각은 불교에서 보살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쓰는 말이다. 거기에 구슬 주(珠)가 붙어 묘각주나무였다가 지금의 모감주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잎은 우상복엽으로 서로 어긋나게 자라는데, 작은 잎의 길이는 25~30cm로 암갈색이다. 가장자리에 불규칙하고 둔한 톱니가 있고 7~15장 달린다.

6~7월에 원추화서가 가지 끝에 곧게 나와 노란색 꽃이 핀다. 열매는 삭과로 3개의 파리 모양으로 갈라지고 검은 씨가 나온다.

분포 및
생육지

황해도와 강원도 이남 바닷가에서 자라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국외로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분포하고 있다.

효 용

꽃은 한방에서 '난화'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는데, 간염, 요도염, 장염 등이나 눈이 충혈되었을 때 효과가 좋다.

활 용

꿀을 만들어 먹기에도 좋다.

열매는 염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염료로도 사용하는데 잎은 청색, 꽃은 황색 염료로 사용된다.



염주를 만드는 데 쓰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모감주나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발견 일자 :
촬영 자 :

Impatiens textori var. *textori*

물봉선

울 밑에 선 봉선화
물가에 핀 물봉선

과명	봉선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독작용 및 강장 효과 그밖의 활용 : 관상용으로 활용 및 물감으로 사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물가에 피어난 봉선화

생김새가 봉선화와 많이 닮았다.

촉촉한 데나 물을 좋아하는 봉선화라 하여 물봉선이
라 부른다. 다른 이름으로는 물봉숭, 물봉숭아, 야봉
선 등이 있다.

나는 결백하다고!

봉숭아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다. 그리고
다른 꽃말로 ‘선부른 결론’도 있다. 모두 억울하게 의
심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전한다. 외간 남자와 내통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받은 여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결하자 그녀의 무덤에서 피어난 꽃이 물봉선이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한다. 신에게 대접할 황금 사과를
훔쳤다는 누명을 받고 쫓겨난 여인이 속앓이 하다 죽자
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실은 어느 심술궂은 신
이 황금 사과를 숨겨놓고 장난을 친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물봉선은 살짝만 건드려도 나는 결백해, 라고
외치듯이 씨방을 터트려 제 속을 뒤집어 보인다.

해설 지침

물을 좋아한다는 이름의 유래를 부각시
키며, 물감의 원료로 활용되는 점을 알
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40~80cm로 곧게 서고 마디가 튀어나온다. 잎은 서로 어긋나게 나는데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6~15cm, 너비 3~7cm이다. 잎 가장자리에는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8~9월에 피는 꽃은 붉은빛이 강한 자주색이며 가지 윗부분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잎의 지름은 3cm 정도. 밑 부분에 작은 포가 있다. 수술은 5개이고 꽃밥은 합쳐진다. 암술은 1개이다. 꿀주머니는 자주색 반점이 있고 끝이 안쪽으로 말린다. 열매는 삭과로 익으면 터지면서 종자가 튀어나온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의 습지에 나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만주, 우수리 등에 분포한다.

효 용

잎 · 줄기 · 뿌리는 약용으로도 사용된다. 썩은 부위를 치료하거나 해독작용이 뛰어나 악광, 피부 궤양, 타박상 부위에 잎과 줄기를 찢어 붙인다. 또 종기 치료나 뱀에게 물렸을 때 사용한다. 뿌리는 강장 효과와 멎든 피를 푸는 데 좋다.

활 용

주로 관상용으로 화단이나 정원에 심어서 기른다. 물감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물봉선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물봉선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달을 보는 꽃에 담긴
애잔한 전설

과명	바늘꽃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열, 소염 등



이야기로 알아보기

원래 우리 꽃 아니야?

달맞이꽃은 이름부터 친근해서 원래 우리 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달맞이꽃은 남미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다. 그러나 달밤에 은은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은 우리의 정서나 문화와 잘 어울린다.

이름처럼 달맞이 하는 꽃이니 밤에만 개화하는데 이 꽃을 제대로 보려면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찾아보아야 한다.

남미의 원주민들이 먼저 쓸모를 알았던 꽃

달맞이꽃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 남미의 원주민들은 이미 달맞이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꽃의 전초를 달여 피부염이나 종기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달여서 먹으면 기침이나 통증을 멎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지금도 아토피 치료에 사용된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및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귀화식물이다. 꽃에 얹힌 전설을 들려준다.

슬픈 전설이 많은 꽃

달맞이꽃은 세계 각지에 전설이 많다. 꽃말도 이름과 어울리게 기다림이다.

어느 인디언 마을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추장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 마을의 결혼 풍습은 축제 때 활을 잘 쏜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하는 것이었다. 처녀는 이때 받은 청혼을 거절할 수 없었다.

추장 아들은 경기에서 우승하였으나 연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선택했고, 그의 연인에게 다른 남자가 청혼을 했다. 슬픔에 빠진 여인은 청혼을 거부해 결국 깊은 산속으로 쫓겨났다.

나중에 잘못을 뉘우친 추장 아들이 그녀를 찾았지만 여인은 없고 그 자리엔 꽃만 한 송이 피어 달밤에만 꽃잎을 열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100cm이며, 굽고 곧은 뿌리에서 1개 또는 여러 대가 나와 곧게 자란다. 전 줄기에 잔털이 뻑뻑하게 자란다. 줄기잎은 길이 5~15cm, 폭 5~12cm에 넓은 선형 형태로 어긋난다. 잎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이 원줄기에 직접 달린다. 잎의 가장자리 부분에 얇은 톱니가 자란다.

개화 시기는 7월이며, 위쪽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저녁 때 황색으로 핀 후 아침에 시들며 약간 붉은 빛이 돈다. 꽃이 피면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지는데, 꽃잎 4개로 끝이 파지며, 수술 8개, 암술대 4개로 갈라진다. 삭과 4개로 갈라져 종자가 나와, 종자가 젖으면 점액이 생긴다.

분포 및 생육지

남미 칠레 원산의 2년초로 귀화식물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가, 물가, 묵밭 등에 자란다.

효 용

해열과 소염 효능을 가지고 있고, 피부염에는 생잎을 짓찧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가루로 빻아 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달맞이꽃의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달맞이꽃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Oenothera erythrosepala

큰달맞이꽃

달밤에 나방 유혹해
경쟁자 없이 번식

과명	바늘꽃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열, 소염 등



이야기로 알아보기

아낌없이 주는 꽃

북미 동부 지역이 원산지인 큰달맞이꽃은 미움 받지 않고 사랑받는 귀화식물 가운데 하나다. 아낌없이 주는 꽃이라고 할 만큼 쓸모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봄에 나오는 새순은 음식의 재료가 되고, 종자유는 약으로 쓰며, 나중에 말려서 차로도 먹는다. 그래서 큰달맞이꽃 재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해설 지침

달맞이꽃과 비교해 키가 더 크며 꽃도 더 크다는 점을 알려준다. 독특한 번식 방법을 설명해준다.

밤에만 피는데 어떻게 번식을 할까?

나비도 벌도 활동하지 않는 밤에 개화하는데 어떻게 번식을 하는 걸까? 방법은 나방을 이용하는 것이다. 큰달맞이꽃은 곤충을 유인하는 충매화인데 짙은 향과 더불어 달빛의 밝기로 박각시나방을 유인한다. 박각시나방은 몸통이 비늘로 덮여 있어 꽃가루가 잘 붙지 않지만 큰달맞이꽃의 꽃가루에 달린 가느다란 실 때문에 일단 나방의 몸에 묻게 되면 꽃가루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온다.

오히려 밤에 홀로 피는 만큼 여느 곤충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번식에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5m 이고, 뿌리잎은 도피침형으로 지면에서 방사상으로 퍼진다. 줄기잎은 어긋나며 타원상 피침형이며 가장자리에 얇은 톱니가 있다.

7월에 노란색 꽃이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린다. 꽃은 밤에 피었다가 아침에 진다. 꽃 밑에 녹색포가 2개 달려 있다. 꽃받침잎은 4개로 2개씩 붙어 있는데 꽃이 필 때 뒤로 젖혀진다. 꽃잎은 4개로서 끝이 파여 있다. 수술은 8개이고 암술대는 4개로 갈라지며 자방은 하위이다. 열매는 삭과로 털이 있으며 익은 후 4개로 갈라져 종자가 나온다. 달맞이꽃보다 키도 크고 꽃도 더 크다.

분포 및
생육지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식물로 우리나라 전역 각지에 퍼져 있는 두해살이풀이다. 주로 길가나 빈터, 밭둑 양지 등에 서식한다.

효 용

해열과 소염 효능을 가지고 있고, 피부염에는 생잎을 짓찧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가루로 뿜아 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큰달맞이꽃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큰달맞이꽃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Oenanthe javanica

미나리

임금에게도 진상했던
오랜 식용 역사를 가진 채소

과명	산형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소화장애 완화, 해독작용, 기력 회복 그밖의 활용 : 생선 비린내 제거,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임금님에게 올리는 진상품

미나리는 ‘미르(물)에서 자라는 나물’이라는 뜻으로 순우리말이다. 미나리는 오랜 옛날부터 섭취했는데, 식품으로 높은 가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조선시대 시집 『청구영언』에 ‘봄 미나리를 살찐 임금님께 드리고자’라는 미나리와 관련된 구절이 나온다. 임금에게 바칠 정도의 나물이라고 하니 대단한 식물이다.

해설 지침

임금에게도 진상한 귀한 식재료였던 점을 알려준다. 미나리밭을 왜 미나리광으로 부르게 되었는지 어원을 들려준다.

미나리밭은 왜 미나리광이 되었나?

미나리광은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있던 마을 이름이었다. 미나리광이라는 마을의 넓은 논에서 미나리를 대량으로 생산했다고 한다. 아직 미나리광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이 남아 있다.

여기서 광은 땅이 겹고 물이 많이 괴어 있는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나리 생식 환경과도 일치한다. 그 뒤로 미나리밭을 미나리광이나 미나리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며, 된소리로 발음이 억세지면서 미나리광, 미나리강으로도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나리광은 미나리밭을 의미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0~80cm로, 줄기는 옆으로 뻗어나가다 곧게 선다. 털이 없고 향기가 있다. 뿌리잎은 1~2번 갈라지는 깃꼴겹잎이고 잎자루는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진다.

6~8월에 흰색의 꽃이 줄기 끝 또는 잎과 마주난 꽃대에 겹산형꽃차례를 이룬다. 꽃싸개잎은 없거나 1~3장이고 일찍 떨어진다. 작은 꽃차례에는 꽃이 10~25개 달린다. 작은 꽃싸개잎은 5~15장이고 선형이다. 꽃잎은 5장이고 끝이 안으로 말리는데 수술은 5개이고 꽃잎보다 길다. 열매는 분과로 타원 모양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냇가와 습지에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효 용

설사·변비 등을 완화시키며,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해독용으로 폐렴, 간염, 고열성갈증, 복수, 전신부종 치료로 복용한다. 줄기와 잎은 식중독, 혈액순환, 간 해독에 좋으며, 피를 맑게 한다.

활 용

향긋한 풍미가 있어 나물로 먹으며, 생선 등의 비린내 제거에 좋다.

미나리의 해독 작용이 우수하여 복어의 독성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복어탕을 끓일 때 미나리를 넣는다.



미나리의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미나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Nymphoides peltata

노랑어리연꽃

하루만에 피고 지는
꽃 속의 소중한 시간

과명	용담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발한, 청열, 이뇨, 부종, 해독작용 그밖의 활용 : 어린잎을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작고 노오란 꽃, 참 쉽죠!

노랑어리연꽃은 이름에 식물의 특징들이 모두 담겨 있다. 노랑은 꽃의 색깔이며, 연꽃처럼 물이 고인 곳에서 잘 자란다. 이름에서 ‘어리’는 우리말로 작다, 어리다, 비슷하다는 뜻을 가진 접두어다.

노랑어리연꽃을 이름대로 풀이하면 노랗고 작은 꽃을 피우는 연꽃을 닮은 식물이다.

하루 동안만 피어요

오늘 보는 이 꽃은 어제도 피어 있던 꽃일까? 노랑어리연꽃은 7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데 하루 동안만 핀다. 아침에 꽃잎을 열어 낮 동안 활짝 피었다가 저녁이면 꽃잎을 닫고 저버린다.

무리 지어 피다 보니 그 꽃이 그 꽃 같아 지금 보는 꽃이 내일은 볼 수 없는 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꽃이기도 하다.

해설 지침

순수 우리말인 노랑어리연꽃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시간과 결부지어 꽃의 개화 의미를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잎은 지름 5~10cm 정도 크기에 계란 꼴 모양이다. 잎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 톱니가 나 있고 잎자루는 길다. 잎 겉면은 녹색, 뒷면은 자주색을 띤 갈색이다.

6~8월경 3~4cm 지름의 노란색 꽃이 핀다. 꽃자루는 3~12cm 정도이며, 꽃잎은 5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긴 털이 나 있다. 열매는 좁은 계란 꼴로 꽃받침보다 약간 길다. 씨앗은 계란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양으로 날개가 있으며, 지름은 3mm 정도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연못, 농수로, 논, 물웅덩이, 습지 등에 서식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효 용

잎과 줄기는 '행채'라 불리며 발한, 청열, 이뇨, 부종 등에 쓰인다. 짓쪼개 악성종기가 난 부위에 붙이며, 오줌이 붉거나 임질에 걸렸을 때 쓴다.

활 용

어린잎을 데쳐 나물로 먹는다.



노랑어리연꽃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노랑어리연꽃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Glechoma hederacea var. *longituba*

긴병꽃풀

은은한 향내 나며 염증도 완화
힐링하는 풀

과명	꿀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염증 그밖의 활용 : 나물 요리로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돈 주고도 못 구한다고 금전초

옛날에 사랑하던 남편이 담석증으로 죽자 부인은 남편 몸에서 나온 담석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그 담석으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단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약초인 듯한 풀을 함께 베어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담석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이 얘기를 들은 마을 의원이 그 후로 담석증을 치료하는 데 이 풀을 썼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 풀이 긴병꽃풀이다. 금전초라고도 불린다. 동전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열, 이뇨, 담석 치료 등에 효과가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해설 지침

해열, 진통, 이뇨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알려준다. 냄새를 맡게 해 향료 식물임을 확인시켜준다.

발밑에서 은은한 나무 향이 올라오면

긴병꽃풀은 향료 식물로도 알려져 있다.

잎을 건드리면 향나무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독특한 향내가 퍼진다. 우연히 숲길을 지나다 기분 좋은 향이 나면 발밑을 보라. 거기 긴병꽃풀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긴병꽃풀은 허브처럼 기름을 짜내어 비누나 향초, 방향제로 개발할 만큼 쓰임이 많은 우리 풀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25cm이고, 줄기는 처음에는 곧게 서서 자라다 꽃이 진 후에는 쓰러져 땅 위로 길게 뻗는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가장자리에는 약하게 발달한 톱니가 있다.

꽃은 4~5월에 피고 색은 자주색이다. 열매는 분과이고 6월에 익는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과 북쪽으로는 경기도 산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만주 시베리아에 분포한다.

효 용

비뇨기 계통의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등의 염증이나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확대된 전립선을 치료하며, 신장결석 · 요로결석 등에 사용된다.

활 용

식용으로는 어린줄기와 잎을 나물로 요리해 먹었다.



긴병꽃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긴병꽃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Leonurus japonicus

익모초

어머니께 바친다
식물계의 효자

과명	꿀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부인병, 더위와 갈증 해소



이야기로 알아보기

익모초는 어떻게 익모초가 되었나?

익모초(益母草)는 말 그대로 어머니(母)와 산모에게 유익(益)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부인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어 약재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그에 걸맞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는데, 엄마는 아이를 낳고부터 배가 아픈 병에 걸려 잘 낫지를 앓았다. 효심이 깊은 아들은 어머니가 배가 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도 약을 살 수 없어 가슴 아파했다. 약을 구하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에 산에서 풀을 뜯어다 달여 먹었는데 그 걸 먹고 어머니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그 풀이 어머니를 이롭게 한다는 뜻의 익모초가 된 것이다. 다른 이름은 임모초, 육모초 등이 있다.

해설 지침

어머니에게 이로운(부인병 치료) 풀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즙을 내어 마시면 여름철에 기운을 북돋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

한약만큼 쓴 맛 나는 약재

익모초를 오래 달여서 조청처럼 만든 것을 익모고(益母膏) 또는 환혼단(還魂丹)이라고 부른다. 환혼단이라고 하면 다 죽게 된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은 약을 의미하니, 익모초에 대한 약재로서의 신뢰도를 엿볼 수 있다.

한약만큼이나 입에 쓴 익모초는 이미 옛날부터 약재로 쓰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암눈비앗씨를 바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때 나오는 암눈비앗씨가 바로 익모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전체에 흰 털이 난다. 줄기는 곧추서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높이는 30~100cm이다. 뿌리잎은 넓은 난형에 5~7갈래로 갈라지고 긴 잎자루인데 개화 시 마른다. 줄기잎은 마주나며, 잎자루가 짧거나 없고 깃꼴이다.

연한 자주색의 꽃은 7~9월에 걸쳐 피며, 위쪽 잎겨드랑이에서 몇 개가 모여 달린다. 꽃싸개잎은 짧은 털에 가시 모양이다. 꽃받침은 끝이 5갈래로 갈라지며, 통모양으로 길에 긴 털이 난다. 화관은 입술 모양에 윗입술은 투구 모양, 아랫입술은 3갈래로 가운데 것이 가장 크다. 열매는 소견과, 넓은 난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국의 산지와 들에 흔하게 자라며, 동아시아 및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분포하며 두해살이풀이다.

효 용

익모초는 손발이 찬 여성에 좋다. 그리고 월경을 고르게 하고, 혈의 순환을 돕고, 산후의 배앓이를 낮게 한다. 그리고 더위를 먹거나, 월경통, 타박상,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익모초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익모초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Veronica arvensis

선개불알풀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벌게지는 풀

과명 현삼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름 부르기 민망해요

부르기 민망한 식물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 선개불알풀이다.

열매가 개의 음낭을 닮았다고 해서 개불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거기다 식물체가 위로 꼳꼳하게 서서 자란다고 선개불알풀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름이 일본명에서 온 것이라 한다. 일본명인 입견음낭(立犬陰囊)을 그대로 번역한 말이라는 것이다.

해설
지침

재미난 이름의 유래를 들려준다. 생김새로 지은 식물 이름을 열거해본다.

생김새로 이름 지은 재미있는 풀들

열매가 개의 음낭을 닮았다고 해서 선개불알풀인 것처럼 생김새를 따라 재미있게 지은 풀 이름들이 있다.

초롱꽃은 말 그대로 청사초롱을 닮았고, 가래는 말 그대로 가래떡을 비스듬히 썰어놓은 모양을 닮았고, 강아지풀은 강아지 꼬리를 닮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0~25cm로 옆으로 자라거나 비스듬히 서 있다. 잎은 밑부분에서는 마주 나는데, 윗부분에서는 서로 어긋나게 나고 길이와 폭이 각각 4~11mm이다. 모양은 난상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3~5월에 연한 붉은빛이 도는 흰색의 꽃이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1개씩 달려 있다. 지름 3~4mm, 화관은 4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남부지방 들이나 길가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아시아 온대 지역에 분포한다.



선개불알풀의 꽃과 열매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선개불알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통발

겉보기엔 귀엽지만
물속에서는 무서운 사냥꾼

과명	통발과
구분	자생식물, 희귀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소변 촉진작용, 염증 완화 그밖의 활용 : 관상용으로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물고기 잡는 통발처럼

통발은 주로 연못이나 도랑에 산다.

통발이라는 말은 원래 가느다란 뗏조각이나 싸리를 엮어 통처럼 만든 고기잡이 도구다. 일단 통발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는 거슬러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식충 식물인 통발도 실 모양의 줄기에 벌레잡이 주머니 즉, 포충낭을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주머니가 닫혀 있지만 작은 벌레가 지나거나 닿으면 순식간에 입구를 열어 벌레를 집어삼킨다.

해설 지침

소변 촉진작용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을 알려준다. 손을 오므려 포충낭처럼 주머니를 만들어 어떻게 벌레를 잡아먹는지 시연해준다.

누가 벌레를 가장 잘 잡는 식물일까?

대표적인 식충식물에는 끈끈이주걱과 파리지옥이 있다. 통발은 이 두 식충식물에 비하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셈이다.

끈끈이주걱은 앞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 벌레가 앉으면 앞을 말아 가둔 뒤에 소화액을 내보내 벌레를 녹인다. 파리지옥은 파리가 앞에 난 털에 닿는 순간 0.3초 만에 앞을 닫아버린다고 한다.

식충식물은 이렇게 벌레를 잡아 광합성으로는 부족한 질소, 인과 같은 다른 영양분을 섭취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뿌리가 없고 물 위에 떠서 자라며, 줄기의 길이는 30~100cm다. 잎은 서로 어긋나고 깃처럼 깊게 갈라지며 길이는 3~6cm다. 갈래조각은 가시처럼 가는 타원 모양으로 일부는 벌레잡이통이 된다.

8~9월에 피는 밝은 황색의 꽃은 물위로 올라와 꽃대 끝에 4~7개가 달린다. 꽃대의 길이는 10~20cm이고 꽃받침은 2장이다. 포의 모양은 비늘잎처럼 생겼다. 화관의 모양은 입술처럼 생겼고, 아랫입술꽃잎이 훨씬 크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연못이나 늪 주변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벌레잡이 식물로, 국외는 일본, 만주에 분포한다.

효 용

통발을 우려낸 물은 소변 촉진작용과 염증을 낮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활 용

관상용으로 쓰인다.



대표적인 식충식물들
시계 방향으로 통발,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통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재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재록일자:

내용:

발견 일자 :
촬영 자 :

Plantago asiatica

질경이

끈끈한 생명력 가진
질기디 질긴 풀

과명	질경이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이뇨, 해열, 간 해독 그밖의 활용 : 관상용, 식용, 기름



이야기로 알아보기

질경이는 얼마나 질기길래

풀이 잘 끊어지지 않아 질경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아무리 밟고 지나다녀도 모양만 흐트러질 뿐 멀쩡하게 살아나고,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을 만큼 질기디 질기다고 질경이다.

마차가 다니는 길에 바퀴자국이 남아 있는 곳마다 잘 자란다 하여 차전초(車前草), 차전(車前), 차과로초(車過路草), 차전자(車前子)라 부르기도 한다. 또 길에서 잘 자란다 하여 갈짱귀, 길장구 등이라 한다.

해설 지침

마차와 관련된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이름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설명해준다.

개구리 깨우는 질경이

질경이랑 잘 어울리는 동물은 개구리다. 질경이 잎사귀가 개구리 배의 모양과 같다고 배짜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구리가 기절했을 때, 질경이 잎을 배에 덮으면 벌떡 깨어나 도망간다 하여 배합조개, 뱀조개, 배부쟁이 등이라 부른다.

허걱, 귀신이 보여요!

질경이의 종자는 기름을 짜서 먹는다. 호롱불을 붙일 때 이 기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보인다는 미신도 있다. 아버지를 여읜 효자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시름 시름 앓자 꿈에 신령님이 나타났다. 질경이 씨로 짠 기름으로 불을 켜고 제사상을 차리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령님 말대로 하자 제사상에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아들이 기겁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여러해살이풀로 줄기가 없고 지하경에서 수염뿌리, 잎과 꽃이 모여난다. 넓은 난형의 잎은 길이 2~15cm, 폭 1~8cm이며 끝이 뾰족하다.

개화 시기는 5~9월이며 노란빛이 도는 흰색 꽃이 이삭꽃차례에 모여 핀다. 꽃차례는 길이 4~20cm, 꽃받침은 도란상 타원형의 4갈래이며, 길이 2mm 정도의 막질이다. 화관은 깔때기 모양이며 끝이 4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끝이 다소 뾰족하며, 흑갈색 종자가 6~8개 들어 있는 삭과이다.

분포 및
생육지

전국의 산과 들 양지바른 곳이나 길가에 자라며, 대만,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한다. 여러해살이풀이다.

효 용

씨앗과 풀 전체는 약용으로 쓰이며, 이뇨, 해열, 간 해독과 기운 돋움, 거담과 기침을 멈추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체내 신경을 자극하여 기관, 기관지 점액, 소화액 분비, 자궁 근육 등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처가 난 곳에 지혈작용, 벌에 쏘인 곳, 화상 부위 등에 잎을 문지르거나 짓찧어 바르면 좋다.

활 용

어린잎과 순은 나물, 장아찌 등으로 먹는다. 관상용으로도 쓰인다.



질경이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질경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재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재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ampanula punctata

초롱꽃

밤에 불이 켜질 것 같은
청사초롱 닮은 꽃

과명	초롱꽃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천식, 보익, 경풍, 한열, 폐보익, 편도선염 · 인후염 그밖의 활용 : 관상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초롱을 닮고 종을 닮고

초롱꽃은 꽃의 모양이 옛날 밤길에 불을 켜 들고 다녔던 초롱과 닮아서 생긴 이름이다.

초롱꽃의 속명인 캄파눌라(Campanula)도 점점이 있는 작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름에도 종꽃이라는 이름이 있다. 초롱이나 종이나 모두 비슷한 느낌을 준다. 다른 이름으로 풍령초(風鈴草)가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라는 의미의 운치 넘치는 이름이다.

해설 지침

꽃의 모양이 무엇을 연상시키는지 얘기해본다. 꽃의 모양과 얽힌 전설을 들려준다.

초롱꽃에 얽힌 전설과 신화

제우스 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황금 사과나무가 있었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 황금사과를 훔쳐가려 하자 나무를 지키던 소녀가 소리쳐 도둑을 쫓아냈다. 그런데 도망가던 도둑이 화가 나 다시 돌아오더니 소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그 바람에 소녀는 그만 죽고 말았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다 죽은 소녀를 위해 꽃의 신이 예쁜 꽃으로 환생시켰는데, 그게 바로 초롱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다.

또 다른 전설도 있다. 옛날 종치기 노인이 살았다. 하루 세 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노인의 종소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시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맘씨 고약한 원님이 종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 종치는 일을 그만두라 했다. 평생 종치는 일로 행복하게 살았던 노인은 마지막으로 종을 치던 날 종루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노인이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꼭 종을 닮았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30~100cm로 식물 전체에 거친 털이 있다. 뿌리 쪽에 나는 잎의 모양은 심장형이고, 길이 5~8cm, 폭 1.5~3.5cm로 잎자루가 길다. 줄기 쪽에 나는 잎은 잎자루가 아주 짧거나 없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5~7월에는 줄기와 가지 끝에 종 모양의 꽃이 핀다. 색은 흰색을 띠고 꽃의 길이는 4~5cm다. 꽃받침과 화관 수술은 5개이고, 꽃받침 갈래 사이에 뒤로 구부러진 부속체가 있다. 열매는 삭과이며, 난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과 들, 길가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약간 축축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에 분포한다.

효 용

어린순은 '산소채'라 부르며 식용으로 쓰인다. 약용으로 다른 약재와 함께 천식, 보익, 경풍, 한열, 폐보익, 편도선염, 인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활 용

꽃이 아름다워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며, 꽃과 뿌리의 향기가 뛰어나 방향성으로 키운다.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 묵나물 등으로 요리해 먹는다.



청사초롱을 닮은 초롱꽃의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초롱꽃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Xanthium strumarium

도꼬마리

아무에게나 붙는 열매
그 속에 담긴 기구한 이야기

과명	국화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진통, 산풍, 거습 등



이야기로 알아보기

착착 달라붙어요

도꼬마리의 어원은 돌고뭍이, 뒤흔마리다.
 도꼬마리의 잎은 거칠고 열매에는 갈고리 모양의 역센 가시가 붙어 있다. 열매가시가 마치 ‘뒤(도)로 꼬부라져’ 옷이나 몸에 달라붙어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아 ‘뒤흔마리(뒤흔꼬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해설 지침

도꼬마리 열매가 옷에 잘 달라붙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엄마 치마를 붙드는 아기처럼

도꼬마리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는데 엄마는 어린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남의 밭일을 나가야 했다. 엄마가 없는 집에서 배가 고파 울던 아기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길에서 숨지고 말았다. 엄마는 슬퍼하며 집과 밭 사이 오가는 길가에 아기를 묻었다. 밭일을 하러 가는 길에, 집에 돌아 오는 길에 아기의 무덤에 들러 하염없이 울곤 하였는데 어느 날 노란 꽃이 피다가 열매가 달리더니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는 치마에 묻어온 열매를 보며 아기 생각이 나 또 하염없이 울다 오래 못 살고 죽었다고 한다.
 가만 보면 도꼬마리의 이파리가 꼭 아기의 손바닥처럼 보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m에 이르고 검은 자주색 반점이 있다. 잎은 서로 어긋나게 자리하는데, 잎몸은 난형으로 3갈래로 갈라진다. 갈라진 조각의 끝에는 톱니가 있다.

8~10월에 꽃이 피고, 위쪽에 수꽃이 달리고, 아래쪽에 암꽃이 달린다. 암꽃의 총포는 타원형으로 2개의 부리 모양 돌기가 있고 갈고리 모양 가시가 드문드문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들판이나 산기슭 풀밭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전 세계 온대지역에 분포한다.

효 용

진통, 산풍, 거습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간지러움, 버짐 등에도 좋다.



도꼬마리의 열매와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도꼬마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rigeron annuus

개망초

나라 잃은 설움
잊지 말라고 피는 꽃

과명 국화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얼마나 보기 싫길래 개망초

나라가 망할 때 들어왔다고 망초로 불리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부정적인 낙양스의 ‘개’라는 접두어까지 붙었으니 귀화식물 중에 이렇게 미움 받는 식물도 드물 것이다.

방언으로는 왜풀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개망초가 일본에서 도입되어 귀화된 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꽃 모양으로 부르는 이름도 있다. 개망초 꽃의 생김새를 보면, 백색의 암꽃이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 꽃 모양은 계란 프라이를 연상시켜 일명 ‘계란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설 지침

꽃의 생김새를 계란프라이에 비유하며 알려준다. 이름의 유래를 역사와 연관지어 설명해준다.

꽃 이름이 나라 잃은 설움

개망초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고 일제가 자원 수탈과 병참기지의 목적으로 철도를 사방팔방으로 가설하던 무렵이었다.

그때 철도를 놓기 위한 침목이 미주 지역에서 들여온 것인데 개망초의 씨가 침목에 붙어 들어와 국내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물자를 수탈해 가는 기차 철도변에서 흔하게 보이자 나라 잃은 설움에 망국초라 불렀고 줄여서 그냥 망초라고도 불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30~100cm 안팎의 크기로 온몸에는 털이 있다.

긴 잎자루는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망초에 비해 잎이 넓으며 드문드문 나서 구별된다. 줄기에 달린 잎은 서로 어긋나게 자라고 밑부분의 잎은 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으로 털이 있다. 윗부분의 잎은 좁은 난형, 피침형으로 털이 있다.

흰색 또는 연한 자줏빛의 꽃이 핀다. 열매는 수과이다.

분포 및
생육지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종인 개망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들판이나 길가에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개망초의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개망초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rigeron canadensis

망초

철도 침묵에 묻어온 씨
일제 수탈의 생생한 증인

과명

국화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난 꽃

망초가 나타날 무렵에 나라가 망하여 망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이 식물에는 구한말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 하던 당시의 아픔이 담겨 있다. 일제가 철도를 놓으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고, 그 철도로 수탈한 곡식을 실어 나르면서 식민지 신세를 피부로 체감할 때 나타났던 꽃이라 더욱 미움을 샀다.

망국초라 불리었다가 망초라 이르게 되었다.

망초와 개망초는 달라요

망초와 개망초는 구별이 어렵지 않다. 개망초가 꽃이 더 화려하고 깨끗하다. 망초는 7~9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 개망초보다 줄기에서 갈라진 가지가 더 많다. 꽃도 지름 3mm 정도의 작은 흰색 꽃이 뭉치듯 많이 달린다. 개망초는 2cm 정도의 꽃이 우산형으로 달리는데 흰색도 있고 연한 자줏빛이 나는 것도 있다.

해설
지침

망초의 이름 유래를 들려주고, 망초와 개망초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150cm, 전체적으로 털이 많다. 뿌리잎은 주걱 모양으로 큰 톱니가 있다. 서로 어긋나게 자리 잡은 줄기잎은 선형으로 길이 7~10cm, 폭 0.8~1.5cm이다.

7~9월에 피는 꽃은 가지와 줄기 끝에 지름 5mm의 머리 모양의 흰색 꽃이 전체적으로 원추상으로 달려 핀다. 열매는 수과로 길이 2.5~3mm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들판이나 길가에 자라는 두해살이풀로 국외는 아메리카에 분포한다.



망초의 꽃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망초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etasites japonicus

머위

겨울에 강한
우리나라 토종 허브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기침, 가래, 폐결핵, 천식 등 그밖의 활용 : 나물로 식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내가 얼마나 강한지는 겨울에 알지

머위는 한여름 한낮에는 금방 시들기라도 할 것처럼 넓은 잎을 축 늘이고 있다. 그러다 햇볕이 약해지는 오후 무렵에야 이파리를 팽팽하게 들어올린다. 이렇게 물러 보이는 식물이 초봄, 눈이 채 다 녹기도 전에 잎보다 봉오리를 먼저 밀어올려 예쁜 꽃을 피운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눈 속에서 핀다고 겨울꽃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이름은 사두초, 야남과, 흑남과, 남과삼철, 머구, 머우, 명우 등이 있다.

해설 지침

추운 겨울에도 피는 풀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특유의 진한 향이 나는 점을 알려준다.

편두통 치료하는 토종 허브

머위는 약간 쓴맛이 나면서도 진한 특유의 향기가 있다. 그래서 토종 허브라고도 불린다.

옛날에는 머위를 이용해 편두통을 치료했다고도 한다. 허브와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다.

밭을 버리려면 머위를 심어라

겨울에도 피는 풀이니 생명력이 보통 강한 풀이 아니다. 그늘이 지든 땅이 척박하든 못 자랄 머위가 아니다. 알아서 잘 자라니 일단 심어두면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가만 두면 한두 해 만에 밭둑을 다 뒤덮을 정도가 되어 옛말에 밭을 망치려고 작정하면 머위를 심어 두면 된다고 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50cm로 곧게 자란다. 잎은 신장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꽃은 3~4월에 2줄로 배열되어 피고, 암꽃이삭은 꽃이 진 다음 핀다.

암꽃은 흰색이며, 끝이 입술 모양으로 얇게 갈라진다. 수꽃은 연한 흰색이며, 끝이 5갈래로 얇게 갈라진다. 열매는 수과로 원통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햇볕이 잘 드는 나지나 공터, 논밭 주변부, 민가 근처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분포한다.

효 용

타박상 상처나 종기에 잎을 찢어 붙이면 효과가 좋다.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에 걸렸을 때 잎과 줄기 삶은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한다. 뿌리는 약재로 사용한다. 특히 꽃은 기침, 가래, 폐결핵, 천식 등의 치료에 쓴다. 민간에서 목감기에 걸리면 머위즙을 이용해 양치질을 하면 낫는다고 한다.

활 용

머위는 대표적 봄나물이다. 잎자루와 어린순은 나물로, 잎은 양념무침이나 쌈으로, 잎줄기는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양념을 하거나 볶아 먹는다. 줄기는 탕이나 장아찌를 만든다.



머위의 잎과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머위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rtemisia selengensis

물쭈

남자 말고
여자에게 좋아요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독작용 및 간의 기능 향상 그밖의 활용 : 나물로 식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봄나물 요리로 딱!

흔히 쭈으로 나물 요리를 한다고 할 때 쓰는 쭈이 물쭈이다. 물기가 있는 곳에서만 자란다고 물쭈이라 부른다.

물쭈 나물은 조선시대 요리서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도 소개되어 있을 만큼 잘 알려진 봄나물이다.

이른 봄에 나는 물쭈를 뿌리째 뽑은 다음 줄기와 잎은 버린다. 잔털이 있는 겉껍질도 한 꺼풀 벗겨내고 끓는 물에 데친 다음 한 5cm 간격으로 먹기 좋게 썬다. 고추장과 식초로 매콤 새콤하게 무쳐 먹거나 참기름에 살짝 볶은 다음 무쳐 먹는다.

해설 지침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종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을 알려준다. 물쭈를 음식 재료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준다.

여성의 몸에 좋아요

쭈은 여러모로 여성의 건강을 돕는 데 적합한 식물이다. 신진대사를 도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쭈을 우린 물로 피부를 닦아주면 자극을 받아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입욕제로 사용하면 체온을 올라가게 해 손발이 차거나 냉이 있는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2m로 곧게 자라며 표면에는 세로로 주름이 나 있다. 색은 붉은색을 띤다. 잎은 자라면서 줄기에서 3~5갈래로 갈라져 선형 또는 피침형으로 된다. 모양은 끝이 뾰족하고 잎의 뒷 표면에는 흰색의 거미줄같은 털이 덮고 있다.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있다.

8~9월에 여러 개의 꽃이 다닥다닥 붙어 꽃이 달리는데 종 모양으로 털이 있다. 열매는 수과이고 타원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변이나 습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동시베리아, 몽골,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며 생약명은 유기노, 금기노라 한다.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통경, 수렴, 종기를 가라앉히는 등의 효능이 있어, 간염, 간경화증과 같은 간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폐경이나 산후 어혈을 풀어주는 기능을 가진다.

활 용

식용으로는 어린싹과 뿌리가 사용된다.
이른 봄철 나물, 묵 등으로 요리해 먹는다.



물썩의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물썩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쑥

쑥대밭을 만들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공존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통증 완화, 가려움증 완화 그밖의 활용 : 시음용 차로 활용, 식용으로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래서 쑥대밭이구나

쑥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우리 이름이다. 이른 봄 땅 속 뿌리에서 새순이 얼마나 힘차게 쑥쑥 돋아났으면 그런 이름이 생겼을까.

쑥의 놀라운 번식력은 쑥대밭이라는 말에서도 저절로 느껴진다. 밭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그 자리에 쑥이 손쓸 방도 없이 우거지는데 이렇게 쑥에 점령당한 밭을 쑥대밭이라 했다. 봄철에 일제히 돋아나는 생태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말일 텐데,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면 폐허가 되어 거의 남은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해설 지침

‘쑥대밭’, ‘쑥쑥’ 등 쑥과 관련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에 대해 알려준다. 독특한 향을 함께 알아본다.

아하, 곰이 그래서 쑥을 먹었구나

단군신화에서 곰이 백 일간 먹어야 했던 식물이 마늘과 더불어 쑥이었다. 쑥은 예로부터 액을 물리치는 영험이 있다고 여겨졌다.

단옷날에는 쑥으로 사람의 형상이나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어 집에 걸어두면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했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그 집의 나쁜 기운을 없앤다며 쑥을 태우기도 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60~120cm로 줄기에는 능선이 있고, 거미줄 같은 털이 뽁뽁이 난다.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싹이 무리지어 난다. 줄기에 달린 잎은 서로 어긋나고 헛턱잎이 있으며 모양은 타원형으로 길이 6~12cm, 너비 4~8cm이다. 잎은 깊게 갈라지며 갈래조각은 2~4쌍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잎이 작아지고 갈래조각 수도 줄어 단순한 잎으로 된다.

7~9월에 피는 담홍자색 꽃은 길이 2.5~3.5mm이고 두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리며 전체가 원추꽃차례로 된다. 열매는 수과로 털이 없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각지에 야생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과 만주에 분포한다.

효 용

한방에서는 쑥잎을 ‘애엽(艾葉)’이라 부른다. 잎을 말려 쑥차로 만들어 마시며, 효능은 암·위장병 예방, 변비·설사·생리통·저혈압의 치료에 쓴다. 쑥을 태운 연기를 직접 쫓거나 흡입하면 살균·혈액순환 등에 좋다. 또 쑥을 달인 물로 씻으면, 습진이나 피부 가려움증에 좋다. 잎은 쑥뜸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활 용

향이 독특하여 식용으로는 나물, 국, 떡 등을 만들어 먹으며 건강음료나 화장품 등에도 응용된다.



쑥의 줄기와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쑥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Bidens frondosa

미국가막사리

갈수록 까맣게 변해서
촉은함이 느껴지는 잡초

과명	국화과
구분	귀화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참 힘겹게 사는구나!

가막사리라는 이름에서 ‘가막’은 까맣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벼를 추수할 즈음 식물체 전체가 거무칙칙하게 변하는 데다 열매까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다 우리 말 ‘살이’가 붙어 가막살이가 되었다고 한다. 새까만 열매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사는 게 보기에 도 참 힘겨워 보이는 삶 같았던 모양이다. 미국가막사리는 미국에서 건너온 가막사리로, 재래종과 달리 더러운 도랑에서도 잘 살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설 지침

붉은 갈색을 띄며 한해살이 귀화식물로 잎이 서로 마주나며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이 있는 게 특징이다. 미국가막사리와 도꼬마리, 도깨비바늘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잘 붙는지 내기를 해본다.

누가누가 더 잘 붙나!

지금은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부지방에서만 드물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국가막사리도 열매에 도깨비바늘처럼 끝에 뿔죽하게 돌아난 가시가 있어 동물들에 붙어 퍼져나간다. 미국가막사리는 가시가 다른 종류에 비해 더 뾰족하고 사람 옷에도 더 잘 붙는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1.5m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사각형이다. 표면은 붉은 갈색을 띠고, 줄기 속은 흰색이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3~5장으로 갈라진 작은잎은 피침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9~10월에 피는 노란꽃은 가지와 줄기 끝에 머리모양꽃차례가 원추상을 이룬다. 열매는 수과이고 끝에 2개의 까락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중부이남 지역의 들에 자라는 한해살이 귀화식물로, 국외는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에 분포한다.



미국가막사리의 잎과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미국가막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Bidens bipinnata

도깨비바늘

생긴 것도 도깨비
하는 짓도 도깨비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염증 해소, 해독 그밖의 활용 : 나물로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엉금하게 몰래 붙어 다니네

노란 꽃이 수정을 마치면 끝이 뾰족하고 긴 씨앗이 자란다. 씨앗 끝에 날카롭고 작은 가시가 나 있어서 도깨비바늘이라고 부른다.

바늘은 생김새가 그러니 그럴듯한데 왜 하필 음흉스런 도깨비가 이름에 붙었을까? 도깨비바늘의 열매는 꽃이 피듯 사방으로 활짝 펼쳐져 있다가 동물이 스치고 지나가면 동물 털에 몰래 들러붙는다. 그래서 동물이 이동하는 만큼 씨를 퍼트리는데, 동물은 씨앗이 몸에 붙었는지도 모른 채 다닌다.

이렇게 몰래 붙어 다니는 이미지 때문에 도깨비가 연상된 듯하다. 한자어도 비슷하게 귀침초(鬼針草)다.

바늘도깨비와 도꼬마리의 번식 전략

식물은 본능적으로 최대한 멀리까지 자손을 퍼트리려고 한다. 봉숭아는 있는 힘껏 씨를 날려 점점 서식 반경을 넓히고, 민들레는 씨앗이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해 멀리까지 씨를 퍼트린다. 도깨비바늘은 동물의 몸에 씨를 묻혀 이 숲 저 숲으로 자손을 번식시킨다.

도깨비바늘과 비슷한 번식 기술을 가진 식물이 도꼬마리다. 도꼬마리는 시골 아이들이 서로 집어던져 상대방의 옷에 묻히며 노는 장난감이기도 했다.

해설
지침

씨앗이 옷가지에 잘 붙어 생긴 이름인 도깨비바늘의 유래를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5~85cm로 털이 있고 줄기는 네모진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장타원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잎의 크기는 작아지고 밑부분의 잎은 3회 깃꼴로 갈라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3.5~5cm로, 위로 갈수록 짧아진다.

8~9월에 노란 꽃이 피고 지름은 6~10mm이며 원추꽃차례를 이룬다. 가지 끝에서 머리모양꽃차례로 달리며 꽃대의 길이는 1.5~8.5cm다. 모인꽃싸개는 통 모양으로, 꽃싸개조각은 5~7개이다. 열매는 수과이고, 모양은 좁은 줄 모양으로 길이는 12~18mm, 폭은 1mm이다. 거꾸로 된 가시가 있어 다른 물체나 동물에 잘 붙는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분포한다.

효 용

꽃을 포함한 줄기와 잎을 약재로 쓰며 생약명은 귀침초, 귀황화, 귀골침, 고금황 등이다. 해열, 이뇨작용, 해독, 부종을 삭히는 소종 등의 효능이 있어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간염, 신장염, 장염, 맹장염, 당뇨병 등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타박상이나, 뱀·벌레에 물린 상처, 명의 환부에 생물을 짓뭉어 붙이거나 달인 물로 씻어내어 치료할 수 있다.

활 용

어린순을 나물로 해먹을 수 있다.



도개비바늘의 꽃(좌)과 열매(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도개비바늘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emistepta lyrata

지칭개

소독 효과 가진
길가의 상비약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지혈 그밖의 활용 : 관상용 및 식용으로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길에서 손쉽게 구하는 상비약

지칭개는 길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상비약이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져 상처라도 나면 일단 둘러보며 찾는 게 지칭개다. 길가나 들판에 흔하게 피는 잡초라 쉽게 구할 수 있다.

잎과 뿌리를 짓찧어 상처 난 부위에 바르면 지혈도 되고 소독도 된다. 이렇게 으깨어 바르는 풀이라고 해서 짓찧개였다가 지금의 지칭개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저것 닮아서 천덕꾸리기 신세

지칭개는 이것저것 닮아서 오히려 특색 없는 잡초로 취급받기도 한다. 이른 봄에는 잎이 나온 모양이 냉이와 닮아서 캐놓았다가 다 버리는 게 지칭개다.

그러나 냉이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칭개는 냉이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없고, 지칭개의 잎 뒷면은 털이 많다.

꽃은 엉겅퀴와 닮아 보이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지칭개의 꽃에는 엉겅퀴에 있는 가시가 없다.

해설 지침

지혈, 소종 등의 효능을 알려준다. 지칭개가 닮은 식물을 통해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 60~90cm의 줄기는 곧추선 형태에 가지가 갈라지고 거미줄 같은 흰 털이 있다. 뿌리잎은 일찍 마르고, 줄기잎은 도피침형 또는 타원형으로 어긋나며, 4~8쌍이 갈래가 있는 깃꼴이다. 잎 뒷면은 흰 솜털이 뽁뽁하게 난다.

개화 시기는 5~9월에 줄기나 가지 끝의 머리모양꽃차례에 피며, 붉은 보라색이나 분홍색이다. 꽃차례는 관모양꽃만 있으며, 화관은 길이 1.5cm 정도인데 5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우산털이 있고 수과이다.

분포 및 생육지

고도가 낮은 산지의 풀밭, 길가, 밭두렁 등 흔하게 자라며,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분포하는 두해살이풀이다.

효 용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며 생약명은 이호채, 야고마, 고마채, 나미채 등이 있다. 지혈, 소종 등의 효능이 있어 종기와 외상출혈의 환부에 생물을 짓찧어 바르면 낫는다. 그리고 소화불량, 위염, 치루 등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활 용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며, 겨울을 난 싹을 뿌리째 캐어 이른 봄에 나물로 해먹을 수 있다.
끓는 물에 데쳐 쓴맛을 제거한 뒤 나물로 먹는다.
또 국거리로 쓰기도 한다.



지칭개의 꽃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지칭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Taraxacum officinale

서양민들레

어린이에게까지
사랑받는 귀화식물

과명	국화과
구분	귀화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식용으로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민들레도 먹을 수 있어요

원산지인 유럽에서는 민들레 종류를 약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름의 속명 타락싸쿰(*Taraxacum*)은 복통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소명 오피씨날레(*officinale*)는 약으로 쓴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다. 어린잎은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으며, 일본에서는 민들레 뿌리를 채취하여 ‘민들레 커피’라는 음료로 즐겨 마셨다고 한다.

해설 지침

뿌리가 깊어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자라며 노란색의 꽃 머리가 피며 꽃이 지고 난 뒤 보풀처럼 열매가 달린다. 우리나라라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로 잘 알려져 있다.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의 구별법을 들려준다.

노란 민들레가 토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 민들레는 자생한 토종 민들레가 아니라 실은 귀화식물이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서양민들레라고 해야 한다. 흰민들레와 같은 토종 민들레는 도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서양민들레와 토종 민들레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꽃을 뒤집어 꽃받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서양민들레는 꽃받침이 아래로 젖혀져 있는 반면 토종 민들레는 위로 꽃을 받치고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뿌리는 굵고 땅속 깊이 들어간다. 타원형 또는 피침형의 잎은 모두 뿌리에서 자라며 길이 10~30cm, 폭 2~6cm, 깃꼴로 갈라진다.

개화시기는 3~5월이다. 노란색의 꽃은 머리모양꽃차례로 달리며 지름 5~10cm, 혀모양꽃으로만 이루어진다. 꽃줄기는 높이 5~10cm이며 꽃이 진 후에 더 자란다. 모인꽃싸개는 넓은 종 모양으로 길이 1.5~2cm이다. 모인꽃싸개조각은 3줄로 붙으며, 바깥쪽 조각은 꽃이 필 때 뒤로 젖혀진다.

분포 및
생육지

유럽 원산의 여러해살이풀로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전국의 들이나 길가에서 자라며, 우리나라의 민들레속 식물들에 비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활 용

봄에 어린 것을 뿌리까지 캐어 나물이나 국거리로 먹는다.



서양민들레(위)와 토종 민들레(아래)의 꽃받침 비교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서양민들레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Ixoris dentata

사진제공 © 아메랑

썸바귀

썹썹한 나물 맛으로
더위를 이긴다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폐렴, 간염, 소화불량, 골절, 타박상 등 그밖의 활용 : 식용으로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맛이 쓰다고 썸바귀

나물을 해서 먹으면 약간 쓴 맛이 난다고 해서 썸바귀다. ‘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맛이 쓰다는 의미다. 썸바귀의 다른 이름은 썸배나물, 썸바기, 쓴귀물, 꽃썸바귀, 흰썸바귀, 싸랑부리 등이 있다.

추운 겨울에도 혼자서만 팔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아 월동엽(越冬葉)이라 한다.

이렇게 겨울을 거뜰히 견디게 하는 힘은 땅속 50cm까지 깊게 내린 뿌리에 있다.

무더위 나게 도와준대요

이른 봄철에 썸바귀로 나물을 해먹으면 그 해 여름 무더위를 거뜰히 이겨낸다는 옛말이 있다. 말린 썸바귀를 톱툰이 물에 달여 마셔도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썸바귀가 가진 찬 성질 때문이다.

해설
지침

입맛이 없을 때 또는 더위에 지칠 때 기운을 북돋워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 20~50cm로 줄기는 위로 뻗어 자라고 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뿌리에 달린 잎은 도피침상의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밑이 좁아져서 잎자루로 조금 흐르지만 잎자루는 길어서 뚜렷하다. 줄기에 달린 잎은 2~3장 달리고, 모양은 피침형으로 밑이 컷불처럼 되어 줄기를 감싼다.

5~7월에 피는 꽃은 머리모양꽃차례로 몇 개가 모여서 피며, 색은 노란색이다. 머리모양꽃에는 꽃이 8~11개가 달린다. 열매는 수과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분포한다.

효 용

약용으로는 전초가 쓰인다. 폐 등의 열기를 식히며, 혈의 열을 식히고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얼굴과 눈동자가 누렇게 되었을 때 즙을 마시면 누런기를 없애준다. 또 중기를 낮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한다. 폐렴, 간염, 소화불량, 골절, 타박상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된다.

활 용

식용으로는 어린순과 뿌리가 쓰인다. 맛이 씹쓸하여 국, 나물, 겉절이, 물김치 등으로 먹으면 봄철에 잃어버린 미각을 찾게 해 식용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산나물이다.



쑥바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쑥바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왕고들빼기

수확 지난 텃 밭에
덤으로 자라는 기특한 풀

과명	국화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효용 : 갑상선 그밖의 활용 : 비료로 사용,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얼마나 크길래 왕일까?

고들빼기가 보통 50~60cm 자라는 데 비해 왕고들빼기는 약 2m까지 성장한다. 키가 아주 큰 고들빼기라는 의미로 왕고들빼기라고 부른다.

키도 크지만 꽃의 색깔로도 왕고들빼기는 쉽게 분간이 간다. 고들빼기의 꽃이 선명한 노란색이라면 왕고들빼기의 꽃은 백색에 가까운 연한 노란색이다.

해설 지침

갑상선에 효능이 있음을 알려준다. 키가 아주 큰 고들빼기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임을 설명한다. 식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줄기를 잘라 쓴 맛 나는 즙을 맛보게 한다.

농부들에게 사랑받는 보기 드문 풀

식용을 할 수 있는 풀이라도 논밭에 작물들과 함께 자라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키우는 작물의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차라리 없애버리고 마는 게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왕고들빼기는 농부에게 더없이 기특하고 착한 풀이다. 그동안 수고해 기른 작물을 다 수확하고 늦가을이 되어서야 횡한 밭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굳이 심거나 하지 않아도 묵정밭이든 제방이든 아무데서나 알아서 잘 자라니, 빈 밭에 덩으로 캐어 먹는 영양가 많은 풀이라고 농부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이며, 높이는 1~2m에 이르며 줄기는 곧게 선다. 뿌리잎은 꽃이 필 때 없어지며, 줄기잎은 어긋나고 피침형이나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잎은 원줄기에 밑부분이 직접 달리며, 가장자리가 결각상이거나 뒤로 젖혀진 우상, 열편에 결갑상의 톱니, 윗부분의 잎은 잔 톱니가 있는 선형이다.

꽃은 7~9월에 피고 원추화서는 길이 20~40cm로서 연한 황색의 두화가 달린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에도 분포한다. 아무곳에서나 잘 자라며 주로 산과 들에 서식한다.

효 용

갑상선에 좋다. 전초는 약용으로 건위·최면·진정·발한·이뇨·종창 등에 사용된다.

활 용

나물, 채소 등으로 먹는 고들빼기의 한 종류며, 어린잎과 어린순, 뿌리는 나물로 먹는다.



길게 곧게 자라는 왕고들빼기의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왕고들빼기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Typha orientalis

부들

보기에 운치 있고
쓰임새는 다양하고

과명	부들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혈을 다스리는 효과 있음 그밖의 활용 : 그릇, 비옷 등 여러 기구 재료로 활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만져보면 부드러워서 부들부들

잎과 꽃 이삭의 감촉이 억새와 달리 부드러워서 부들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꽃가루받이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난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들은 줄기 끝에 암꽃이 소시지 모양으로 달려 있는 게 특징인데, 동양식 정원을 꾸밀 때는 연못에 수련과 더불어 꼭 부들을 심었다고 한다.

생활용품 만들던 천연 재료

부들의 잎은 쓰임새가 많았다. 비올 때 입던 도롱이부터 돛자리, 거적, 물건이나 햇빛을 가리는 뜰, 부채, 짚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부들로 만든 돛자리는 부들자리, 포석(蒲席)이라 해서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부들로 만든 방석은 부들방석, 포단(蒲團)이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는 시에서 부들방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차를 맛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다.

해설 지침

촉각과 관련된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직접 만든 물건으로 쓰임새를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1.5m로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퍼지고 원주형이며 색은 흰색이다. 수염뿌리를 가지고 있고, 털이 없이 밋밋하다. 잎은 선형으로 털이 없고, 밑부분이 원줄기를 완전히 둘러싼다.

7월에 피는 꽃은 노란색으로 융화수는 윗부분에 달린다. 자화수는 바로 밑에 달리며 화수에 달린 포는 2~3개이고 일찍 떨어진다. 꽃에는 화피가 없이 밑부분에는 수염 같은 털이 있으며 수꽃에서는 화분이 서로 붙지 않는다. 암꽃은 소포가 없으며 자방에 대가 있다. 암술머리는 주걱 비슷한 피침형으로서 자방 밑에서 돋은 털과 길이가 비슷하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연못가와 얇은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유라시아 온대 및 아열대, 호주에 분포한다.

효 용

부들의 전초는 출혈을 멈추게 하여 토혈, 코피, 각혈, 외상 출혈 등을 치료한다. 그리고 혈을 잘 통하게 하거나 어혈을 제거하며, 월혈을 잘 나가게 한다.

또 위를 찌르는 듯한 복통 등의 치료에 좋다.

습진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활 용

줄기는 바구니나 그릇과 같은 여러 가내 기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잎은 공예품, 방석 등을 만든다. 또 꽃이삭과 잎은 꽃꽂이를 할 때 재료로 사용된다.



부들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부들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otamogeton distinctus

가래

물 위에다 가래떡을
떨어놓았나?

과명	가래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독작용 및 소화기능 장애



이야기로 알아보기

가래떡을 닮아서 가래일까?

가래떡은 맵쌀가루를 찌서 길고 둥글게 늘여 만든 떡이다. 가래가 이 가래떡을 비스듬하게 자른 단면을 닮았다. 그래서 가래라는 설은 있지만 정확한 유래라는 증거는 없다. 하여튼 잎이나 이삭꽃차례가 가래떡 모양과 비슷하긴 하다.

거머리가 앓는 방식

가래의 중국 한자명은 안자채(眼子菜)다. 잎이 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식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명은 약간 밋밋하다. 연못잡초(pondweed)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히루무시로(질석, 蛭蓴)이라 하는데, 거머리가 앓는 방식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가래가 많이 자라는 논이나 연못에는 거머리가 서식하고 있다.

해설 지침

가래의 모양을 가래떡에 비유하여 쉽게 인지시킨다. 물에서 건져내 줄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물속에서 자라는 지름 1~2mm의 뿌리줄기로부터 10~60cm의 가느다란 줄기가 자라난다. 물속에 잠기는 잎은 길이 2~5cm로 모양은 선형 또는 피침형이다. 길이 8cm, 폭 1cm이다. 물 위에 뜨는 잎은 길이 6.5~11cm로 모양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길이 4.5~6cm, 폭 2~2.5cm로 끝은 둥글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 앞면은 녹색으로 윤이 나며, 뒷면은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다. 꽃은 잎겨드랑이와 줄기 끝에서 나온 길이 6.5~7.5cm의 이삭꽃차례에 뽕뽕하게 달린다. 수술은 4개, 심피는 2~4개이다. 열매는 수과이고 넓은 난형으로 등 쪽에 좁은 날개가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논, 연못에 자라는 부엽성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식중독과 같은 소화기 계통 질환에 사용되며 해독작용이 뛰어나다. 생선, 육류로 인해 체했을 때 가래 삶은 물을 복용한다.



가래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가래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otamogeton cristatus

가는가래

가래 중에서도
가늘어서 가는가래

과명	가래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인후염, 만성감염 등 해독작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가는가래와 애기가래 구별법

가래 중에서도 모양새가 말 그대로 가늘다고 해서 가는가래다. 가래는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수심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온다고 한다. 가는가래는 그 중에서도 애기가래와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다. 언뜻 앞만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열매로 구별이 가능하다. 가는가래는 열매의 등 쪽에 닭 벼슬 모양의 돌기가 나 있지만 애기가래는 그런 돌기가 없다.

해설 지침

애기가래와 비교해가며 열매의 생김새를 설명해준다. 흔하게 떠다니는 잎이지만 해독, 소변촉진, 인후염, 만성간염 등에 효과가 있음을 알려준다.

물에 뜨는 잎과 물속 잎이 달라요

가래는 물이 느리게 흐르는 하천 가장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이다. 가는가래의 잎은 물에 뜨는 풀과 물에 잠겨서 자라는 풀이 다르다. 물에 떠서 자라는 잎은 물속의 잎보다 넓고 둥글며 색깔도 더 밝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물속에 잠기는 잎은 길이 2~4cm로, 모양은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3~7개의 잎이 달린다. 물 위에 뜨는 잎은 길이 5~12mm로 모양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꽃은 6~8월에 핀다. 꽃은 줄기 끝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데 길이 5~17mm의 이삭꽃차례에 달린다. 열매는 수과로 난형이고 길이 1.7mm, 폭 1.5mm이다. 열매의 등 쪽에 닭 벉슬 모양으로 돌기가 있고 길이 1~1.5mm이다.

분포 및
생육지

물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역에 분포하고, 국외는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인후염, 만성간염, 소변 촉진 등에 효과가 있으며 해독작용을 한다.



가는가래의 열매(좌)와 애기가래의 열매(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가는가래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otamogeton crispus

말즘

작은 물고기들이 숨는
물속의 은신처

과명	가래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비료로 사용, 나물로 식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절여놓은 나물 같다고요?

말즘의 한자명은 저초(菹草)다. 저(菹)는 채소절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식용을 했을까? 실제로 말린 말즘을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 등의 양념으로 버무려 김치처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말즘의 우거진 군락은 마치 나물을 절여놓은 듯한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주름진 가늘고 긴 수초

말즘은 순우리말인 ‘말’과 ‘즘’을 합성한 단어다. 말은 물속에서 사는 가늘고 긴 수초를 일컫는 우리말이다. 즈름은 절임, 젓갈의 젓, 주름 등의 단어와 동의어다. 말 주름(말절임)으로 부르던 것이 잘못 듣거나 잘못 전해져 내려와 전화된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말즘은 포식자를 피해 살아야 하는 작은 물고기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준다. 그래서 물고기를 쉽게 잡으려면 말즘이 우거진 곳을 뒤지면 된다고 한다. 숨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숨겨두는 곳이기도 하다. 배부른 물새는 잠이놓은 먹이를 말즘 속에 숨겨놓았다 나중에 찾아 먹는다.

해설
지침

과거 말즘을 이용해 김치처럼 요리해 먹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줄기는 납작하며 곧게 나가거나 갈라져서 난다. 잎은 서로 어긋나고 물결 모양 또는 잔 톱니 모양이 있고 길이는 30~60mm이다.

4~5월에 피는 연한 노란색의 꽃은 줄기 끝에서 이삭꽃차례로 달린다. 열매는 길이 2mm, 폭 1.7mm인 난형의 수과로 등쪽이 둥글고 끝에는 부리가 있다. 물 위에 뜨는 잎(부수엽)이 발달하지 않는다. 잎겨드랑이에서 나선형의 번식아가 만들어진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이나 저수지에 자라는 침수성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전 세계 온대지역에 분포한다.

활 용

줄기와 잎은 비료로 사용되며, 수질 정화 기능을 한다. 나물로 무쳐먹기도 한다.



말즘의 잎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말즘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Ottelia alismoides

물질경이

어여쁜 꽃보다

더 어여쁜 수질 정화 능력

과명	자라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소변 촉진, 설사병 치료, 중기 치료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름만 한끝 차이, 우린 서로 달라요!

물질경이는 질경이와 잎이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질경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가에서 자란다고 물질경이다. 이름은 한끝 차이에 불과하지만 둘은 서로 계통이 다른 식물이다. 물질경이는 자라풀과, 질경이는 질경이과다. 둘은 친척이 아니라 서로 남남이다.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기특하기까지 해

논이나 도랑, 습지, 물웅덩이에 사는 물질경이는 꽃이 예뻐 꽤 사랑받는 들풀이다.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꽃이 물에 반사되어 운치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질경이는 예쁜 꽃을 피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을 한다. 고여 있는 물속에 영양분이 쌓여 물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물속에 잠겨 있는 수많은 물질경이의 뿌리들이 과영양분을 흡수해준다. 습지를 건강하게 해주는 고마운 풀이다.

해설
지침

위, 기관지 천식, 기침, 소변 촉진 등의 효능을 알려준다. 수질 정화 능력을 설명해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5~9개의 맥이 있는데 길이 10~25cm, 폭 2~15cm의 넓은 난형 또는 난상 심장형이다. 가장자리에 주름과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다.

8~10월에 피는 꽃은 흰색 또는 붉은색이다. 10~30cm의 꽃줄기 끝에 1개씩 피며 지름은 2~4cm다. 꽃받침은 3장이고 길이 0.5~2cm의 긴 타원형 모양이다. 꽃잎은 3개이고 길이 1.5~3.0cm의 넓은 도란형이다. 수술은 6~15개이고, 암술대는 3개로 끝이 2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길이 3.5cm 장과 모양으로 씨가 많이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연못이나 논 등의 물속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수생식물로, 국외는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이집트에 분포한다.

효 용

꽃이삭은 위병약으로 쓰인다. 그리고 식물체는 기관지천식·기침 등에 좋으며 소변 촉진·설사병에도 효과가 있다. 끓는 물이나 불에 데인 상처·유방염·종기 등의 상처에 찢어 바르면 좋다.



물질경이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물질경미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개밀

더 이상 식용하지 않는
밀의 원조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염증 치료 및 전립선 치료



이야기로 알아보기

먹지 않으니 개밀이래요

강아지풀이 조와 많이 닮았다면 개밀은 밀을 많이 닮은 식물이다. 그런데 먹지 않는 밀이라 쓸모없다는 의미의 접두사인 ‘개’가 붙었다.

어쨌든 개밀은 밀의 원조였을 것이다. 개밀이 술하게 변이를 일으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알곡 맺은 지금의 밀이 되었을 테고, 기원전 1만5천 년경에 이르러 밀의 재배도 비로소 시작되었다.

해설
지침

개밀의 약효가 비뇨기 계통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거위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거위가 먹는 풀

개밀의 개가 ‘거위’라는 말이 전화된 것이라고도 한다. 밀은 보리를 뜻하는 한자 명칭이 붙어 있어 풀이하면 개밀은 ‘거위가 먹는 풀’이 된다. 옛날부터 거위가 개밀을 입에 물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른다. 거위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길렀다고 한다.

개밀은 밀처럼 식량으로 먹을 수 없다 뿐이지 쓰임새는 많다. 가축의 사료로도 쓰고, 과수원에서는 천연 방제제로도 쓸모가 있다. 방광염, 전립선염 같은 비뇨기 계통의 병에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40~100cm로 줄기는 여러 개가 모여 나고 4~6개의 마디가 있다. 잎은 길이 20~30cm, 너비 5~10mm로 길고 잎혀는 1mm 이내이고, 끝이 편평하다.

6~7월에 피는 꽃은 수상꽃차례로 피고 그 길이는 15~25cm로 옆으로 처진다. 잔이삭은 곧게 서거나 꽃대에 붙으며 5~10개 달린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저지대 길가나 초원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효 용

비뇨기 계통의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등의 염증이나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확대된 전립선을 치료하며, 신장결석·요로결석 등에 사용된다.



개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개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hragmites communis

갈대

호젓한 물가에서 흔들리며
가을의 운치 더해요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변열증으로 인한 코피 멎음 활용 : 그밖의 활용 : 갈대피리나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옛날 이름은 갈이랍니다

갈대는 원래 외자로 ‘갈’ 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나무(竹)를 의미하는 ‘대’가 붙어 합성어 갈대가 되었다고 한다. 즉 생김새가 대나무를 닮아 갈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갈대도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다. 새순을 뽑아 갈대 피리도 만들어 불었다.

이름의 우리말 유래도 있다. 흔히 낙엽이라고 하면 가을에 노랗거나 빨갛게 변한 잎을 뜻한다. 이런 낙엽을 부르는 우리말이 가랑잎, 갈잎이다. 갈대는 이런 갈잎을 겨울 지나 봄이 되도록 줄기에 달고 있다. 그래서 갈대라는 말을 ‘갈잎을 단 대’라고 풀어볼 수 있다. 또 가을에 꽃이 피는 줄기라는 뜻에서 갈대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한다.

해설
지침

갈대가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예를 들며 알려준다. 함께 갈대의 새순으로 갈대피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본다. 김소월 시인의 시 ‘엄마야 누나야’ 중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를 통해 갈대 생육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갈대와 억새는 이렇게 달라요

갈대는 억새와 닮은 점이 많다. 같은 시기에 꽃이 피고 지며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그러나 둘은 엄연히 다르다. 어떻게 쉽게 구분할까?

사는 곳이 달라서 산이나 비탈에서 발견되면 억새로, 물가에 무리 지어 있으면 갈대라고 보면 된다.

줄기를 잘라보면 갈대는 구멍이 뿔뿔이 뚫려 있는데, 억새는 구멍이 작다. 그래서 갈대로는 피리도 만들 수 있다. 갈대는 꽃이 회백색인데 억새는 백발처럼 하얗고, 꽃이 나는 모양도 달라서 갈대는 뭉쳐서 나지만 억새는 한쪽 방향으로만 난다. 그리고 갈대는 잎중심맥이 없지만 억새는 잎중심맥이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3m로 속은 비었고, 마디에는 털이 없거나 누운 털이 조금 난다. 뿌리줄기는 굵고, 땅속에서 길게 뻗어 자란다. 잎은 두 줄로 어긋나 자라며, 긴 피침형으로 길이 20~50cm, 폭 2~4cm이다. 끝이 밑으로 처지고, 밑이 엽초로 되어 줄기를 감싸며 자란다. 잎혀 위에 짧은 털이 나란히 달리며, 가장자리에는 긴 털이 달린다.

9~10월에 피는 꽃은 이삭꽃차례가 모여서 원추꽃차례를 이루어 달린다. 꽃의 색은 붉은색에서 붉은 갈색으로 변한다. 전체 꽃차례의 길이는 15~40cm로 끝이 처진다. 작은이삭은 길이 12~17mm이고, 꽃은 2~4개 피는데 첫째 작은꽃은 수꽃으로 길이 10~15mm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습지나 냇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에 분포한다.

효 용

갈대의 뿌리를 삶아 마시면 변열증으로 인한 코피가 멎는다고 한다.

활 용

갈대 이삭을 소금물에 넣고 삶아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했다. 갈대 잎으로는 삿갓을 만들거나 밭, 깔개, 초가지붕의 재료로 사용했다.



갈대(좌)와 억새(우)의 생김새 비교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갈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달뿌리풀

억새, 갈대는 알아도
나는 잘 모른다고요?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이뇨작용, 해열작용 그밖의 활용 : 가축의 먹이, 빗자루 제작



이야기로 알아보기

갈대도 아닌 것이, 억새도 아닌 것이!

달뿌리풀은 갈대나 억새와 비슷하게 닮은 데다 갈대와 억새가 사는 곳에 모두 서식한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갈대랑 사촌지간, 억새랑 이종사촌 정도 될 것이다. 억새보다는 갈대와 더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씨방의 색깔이 더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대의 씨방 줄기가 사방에서 모아나는 것에 반해 달뿌리풀은 돌려나기로 난다. 갈대의 꽃 이삭이 풍성한 것에 비해 달뿌리풀의 꽃 이삭은 길고 엉성해 보인다. 줄기도 더 연약한 편이다. 그리고 달뿌리풀은 뿌리줄기가 발달한 게 큰 특징이다.

해설 지침

갈대의 전통 활용법을 함께 언급하며 쓰임새가 비슷함을 알려준다. 갈대와 억새, 달뿌리풀의 구분법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준다.

세 가지 풀 형제 이야기

옛날 산허리에 서로 닮은 풀 세 가지가 형제처럼 함께 자랐다. 하루는 가장 키가 큰 풀이 산 밑의 넓은 강을 구경하겠다며 떠났다가 강변에 자리를 잡고 돌아오지 않았다. 두 동생은 큰 형이 갈 때는 곧 돌아오겠다더니 지금껏 안 온다며, 갈 때는 온다더니, 갈대, 갈대 원망하며 불렀다고 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키 큰 풀이 갈대를 찾아 떠났다가 물에 빠졌는데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바닥을 짚으려 하였다. 그러고 한참을 있으니 다리에서 뿌리가 나와 달뿌리풀이 되었다.

두 형제가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형제들을 억세게 기다린 풀이 억새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5~3m로 곧게 서서 자라며, 기는 줄기는 마디에서 뿌리를 내면서 땅 위로 뻗어 자란다. 줄기 속은 비었으며 줄기 아래쪽 마디에 퍼진 털이 뽁뽁이 있다. 잎은 서로 어긋나 달려 있고, 길이는 10~30cm, 폭은 2~3cm이며 끝이 뾰족한 피침형이다. 잎집은 잎몸보다 짧고, 위쪽이 붉은 자주색을 띤다. 꽃은 8~9월에 피고 전체 길이 25~35cm의 원추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작은이삭의 길이는 8~12mm로 3~4개의 작은 꽃이 들어 있다. 첫 번째 낱꽃은 수꽃으로 아래쪽에 털이 없고, 나머지 꽃들은 양성화로 아래쪽에 긴 털이 많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냇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타이완,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효 용

뿌리줄기는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과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작용을 한다.

활 용

어린순은 가축의 먹이로, 말린 줄기는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한다. 주로 갈대의 쓰임새와 같다.



달뿌리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달뿌리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ragrostis ferruginea

그령

여우의 발목을
뺨아채는 풀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수크령은 그령의 남자 친구?

수크령은 숯그령이 변해서 된 말인데, 이때 숯은 수컷의 의미와 같다. 그럼 암크령도 있을까? 암크령은 그냥 그령이라고 부른다. 생김새를 봐도 수크령은 남성적이며 곧게 솟아 있는 반면 그령은 작고 부드러워 여성적이다.

해설 지침

뺨아채다는 의미를 부각시켜 이름 유래를 설명한다. 그령에 대응하는 수크령도 있다는 걸 알려준다.

여우를 뺨아채냐?

그령은 순우리말이다. ‘그르영’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어원을 나눠보면 그르(글)+영.

‘그르(글)’는 무언가를 단단히 동여매 때 사용하는 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은 여우를 뜻하는 고어일 수도 있고, 이영(짚 등으로 엮은 물건)의 준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원으로 풀이하면 ‘여우의 발목을 뺨아채는 풀’ 또는 ‘동여매는 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르영은 1820년대 유희가 쓴 물명(物名) 어휘사전인 『물명고』에 녹초(勒草)를 번역한 말로도 나온다. 녹초를 풀이하면 ‘동물을 잡아챌 때 이용하는 풀’이다(한자 녹(勒)은 ‘굴레’, ‘재갈’ 등을 뜻하며 ‘묶다’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령밭에서 그령을 곳곳에 동여매 두고 그쪽으로 동물들을 쫓아 걸려 넘어지게 하여 사냥을 하는 데서 그령게 불린 게 아닌가 추측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잎의 아래쪽과 잎집 윗부분에 긴 털이 있다. 잎혀는 털 모양이다.

꽃은 8~10월에 피고 전체 꽃차례는 줄기 마디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와 다시 갈라진다. 작은이삭의 자루 중간에는 노란색 샘조각이 있으며 5~10개의 꽃이 달린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길가와 빈터, 산지 주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은 물론 네팔에도 분포한다.



그령의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그령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leusine indica

왕바랭이

연약해 보인다고 알보면
허리 다치기 십상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열, 이뇨작용, 경풍, 더위 먹음 그밖의 활용 : 가축의 먹이



이야기로 알아보기

왕바랭이랑 싸우면 허리 다쳐요

왕바랭이의 잎과 줄기는 아주 억세고 강하다. 사람들이 아무리 밟아대도 생육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 왕바랭이를 우습게 보고 무리해서 맨손으로 뽑으려다가는 허리를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설
지침

잎과 줄기가 억세고 강한 점을 부각한다. 우산을 만들어 놀이를 해본다.

왕바랭이는 어떻게 왕바랭이가 되었나?

왕바랭이라고도 부르며, 왕바랭이라는 한글명은 바랭이와 비교했을 때 잎과 줄기가 크고 질기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왕바랭이는 우산풀로도 불렸다. 이삭줄기를 아래로 한데 모아 묶은 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우산이 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줄기는 여러 개가 비스듬히 서며, 높이는 15~60cm, 2~3개 마디가 있다. 잎집은 납작하고 입구에 긴 털이 있다. 잎몸은 길이 5~40cm, 너비 3~7mm이며, 잎혀는 길이 1mm 정도이다.

전체 꽃차례는 줄기 끝에 3~10개 가지가 우산 또는 손바닥 모양으로 달리고, 작은 이삭은 가지 한쪽에 2줄로 조밀하게 달리는데, 꽃이 3~9개 들어 있다. 개화 시기는 8~9월이며, 작은 이삭에 다수의 꽃이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국의 경작지 주변과 빈터에 무리를 짓거나 흩어져 자라는데 일본, 중국 및 구대륙의 온대, 열대지역에 분포하며, 한해살이풀이다.

효 용

꽃과 열매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쓴다. 해열과 이뇨작용이 있으며, 간염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더위를 먹은 증세를 다스릴 수 있다. 또 어린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병인 경풍을 치료할 수 있다.

활 용

가축의 먹이로 이용되며, 콩과류와 섞어 먹이기도 한다.



왕바랭이의 잎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왕바랭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ennisetum alopecuroides

수크령

결초보은
고사성어의 주인공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충혈된 눈, 통증 완화 그밖의 활용 : 섬유, 줄기를 뿔처럼 만들어 놀이에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암그령과 수크령

암그령은 그냥 그령이라 부르고 이에 짝이 되는 또 다른 그령을 수크령이라고 부른다. 암그령에 비해 역세고 질긴 식물체 모양에서 수컷 그령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수크령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길갱이라고 했는데, 길가에 피어난 질기고 힘이 센 풀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착근이 잘 되어 있어 쉽게 뽑히지 않는다.

해설 지침

역세고 질긴 특성에 따라 이름이 유래된 점을 알려준다. 고사성어를 통해 보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은혜 갚은 잡초

옛날에는 수크령 줄기를 묶어 뿔처럼 만든 뒤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중국 고사에도 수크령 이야기가 나온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군주가 죽기 전에 아들 위과에게 자신의 애첩을 함께 묻으라 유언한다. 그러나 위과는 아버지가 그 전엔 애첩을 재가시키라 했다면 여인을 살려 보낸다.

세월이 흘러 위과가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 적국의 장수를 쫓다가 자칫 놓칠 뻔하였으나 무덤 위의 풀이 저절로 올라가미처럼 묶이더니 적장이 탄 말을 걸어 넘어뜨려 잡을 수 있었다. 큰 전과를 올린 위과는 그날 밤 꿈속에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위과가 예전에 살려준 여인의 아버지라며 오늘 풀을 묶어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 유명한 결초보은(結草報恩)의 고사성어다. 여기에 나온 풀이 바로 수크령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30~80cm이고, 뿌리줄기에서 억센 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줄기의 윗부분 끝에 중축과 더불어 하얀색 털이 난다. 잎의 모양은 편평하고 길며 표면에는 털이 많이 있다.

꽃은 8~9월에 피는데, 원기둥 모양이고 검은 자주색이다. 작은 가지에 1개의 양성화와 수꽃이 달린다. 수술은 3개이다. 소수의 대는 길이 1mm로 중축과 더불어 털이 뺄뺄이 난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양지바른 풀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잎과 줄기는 눈을 밝게 만들고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충혈된 눈이나 통증을 완화시킨다.

활 용

줄기를 말려 섬유로 사용한다.



수크령의 꽃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나?

우리 마을 수크령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강아지가 꼬리를 사랑살랑
아이도 다 아는 풀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구황식물로 이용, 놀이에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오곡 가운데 하나인 조(粟)의 원조

강아지풀을 가만 보면 닮은 작물이 하나 있다. 바로 조(粟)다. 그래서 강아지풀을 오곡 작물 가운데 하나인 조의 원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조의 야생종이 강아지풀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도 한 게 강아지풀도 옛날에는 식용으로 사용했던 구황식물이었다. 기근이 들면 풀씨를 받아 죽을 끓여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고 한다.

강아지풀이 조와 관련된 기원은 또 있다. 강아지풀의 우리말 기원은 ‘가라지(가랏)’이다. 그런데 아동용 한자 학습서였던 『훈몽자회』를 보면 이 가라지가 야생에서 자라는 조(粟)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해설 지침

강아지풀이 바람에 나부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손으로 살짝 움켜쥐어 오므렸다 폈다 하며 재미있게 움직이는 놀이를 해본다.

그래서 강아지풀이구나

강아지풀의 순우리말인 ‘가라지’는 무엇에서 유래했을까? 꼬랑지, 꼬리 등과 함께 분화되어 온 단어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강아지풀은 개 꼬리 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굳이 이런 어원의 추적이 아니더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강아지가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는 모습이 연상된다. 처음 강아지풀을 보는 아이에게 이름을 알려주면 곧바로 수궁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20~70cm로 곧고 가늘게 뻗어나며, 밑으로부터 가지가 갈라져 난다.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색은 녹색 또는 자줏빛을 띤다. 잎은 가장자리에 털이 있고 마디가 다소 길다. 잎의 밑 부분이 잎집으로, 잎집의 가장자리에 잎혀와 함께 줄로 뚫은 털이 있다.

7~8월에 피는 꽃은 연한 녹색 또는 자주색을 띤다. 중축에 퍼진 털이 있으며 곧게 서거나 처진다. 열매는 8~9월에 익고 모양은 길고 둥글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벌판이나 들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에는 전 세계의 온대와 열대지역에 분포한다.

활 용

메뚜기를 잡아 강아지풀 줄기에 꿰어오기도 하며, 어린아이들은 강아지풀 줄기로 수염놀이를 하거나 엮어서 장난감을 만들어 놀기도 했다. 구황식물로 이용되기도 했다.



강아지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강아지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Setaria glauca

금강아지풀

밀 대신

한때는 곡식 구실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구황식물로 이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황금빛으로 물들었네

강아지풀의 이삭은 녹색이지만 금강아지풀의 이삭은 금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색이 익어갈수록 금강아지풀의 이삭은 점점 황금색으로 물든다. 그래서 이름에도 ‘금’이 들어간다.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천변가 모래나 자갈 땅에서 자라는 건 대부분 금강아지풀이다. 그만큼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자라서인지 금강아지풀의 금빛 까락에는 강아지풀에 없는 우아함이 스며 있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옛 보릿고개 시절 금강아지풀이 구황식물로 사용되었음을 부각한다. 유럽에서도 밀 대신 금강아지풀을 섭취했음을 알려준다.

밀 대신 금강아지풀

옛날에는 구황식물로 한몫했다. 흉년이 들어 곡식 수확량이 줄었을 때는 금강아지풀도 요긴해서 쌀이나 보리에 이삭을 섞어 밥을 짓거나 죽을 끓여 먹었다.

금강아지풀의 곡립은 단백질, 지방, 철분의 함량이 높아 유럽에서는 밀 대신 금강아지풀을 섭취하기도 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40~100cm로 줄기는 여러 개가 모여 나고 4~6개의 마디가 있다. 잎은 길이 20~30cm, 너비 5~10mm로 길고 잎혀는 1mm 이내인데, 끝이 편평하다.

6~7월에 피는 꽃은 수상꽃차례로 피고 그 길이는 15~25cm로 옆으로 처진다. 잔이삭은 곧게 서거나 꽃대에 붙으며 5~10개 달린다.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다 1.5~3cm의 곧은 까락으로 된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저지대 길가나 초원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활 용

과거 흉년을 맞았을 때, 금강아지풀과 강아지풀을 식량으로 삼았다고 한다. 조와 같은 방식으로 수확, 도정을 거친다. 쌀과 보리로 밥을 짓거나 죽을 끓일 때 함께 넣어 요리했다.



금강아지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금강아지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Digitaria ciliaris

바랭이

방심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풀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눈을 맑게 함



이야기로 알아보기

연약해보여도 뿌리는 깊어

우리말로는 바랭이라고 부르던 것이 바랭이가 되었는데, 이때 ‘바-’는 ‘밭’, ‘밭’, ‘바닥’ 등으로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속명인 디지타리아(Digitaria)는 손가락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생긴 모양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쳐요

바랭이는 밭에 많이 생기는 잡초다. 어릴 때는 약해서 한 번 호미질로도 없앨 수 있지만 잠깐만 소홀해도 쑥쑥 자라는 데다 마디가 늘어나면서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 퇴치하는 데 몇 배 더 수고를 들여야 한다. 잘 뽑히지도 않지만 장애물도 타고 오르며 자라다 보니 초기에 못 잡으면 정말 애를 먹는다. 연약해 보인다고 방심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잡초다.

해설
지침

바랭이의 어원을 들려준다. 빠른 성장 생태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40~70cm로, 줄기는 옆으로 기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고 가지가 갈라진다. 잎몸의 길이는 5~15cm이고, 너비는 5~10mm이다. 잎혀는 막질이고, 길이는 1~3mm로 끝은 둔하다.

꽃은 7~10월에 피고, 전체 꽃차례는 3~8개의 가지가 끝에 모여 달리며, 작은이삭이 가지에 둘러난다. 작은이삭이 달리는 축은 납작하고 날개가 있으며, 가장자리는 거칠다. 작은이삭의 길이는 2.5~3.5mm로 꽃이 두 개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길가와 경작지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온대와 아열대지역에 분포한다.

효 용

뿌리 윗부분의 지상부를 달여 마시면 눈이 맑아진다. 소화력도 증진시킨다.



바랭이의 줄기와 작은이삭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바랭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피죽도 먹기 어려웠던
시절의 바로 그 식물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밥 · 약식, 사료, 염료



이야기로 알아보기

나도 한때는 곡식이었다고!

옛날엔 물골이 초췌한 사람에게 흔히 피죽도 못 먹고 다니냐는 말을 썼다. 여기서 말하는 피죽의 피가 돌피다. 지금은 잡초로 여기지만, 조선 후기에 나온 실용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에 보면 밥이나 죽으로 먹을 수 있는 엄연한 곡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 식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먹지 못한다는 의미의 ‘돌’이 붙어 ‘돌피’로 불리게 되었다.

나도 물들이는 데 선수라고!

돌피는 식용으로도 쓰였지만, 천연 염료로도 사용되었다. 전초를 잘게 잘라 물에 넣고 끓이면 염료를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색이 옅게 나오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염색하면 짙은 색을 얻을 수 있다. 돌피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천연 염료였다.

해설
지침

과거 발피로 불리며, 식용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80cm이고, 5~6개의 마디가 있으며 줄기 아래에서 가지가 많이 나온다. 잎몸은 길이 15~35cm이고, 너비 10~15mm이다. 잎집은 털이 거의 없고, 잎혀는 없다.

꽃은 8~10월에 피고 차례는 5~15개의 가지가 줄기를 따라 달리며, 길이 6~20cm이다. 작은이삭은 난형으로 길이 3~4mm이고 꽃이 2개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경작지, 저수지 주변 공터의 습한 곳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구대륙의 온대, 아열대지역에 분포한다.

활 용

종자로 밥이나 약식으로 찌서 요리해 먹었다. 줄기와 잎은 소나 거위의 사료로 먹었다.



돌피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돌피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chinochloa crusgalli var. *frumentacea*

물피

벼보다 빨리 자라는
농부들의 골치덩어리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그밖의 활용 : 비료로 사용 및 수질 정화



이야기로 알아보기

농부들의 영원한 천적!

물피는 논피라고도 부른다. 농부들이 보통 ‘피 뽑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물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피는 벼가 자라나는 속도보다 빨라 벼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부지런한 농부들의 눈에 띈 물피는 금세 뽑혀 논 밖으로 버려지고 만다.

돌피와 물피, 어떻게 다른가요?

돌피와 물피는 비슷하게 닮았는데, 가장 간단한 구분법은 이삭에 까락이 길게 나 있는지 보면 안다. 까락이 길게 나 있는 게 물피다. 논에서 보는 피는 주로 물피라고 보면 된다.

해설 지침

농부가 말하는 ‘피 뽑는다’의 의미를 알려준다. 물피와 돌피의 구분법을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100cm로 줄기 아래에서 가지가 많이 나오고 5~6개의 마디가 있다. 잎몸의 길이는 15~35cm이고, 너비는 10~15mm이다. 잎집의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다.

8~10월에 피는 꽃은 5~15개의 꽃차례가 가지가 줄기를 따라 달리며, 길이는 6~20cm이다. 작은이삭은 난형으로 길이는 3~4mm이고, 꽃이 2개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논이나 경작지의 습한 곳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구대륙의 온대 및 아열대지역에 분포한다.

효 용

어린 줄기나 뿌리는 상처가 난 부위에 피멍이 약으로 쓰인다. 씨앗은 권태감을 느끼거나 식욕이 없을 때 약으로 쓰인다.



물피의 잎과 작은이삭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물피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억새

바람 불 때마다
억새밭은 가을 노래

과명	화본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해열, 기침, 해독 그밖의 활용 : 가축의 사료, 생활도구(도롱이, 맷방석 등)



이야기로 알아보기

쓰임새 많고, 보기도 좋고

가을 장관에는 억새밭만 한 게 없다. 울긋불긋한 가을의 자연 풍광에 운치를 더해주는 것은 백색의 너른 억새밭이다.

이렇게 보기에 좋은 억새는 쓰임새도 많다. 옛날에 돼지우리나 마구간의 지붕은 억새를 베어다 엮어 올렸다. 작두로 썰어 가축 여물로 쓰기도 그만이었다. 비울 때 쓰는 도롱이도 억새로 만들었다.

해설 지침

지붕, 도롱이, 맷방석, 연료, 칼 대용 등 옛 생활에서 활용된 억새의 쓰임을 알려준다. 억새 잎을 잘못 만지면 손을 벨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민둥산 억새밭에 얹힌 전설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말이 주인을 찾느라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울어댔다.

그 말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용마인데,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날 신의 아들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신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날개를 발견한 부모가 산에 버리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말은 주인을 찾아 보름이나 온 산을 뒤지고 다니며 울다 지쳐 결국 산에서 죽었다. 그 뒤로 말이 발굽을 차며 뒤지고 다닌 산에 나무가 자라지 않고 억새풀만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2m로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어 모여 나고 굵다. 잎의 모양은 선형이지만 끝이 갈수록 뾰족해지고 가장자리가 날카롭다. 길이 20~60cm, 폭 0.6~2cm로 아래쪽에서 줄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잎의 색은 녹색이지만, 가운데 잎줄은 흰색이다.

9~10월에 피는 꽃은 이삭꽃차례가 산방꽃차례처럼 달리며, 노란빛이 도는 흰색이다. 전체 꽃차례는 길이 20~30cm이며 까락이 달린다. 이삭꽃차례 가지는 10~25개가 달리고 길이는 15~30cm이다. 작은이삭은 대가 없는 것과 있는 것 1쌍이 마디마다 달린다. 길이 5~7mm이고 아래쪽에는 길이 7~12mm의 털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산이나 평지의 풀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대만, 중국 동북 지방, 러시아 극동 지방에 분포한다.

효 용

줄기는 해열, 침상에 물렸을 때 독을 치료한다. 뿌리는 기침, 오줌내기 등에 효과가 있다.

활 용

관상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제주도에서는 벚꽃 대신 역새로 지붕을 이기도 했으며, 가축의 사료로 쓰였다.

뿌리는 마포나 모시를 뿔 때 사용하며, 줄기는 도롱이나 땃방석 재료로 이용한다. 또 말린 줄기는 연료로 사용된다. 역새 잎 가장자리는 뾰족한 가시가 있어 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역새 삶은 물은 봄엔 연두색 염료로, 가을엔 황색 염료로 이용된다.



왼쪽부터 달뿌리풀 잎, 역새 잎, 갈대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역새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leocharis kuroganvai

물방개

춘궁기 건널 때 든든했던
올방개목 한 그릇

과명	사초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숙취, 진정, 오줌내기, 통경, 피맺힘 풀이, 젖내기 그밖의 활용 : 생식으로 식용 가능



이야기로 알아보기

오리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고?

왠지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름인 올방개는 올과 방개를 합성한 단어다. 여기서 올은 오리를 의미한다. 방개는 정확히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지만 땅에서 자라는 밤이라는 뜻을 가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러니까 오리가 사는 땅에서 나는 오리의 밤(먹이)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겨울철 수심이 낮아진 저수지나 물이 빠진 습지에 있는 올방개 덩이줄기는 겨울 철새의 먹이가 된다.

올방개는 올메 또는 올미장대라고도 부른다.

올방개목 한 그릇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올방개는 춘궁기를 넘기는 데 든든하고 요긴했던 구황식물이었다. 덩이줄기는 향기가 나고 맛이 달아서 찌거나 구워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그냥 먹을 수도 있었다.

특히 묵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요리가 되었는데, 올방개묵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황달, 해열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해설 지침

오리와 관련된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보릿고개를 버틴 구황식물로 활용된 점을 알려준다. 겨울 철새의 귀중한 먹이로 활용된다는 걸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50~100cm로 땅속 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지름 3~5mm의 덩이줄기가 달려 난다. 줄기 속은 비어 있고 격막이 있어 마디처럼 보인다. 마르면 마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7~8월에 피는 꽃은 비늘조각 끝에 달리고 1개의 작은이삭으로 되어 있다. 모양은 끝이 뾰족한 원주형으로 길이 2~3cm, 폭 3~4mm이다. 비늘조각은 좁은 타원형이고 길이 6mm, 폭 2.5~3mm로 끝은 둥글며 가운데에 1개의 줄이 있다. 열매는 수과로 길이 2~2.2mm, 폭 1.6~1.8mm의 연한 녹색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중부 이남 습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에 분포한다.

효 용

민간요법으로 숙취·진정·오줌내기·통경·피맷힘 풀이·젓내기 등에 사용한다. 약용으로 고혈압·기관지·치질 출혈 등에 처방한다.

활 용

달고 담백하여 찌거나 구워서 먹고 생식으로도 먹는다.
보릿고개를 건디는 구황식물로도 쓰였다.



올방개의 줄기와 꽃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올방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Lemna perpusilla

좀개구리밥

개구리는
개구리밥을 먹을까?

과명	개구리밥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알러지, 두드러기, 부종, 백반병



이야기로 알아보기

올챙이가 먹는 밥

개구리밥은 개구리가 사는 논이나 습지에 서식하면서 올챙이의 먹이가 된다고 해서 개구리밥이라고 불렀다. 좀개구리밥은 개구리밥보다 더 작고 섬세해서 이름 붙여졌다.

같이 섞여 있어도 웬만하면 크기로 구분이 가능한데 뿌리로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개구리밥은 뿌리가 여러 개인 데 반해 좀개구리밥은 뿌리가 하나다.

떠돌이 내 신세 부평초 같다네

부평초(浮萍草)라는 말은 말 그대로 뿌리를 내려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비유할 때 많이 쓰인다. 노래 가사나 시 등 문학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는 이 부평초가 바로 개구리밥이다. 다른 이름은 수평초가 있다.

해설 지침

흔히 말하는 부평초가 좀개구리밥이라는 걸 알려준다. 개구리밥과 좀개구리밥의 구별법을 설명해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뿌리는 하나이고, 색은 흰색이다. 가는 실 모양으로 길이는 1~4cm이다. 줄기와 잎은 구별되지 않은 엽상체이다. 모양은 넓은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길이는 3~4mm, 폭은 2~3mm으로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 앞면은 녹색 또는 연한 녹색으로 윤기가 나며 털이 없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다.

꽃은 암수 한 포기로 핀다. 1개의 포엽에 1~2개의 수꽃과 1개의 암꽃이 들어 있다. 수꽃은 1개의 수술로 되며, 꽃밥은 4실 원형으로 흰색이다. 암꽃은 1개의 암술로 되며, 씨방은 넓은 난형, 안쪽에 직립한 밑씨가 1~2개 있다. 수꽃과 암꽃 모두 꽃잎이 없다. 열매는 낭과로 모양은 난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습지와 논, 우물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전 세계 온대와 열대 지역에 분포한다.

효 용

소변 촉진, 해열작용이 있고 알리지·두드러기·부종·백반병 등을 치료한다. 민간에서 좁개구리밥을 달인 물이나 신선한 잎을 부스럼, 종양, 단독, 눈병, 치질 등의 치료에 이용한다.



좁개구리밥과 개구리밥이 뒤섞인 모양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좁개구리밥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ommelina communis

닭의장풀

농부에게는 성가신 잡초

두보에게는 꽃 피는 대나무

과명	닭의장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염증 및 독성 치료, 당뇨 치료 그밖의 활용 : 식용 및 염료, 사료와 퇴비로 사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생김새도, 사는 곳도 닭!

닭의장풀은 꽃이 수탉의 벼슬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시골 농가의 닭장 밑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닭장 밑에서도 잘 자라니 작물을 재배하려고 갈아놓은 논밭에서는 얼마나 더 잘 자라겠는가. 그러다 보니 바쁜 농사철 농부들에게는 성가신 잡초에 불과하다.

이렇게 천대받는 잡초도 시인의 눈에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꽃이었던 모양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줄기 마디와 잎이 대나무를 닮았다 여겼는지 수반에 꽃 아두고 감상하며 ‘꽃을 피우는 대나무’라고 근사하게 표현해주었다.

해설 지침

닭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게 된 유래를 설명하며, 푸른빛이 도는 꽃의 활용법을 알려준다.

닭의 밀싹개라는 웃기는 이름

닭의장풀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 많다. 닭과 관련해서는 닭의밀싹개, 닭의싹개비, 닭의꼬꼬가 있고, 한자어로는 계거초(鷄距草)라고 하는데 역시 닭이 들어간다. 한의 학에서는 압척초라고 부른다. 그래도 닭의장풀을 부른 이름 중에서 가장 친숙한 이름은 달개비다.

봉숭아처럼 손톱에 물들여요

푸른색 꽃이 고와서 옛날에는 종이나 비단을 염색할 때 염료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봉숭아처럼 손톱에 물들이기도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5~50cm로 옆으로 비스듬히 자란다. 앞은 마디가 굵고 밑부분의 마디에서 뿌리를 내린다. 모양은 달걀 모양이며 길이 5~7cm, 폭 1~2.5cm이다. 털이 없거나 뒷면에 약간 있다. 잎 끝은 점점 뾰족해지고 밑 부분은 막질의 잎집으로 된다. 엽초는 입구에 긴 털이 있고 약간 두꺼우며 질이 연하다.

7~8월에 피는 하늘색 꽃은 엽액에서 나온 줄기 끝의 포에 싸여 핀다. 포는 길이 2cm의 넓은 심장형이며 안으로 접히고 끝이 갑자기 뾰족해진다. 꽃받침조각은 3개이고 무색이다. 2개의 수술과 꽃밥이 없는 4개의 수술이 있다. 열매는 타원형이고 마르면 3개로 갈라진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길가에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북미에 분포한다.

효 용

한방에서 압적초라 부르며, 염증 치료나 종기 등의 독을 치료하여 콩팥이나 요도염, 눈 염증 등에 좋다. 그리고 뱀이나 벌레 물린 부위에 잎을 찢어 붙이면 좋다. 그리고 전체를 달인 물을 마시면 당뇨에 좋다고 한다. 이질, 설사, 목의 통증 등의 치료에도 좋다.

활 용

관상용으로 기르며, 어린잎과 줄기, 꽃은 맛이 좋아 나물이나 샐러드로 요리해 먹는다. 가축 사료와 퇴비로 쓰인다. 파란색의 꽃은 파란색 염료로 사용되며, 과거에는 물감이 귀하여 비단에 밑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다.



닭의장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닭의장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neilema keiskei

사마귀풀

몸에 난 사마귀 없애는
신기한 풀

과명	닭의장풀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치질치료, 기침, 천식



이야기로 알아보기

사마귀 없애는 사마귀풀

주로 손, 발, 다리에 오돌토돌한 구진(1cm 미만 크기로 피부가 솟아오르는 것)이 생기는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사마귀풀은 이 사마귀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사마귀풀을 찢어 구진 부위에 바르면 사마귀가 떨어진다고 한다.

꽃이 아깝다, 아까워!

사마귀풀은 꽃을 보고 나면 이름이 너무 험하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이름에 비해 꽃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쁜 꽃에 사마귀풀이라니, 아까워하는 것이다. 사마귀풀 꽃은 잎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는데, 연한 홍자색이다. 이 꽃 때문에 사마귀풀은 애기달개비, 애기 닭의밀씻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애기라는 이름은 꽃이 애기처럼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붙여졌다.

해설
지침

사마귀와 관련된 이름의 유래를 알려준다. 다른 재미난 이름도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0~30cm로 줄기 밑부분이 옆으로 뻗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색은 연한 녹색이지만 홍자색이 돌며, 표면에는 한 줄로 털이 나 있다. 서로 어긋나 달려나는 잎은 좁은 피침형으로 길이 2~6cm, 폭 4~8mm이다. 줄기 밑부분은 길이 1cm의 엽초로 되며 엽초 전체에 털이 있다.

8~9월에 피는 연한 홍자색 꽃은 줄기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1개씩 피며, 지름 약 13mm이다. 꽃자루는 길이 1.5~3cm이고 선상 꽃싸개가 1개 있다. 꽃받침잎의 모양은 피침형으로 길이 4mm이다. 꽃잎은 끝이 둥근 난형으로 길이 5mm이고 꽃받침잎과 더불어 3개씩이며 연한 홍색이다. 수술은 3개이고 수술대에 털이 있으며, 짧은 헛수술은 3개 있다.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이고 모양은 타원형으로 길이 8~10mm이다. 꽃받침에 싸여 있고 각 실에 씨가 5~6개씩 들어 있다. 열매자루는 길이 1.5~3cm이며, 밑으로 굽는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물기가 많은 논이나 늪에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국외는 대만, 러시아(아무르, 우수리), 북미, 일본, 중국(만주)에 분포한다.

효 용

사마귀풀의 포기나 햇빛에 말린 것을 수죽채(水竹菜)라 하며 약재로 사용한다. 치질 치료, 뱀 독풀이, 오줌내기약, 기침이나 천식, 산통의 진정에 사용된다.



사마귀풀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사마귀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Monochoria vaginalis var. plantaginea

물달개비

논에만 피는 잡초
그래서 더 골치 아파

과명	물옥잠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간을 맑게 하고 종기 치료, 눈병 치료 그밖의 활용 : 관상용으로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물가에 피는 달개비

물달개비는 잎이 달개비(닭의장풀)를 닮았는데 물가에 서식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물닭개비’, ‘나도닭개비’ 등이 있다. 소박한 이름과는 달리 논에 대표적인 잡초로 손꼽힌다.

해설 지침

꽃이 아름다워 주로 관상용으로 기른다는 점을 알려준다. 농부에게 물달개비가 어떤 풀인지도 알려준다.

내가 논바닥 잡초의 왕이 된 이유

논의 대표적인 잡초가 피다. 조금만 방심해도 쑥쑥 자라는 피. 그런데 물달개비는 피보다 한 수 위다. 피는 한 이삭에 종자가 백 개 남짓 달리는 데 반해 물달개비는 한 개의 포기에 1천에서 2천에 이르는 많은 종자가 달린다. 번식량이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씨는 10년을 넘게 살아 있어 올해 물달개비를 다 제거해도 내년엔 어김없이 무성해진다.

물달개비가 농부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는 이유는 물달개비가 논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피는 논가에서도 피는데 물달개비는 오직 논에서만 자란다. 같은 제초제를 연이어 사용하면 저항성이 생길 만큼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 물달개비가 없는 논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높이는 10~25cm로 줄기는 5~6개씩 뭉쳐 나오며 각 1장씩의 잎이 달린다. 잎은 넓은 피침형 또는 세모진 달걀 모양이고 길이 3~7cm, 폭 1.5~3.0cm이다. 밑은 둥글거나 약간 심장 모양이다.

9~10월에 피는 자주색 꽃은 3~7개가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의 1.5~2.0cm이고, 꽃차례는 길이가 잎보다 짧으며 꽃이 피면 밑으로 기운다. 열매는 삭과이고 길이 1cm의 타원형이다.

분포 및
생육지

황해도 이남 지역에 연못이나 얇은 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국외는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분포한다.

효 용

잎·줄기는 약재로 사용된다. 잎과 줄기를 함께 약재로 쓰며 생약명은 곡채, 영, 흑채 등이라 한다. 간을 맑게 해주고 피를 식히며 종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 각혈, 혈뇨 등을 다스리며, 눈병 치료에도 좋다. 또 뱀에 물린 곳, 종기나 부스럼 등의 환부에 말린 것을 붙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활 용

관상용으로 기른다



물달개비의 꽃과 잎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물달개비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emerocallis fulva

원추리

아들 낳게 해주는 풀
옛날 부인들에게 인기 만점

과명	백합과
구분	자생식물
전통적 활용	약효 : 스트레스 · 우울증 · 폐결핵 · 빈혈 · 황달 · 변비 그밖의 활용 : 떡, 나물, 열매를 놀이에 활용



이야기로 알아보기

원추리는 어떻게 원추리가 되었나?

원추리의 고유 이름은 넘나물, 엄나물이다. 원추리라는 단어는 조선 숙종 때의 농서였던 『산림경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중국 이름으로 흰초(萱草)라고 하는데 발음하기 어려워 흰초 → 원초 → 원추 → 원추리로 변했다는 것이다.

해설 지침

원추리에 담긴 근심풀이, 아들을 낳는 부인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준다. 가을에 익는 까만 열매를 여러 가지 놀이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른 봄 원추리 순을 따서 나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근심을 없애주는 풀

원추리는 근심을 없애준다고 해서 근심풀이풀이나 망우초(忘憂草)라 부르기도 한다.

원추리를 많이 먹으면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에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는데 이것을 근심 없는 상태로 오해해서 생긴 말이 아닌가 추정한다.

임신부가 가장 사랑했던 꽃

옛날에는 임신부에게 원추리가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임신부가 이 꽃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남초(宜男草)라고 불렀다. ‘의남’은 사내아이를 많이 낳는 부인이라는 뜻이다.

동양화에는 바위 옆에 원추리를 그려 넣은 그림들이 있다. 바위는 장수(長壽)를 상징하며, 원추리는 득남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림은 보통 여인의 방에 걸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뿌리는 사방으로 퍼져난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모양은 선형이지만 끝은 뾰족하고 둥글게 젖혀진다. 색은 흰빛이 도는 녹색이고 조금 두껍다.

6~7월에 피는 꽃은 줄기 끝에 6~8개의 꽃이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빛깔은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이고 길이는 11~15cm다. 꽃의 줄기는 80~120cm로 끝이 조금 갈라진다. 꽃자루는 1~2cm다. 꽃싸개잎은 선상 피침형으로 2~8mm다. 화피는 통부분의 길이가 1~2cm이고, 갈래 부분이 길이는 10~13cm로, 폭은 2~3cm다. 수술은 6개로 통 부분 위쪽에 달리고, 꽃잎보다 짧다.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는 삭과로 검은 씨가 3개가 들어 있다.

분포 및
생육지

우리나라 전역의 숲속이나 풀밭, 또는 개울가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국외는 중국에 분포한다.

효 용

어린싹은 나물로, 꽃은 김치를 담가 먹는다. 뿌리는 자양강장제로 사용하며 약용으로 스트레스·우울증·폐결핵·빈혈·황달·변비 등을 치료하며 이뇨작용, 항염증작용, 지혈작용, 해독작용 등을 한다.

활 용

녹말을 추출하여 쌀, 보리 등을 섞어 떡을 만들거나 밥을 지을 때 넣어 노랑게 물들인다.



원주리 꽃과 줄기

이 식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원주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omacea canaliculata

왕우렁이

우렁이농법의 주인공
맛도 좋아

과명	우렁이과
사는곳	하천, 논
먹이	물속의 모든 것을 먹을 만큼 식성이 좋다



이야기로 알아보기

왕우렁이, 군침 도네

왕우렁이는 쓰임새가 많은데, 식용으로 양식도 한다. 왕우렁이를 식용으로 활용할 때는 체내의 사료 등 이 물질을 완전히 배설하게 해야 한다.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따낸 후 소금을 이용하여 체액 등을 깨끗하게 씻긴 후 사용하면 된다.

왕우렁이는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려 찌개, 매운탕, 장조림, 회무침, 덮밥, 스프, 튀김 등 많은 요리의 종류가 개발되어 있으며, 대중 식품으로 점점 각광받고 있다.

해설 지침

식성이 좋아 물속에 있는 것들은 다 먹는데 유기물을 먹어 바닥에 흙을 토해내는 이로운 우렁이다.

우렁이농법의 주인공

우리나라 대표적인 친환경농법이 우렁이농법이다. 이 우렁이농법에 사용되는 우렁이가 왕우렁이다.

원산지가 중남미의 열대지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금은 적응한 상태라고 한다.

왕우렁이는 피, 물달개비를 비롯해 일반 제초제에도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들까지 제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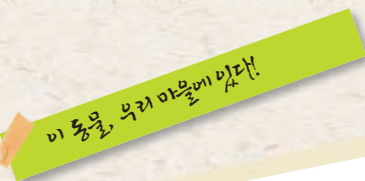
식성이 좋아 물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먹으며, 바닥의 흙을 삼켜 유기물을 걸러내 먹는다. 체형은 경사가 급한 나선형으로 각도는 약 90도 전후다. 패각 끝 포아리는 몸길이 전체의 약 1/5~1/6 정도로 아주 짧다. 패각 덮개는 토종 논우렁이보다 훨씬 크며, 두께는 얇아 쉽게 부스러진다. 자웅이체로 암수가 구분된다. 난생으로 물 밖에 약 300~600개 정도의 붉은빛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오염된 수질에 잘 적응한다.



왕우렁이(아래)와 쇠우렁이(위)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왕우렁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Parafossarulus manchouricus

쇠우렁이

우렁각시가 살기엔
작아도 너무 작아

과명	쇠우렁이과
사는곳	논, 온수로(부영양화가 심한 논에는 살지 않는다)
먹이	물풀, 조개류 등 잡식성



이야기로 알아보기

작아서 쇠우렁이

우렁이 중에서도 작다고 해서 쇠우렁이다. 동물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원래 것보다 못하거나 작으면 이름 앞에 ‘쇠’를 붙인다. 쇠물닭, 쇠기러기, 쇠백로 등도 작다고 붙인 이름들이다.

우렁이도 집이 있는데!

우렁이는 우렁각시처럼 이야기에 나오고 속담도 여럿 있다.

우렁이도 두렁 넘을 꺾기 있다고 하면 미련하거나 미천한 사람도 제 살 요량으로 재주 하나씩은 있다는 뜻이고, 우렁이도 집이 있다는 말엔 미물도 집(외각)이 있는데 사람이 살 집이 없다는 원망이 담겨 있다. 우렁이 속 같다고 하면 우렁이의 굽이굽이 깊숙이 들어가는 모양처럼 의문스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설 지침

논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며 껍데기는 석회질이 침착하여 두껍고 거친 것이 특징이다.

간디스토마의 숙주가 되는 우렁이

옛날에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고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담도암에 걸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주로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염률이 높았는데, 이 간디스토마의 1차 숙주가 쇠우렁이다. 쇠우렁이가 간디스토마의 알을 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 쇠우렁이의 몸 밖으로 나와 민물고기의 근육을 파고들어 더 자라는 데 이렇게 감염된 민물고기를 먹고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저 쇠우렁이는 먹이 활동을 한 것뿐인데 간디스토마 때문에 구제(驅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수질 지표종으로, 심하게 부영양화된 눈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껍데기는 소형이며 원추형으로 단단하며, 높이 12.5mm, 지름 7mm 정도이다. 나층은 3~4층으로 높은 편이며, 몸은 회백색이나 황갈색으로 각질은 석회질이 침착하여 두껍고 거칠다. 내순 부분에 활층이 형성되었고 활층이 형성되면 재공이 좁아진다.

분포 및 서식지

펄, 물풀이 많은 늪지대, 논이나 온수로 등에 서식한다.

효용

위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피부질환, 부스럼이나 관절염 및 여성의 자궁에도 큰 도움을 준다. 우렁이 껍질을 가루로 내어 환부에 붙이면 된다.



쇠우렁이(위)와 왕우렁이(아래)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쇠우렁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dix auricularia coreana

물달팽이

청소도 하고, 먹이도 되는
생태계의 모범생

과명	물달팽이과
사는곳	하천, 물 흐름이 없는 논, 유속이 느린 강이나 연못
먹이	물속에 있는 것은 가리지 않고 먹는다(잡식성)



이야기로 알아보기

연못 생태계의 조화로운 청소부

물달팽이는 연못의 청소부다. 돌이나 진흙에 묻은 조류를 훑아먹고 죽은 물고기도 먹어치운다. 이렇게 연못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자신은 연못이나 습지에 사는 물새의 먹이가 된다. 생태계를 조화롭게 유지시켜주는 고마운 생물이다.

내가 헤엄치는 걸로 보인다고?

육지에 사는 달팽이는 발을 요동치듯 움직여 바닥의 점액질 층에 물결 같은 파동을 만들면서 앞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렇게 물결 파동을 만들려면 단단한 바닥이 있어야 한다. 물달팽이가 물에 떠서 움직일 때는 발 디딜 곳도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걸까?

비결은 공기에 있다. 물달팽이는 가지고 있는 공기를 부력 삼아 먼저 수면으로 떠오른 후 공기와 만나는 물의 표면장력을 이용해 단단한 바닥처럼 디디며 이동한다는 것이다.

해설 지침

반투명한 황갈색을 띠는 달팽이로 파이프 모양이다. 자웅동체로 다른 개체와 교미하여 주머니 속에 넣은 알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번식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껍데기는 23mm의 높이, 14mm의 지름이며, 반투명한 황갈색을 띤다. 형태는 파이프 모양으로 체층이 크고 둥글어 껍데기 높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체층 위에 있는 층은 작으며, 각정은 작고 뾰족하다. 측각은 삼각형이며, 아래에 눈이 있다. 산란 시기는 여름으로, 5~6월이 성기이다. 자웅동체로 다른 개체와 교미하며, 연못과 논, 물풀, 자갈 등에 한천질의 주머니 속에 넣은 알을 부착한다.

분포 및 서식지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강이나 연못, 호수 등에 서식한다.

효용

감기 증상에 유용하며 해열 및 해독작용이 있다. 어린이의 위장병에도 탁월하며 충치에도 효과가 있다.

활용

햇빛에 말려 가루를 내거나, 찹통을 이용하여 찌내어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낸다.



물달팽이(좌)와 원돌이물달팽이(우)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물달팽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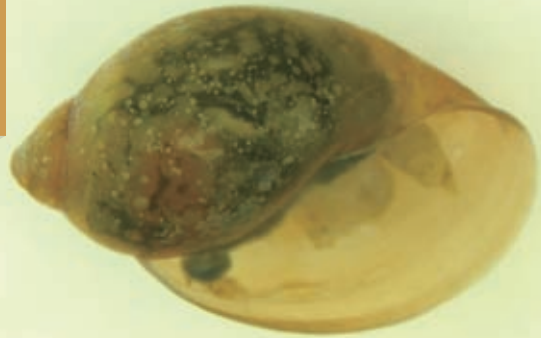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hysella acuta

원돌이물달팽이

왼쪽으로 꼬였다고
붙여진 이름

과명	원돌이물달팽이과
사는곳	논은 물론 오염이 심한 도시의 하수구까지 서식
먹이	물풀, 조개류 등 잡식성



이야기로 알아보기

왼쪽으로 꼬였다고 붙여진 이름

일반적으로 달팽이는 패각이 오른쪽으로 꼬여 있다. 꼭대기에서 아래 입 쪽으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꼬여 내려간다. 그런데 원돌이물달팽이만 시계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나뉘어 돌아나간다. 민물에서 사는 달팽이 중에는 원돌이물달팽이만 그렇다. 그래서 이름도 원돌이물달팽이다.

내가 살면 물이 더러운 곳입니다

원돌이물달팽이는 깨끗한 물보다 더러운 물을 더 선호한다. 더러운 물에 유기물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3급수 내지 4급수에서 많이 사는 데 이러한 생태로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해설
지침

심하게 오염된 곳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며 수질오염의 지표종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패각은 왼쪽으로 감겨져 있다. 뿔의 높이는 12mm, 지름은 7mm 정도이다. 껍질은 옅은 갈색이나 적갈색으로 광택이 난다. 체층은 뿔 높이의 4/5정도이며 나층은 4층이다. 제공은 없고 각구는 좁고 긴 난형이다. 백색의 활층이 발달하였으며 각축이 꼬여 있고 축순이 발달했다.

분포 및 서식지

논, 논외수로, 강가, 호수, 유원지의 오염된 하천, 강, 작은 도시의 하수구나 수로 등 심하게 오염된 곳에도 서식하여 수질오염 지표종이다.



원돌이물달팽이(우)와 물달팽이(좌)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원돌이물달팽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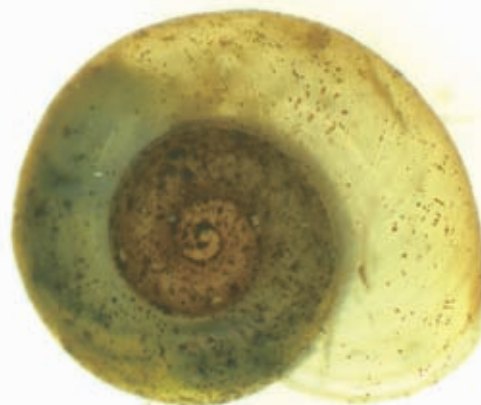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ippentis cantori

또아리물달팽이

또아리를 튼
납작한 물달팽이

과명	또아리물달팽이과
사는곳	논, 논외 수로, 강가, 호숫가
먹이	돌, 수초에 붙어 있는 부착 조류나 유기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워요

물건을 머리에 일 때 머리 위에 쥘 수 있도록 만든 고리 모양의 받침 도구를 또아리라고 하는데, 또아리물달팽이의 모양이 또아리와 닮았다.

국내에 서식하는 또아리물달팽이는 3종이다. 또아리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 배꼽또아리물달팽이. 그 중에서 또아리물달팽이의 크기가 가장 작다. 지름이 3mm에 불과해 자세히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할 때가 있다.

또아리물달팽이는 어떻게 수초를 잡아 먹을까?

달팽이에게 이빨이 있다고 하면 얼핏 믿어지지 않겠지만 치설(齒舌)이라는 미세한 유사 이빨이 무려 1만~2만 5천 개가 있다고 한다.

또아리물달팽이는 치설의 총열수가 35열로, 이빨의 모양이 人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한다. 또아리물달팽이는 입을 열고 닫으면서 이 치설로 수초를 잡아먹는다.

해설
지침

껍데기가 원반형이며 또아리 모양으로
껍데기는 평평하고 넓고 얇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껍데기는 편평한 원반형이며, 높이 1mm, 지름 3mm 정도로, 또아리물달팽이과에서 가장 작다. 껍데기의 광택은 거의 나지 않고 반투명한 회백색이다. 그리고 각정과 제공이 상하로 들어가 있으며, 3층의 나층이 또아리모양으로 감겨 있다. 체층은 주부가 둥글다. 각경은 제공의 2배 정도이다. 껍데기 기저부는 평평하고 나뭇잎은 넓고 얇다.



분포 및 서식지

논, 농수로, 강가, 호숫가 등에 서식한다.



또아리물달팽이(위)와 수정또아리물달팽이(아래)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또아리물달팽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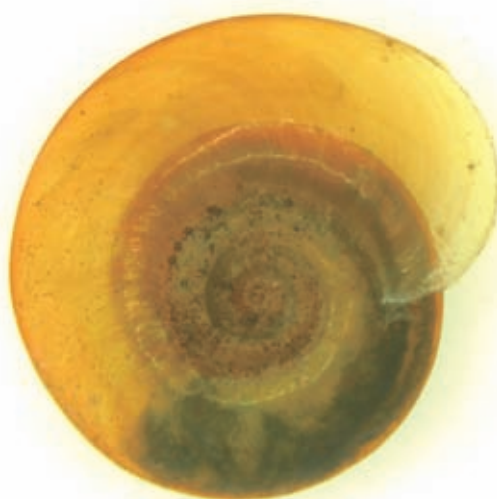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ippentis (Segnitilia) cantori

수정또아리물달팽이

무엇이 부끄럽길래
몸이 발그레

과명	물달팽이과
사는곳	논, 논외 수로, 강가, 호숫가
먹이	흙, 수초에 붙어 있는 부착 조류나 유기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또아리를 튼 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는 또아리물달팽이 무리 중 가장 큰 녀석이다.

이름에 또아리가 들어간 것은 납작하게 붙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수정또아리물달팽이는 붉은 호흡 색소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몸 색깔이 불그스레하다.

해설 지침

비닐, 강통까지 붙어 서식하며 겉데기는 광택이 나는 황백색이다.

나도 또아리물달팽이라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또아리물달팽이의 종류에는 또아리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 말고도 배꼽또아리물달팽이가 있다. 크기는 수정또아리물달팽이가 가장 크고, 배꼽또아리물달팽이가 중간, 또아리물달팽이가 가장 작다.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나 마찬가지로 각경의 크기가 큰 것부터 10mm 내외, 5.5mm 내외, 3mm 내외다. 배꼽또아리물달팽이는 체층의 높이가 가장 높고 옆면에서 보면 사다리꼴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수질 지표종으로 부영양화된 논에 서식하며, 채색이 황백색에서 짙은 검붉은색을 띤다. 껍데기는 광택이 나는 원반형이며, 높이 2mm, 지름 10mm의 소형이나 또아리물달팽이과에서 가장 큰 대형종이다. 나층은 4층이며, 각경은 제공의 약 3배이다.

체층은 주연에 예리한 각이 있으며, 껍질의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둥글다. 또 아래쪽으로 제공이 들어가고 채색은 광택이 나는 황백색이다. 껍데기 기저부는 둥글고 볼록하다. 나뿔은 다소 좁거나 깊다.

분포 및 서식지

논, 농수로, 강가, 호숫가 등에 있는 썩은 나뭇가지, 비닐, 강통 등에 붙어 서식한다.

효 용

피로회복제나 피부질환인 환부 및 해독이 필요한 곳에 붙이면 해독작용과 해열작용이 가능하다.

활 용

뜨거운 물에 껍질을 찌내어 부드러운 가루를 낼 수 있다.



수정또아리물달팽이(아래)와 또아리물달팽이(위)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수정또아리물달팽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Whitmania pigra

말거머리

거머리는 거머리인데
피를 빨 줄 몰라요

과명	거머리과
사는곳	논, 물웅덩이, 저수지, 늪
먹이	패류의 조직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름만 거머리일까?

일반 거머리와 다르게 흡혈 능력은 없는 거머리 종이다. 이름처럼 다른 거머리에 비해 큰 종으로, 갈색과 녹색 두 종류가 있다. 겨울에는 진흙 속에 숨어 지낸다.

온몸이 약이 되는 거머리

한국 각지의 논이나 늪, 호수 등지에 산다.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를 말려 생약으로 만든 것을 수질(水蛭)이라 하는데, 혈액이 굳는 것을 막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항암제로도 실험적으로 쓰인다. 단 체질이 허약하거나 맥박이 약한 사람, 임산부, 빈혈인 사람에게는 처방하지 않는다.

해설 지침

한의학에서도 말거머리를 사용해 혈액 순환을 돕는 생약을 만들기도 하며 거머리의 특징 중 하나인 흡혈 능력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거머리랑 친해지고 싶다고?

논에서 거머리를 채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얼핏 피 냄새를 맡으면 올 것 같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 그러나 거머리를 가장 손쉽게 부르는 방법이 있다. 거머리는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게 아니라 물의 파동을 느끼고 오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거리게 물 표면을 두드리면 거머리가 떠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거머리에 물렸을 때는 억지로 떼려 하지 말고 라이터 불을 가까이 대거나 음료수를 부어주면 저절로 떨어져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보통 10~15cm 내외이며 수축하면 60mm 내외이다.

등면은 황갈색에 5개의 검은색 세로줄이 나 있다. 배면은 연한 황색에 흑색 반점이 세로로 나 있다. 입은 전흉반 앞에 있고 3개의 턱과 치상돌기가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서식지는 논, 물웅덩이, 저수지, 하천 등이다. 진흙 속에 숨어 겨울을 보낸다.

효 용

한의학에서 말거머리 몸 전체를 말려 생약으로 만들어 쓰는데, 혈액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



말거머리(위)와 돌거머리(아래)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니?

우리 마을 말거머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Erpobdella lineata

돌거머리

자연산

혈액 응고 방지제

과명	돌거머리과
사는곳	논, 물웅덩이, 저수지, 마을 하천
먹이	동물의 피



이야기로 알아보기

보호색을 가진 거머리

돌거머리는 평소에는 어두운 갈색의 색깔이지만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 주위의 환경에 따라 몸통의 색깔을 비슷하게 변화시킨다.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돌거머리는 알을 품어 부화하였다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에 붙여 보호한다.

해설 지침

몸통색이 어두운 갈색이며 보호색 또한 지니고 있어 주변색과 비슷하게 바꿀 수 있다. 표면이 매끈한 근육질이다.

거머리는 혈액 응고 방지제

거머리는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데다 징그럽게 생겨 가장 기피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거머리의 피를 빠는 탁월한 능력은 옛날부터 의료용으로 각광을 받았다.

외과 수술이 이루어질 때는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거머리를 그 부위에 올려놓으면 응고된 혈액 즉 혈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거머리가 침샘에서 분비하는 효소물질인 하루딘 덕분인데, 이 하루딘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한다. 거머리를 떼어내도 한동안 피가 계속 흐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60~70mm 정도 길이에 눈은 3~4쌍이다. 몸통색은 어두운 갈색이며, 표면이 매끈거린다. 보호색을 가져 주위 환경에 맞도록 몸통의 색을 주변색과 비슷하게 바꿀 수 있다.

인두는 관상에 근육질로 발달되어 있다. 혈관에 적색 혈액이 순환하며 진정혈관계이다. 체포를 통하여 호흡한다. 알을 낳아 번식한다. 알이 부화하여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낳은 알을 몸에 붙여 보호한다.

분포 및 서식지

주 서식지는 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이며, 논, 물웅덩이, 저수지 등에서도 서식한다.

효용

항암작용 및 항혈, 항응혈작용, 혈전용해, 항혈소판작용을 하며 독성이 있다. 배합과 응용을 통해 통증을 치료하며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환약을 만든다.



돌거머리(아래)와 말거머리(위)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돌거머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Ischnura asiatica

마시아실잠자리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암컷의 변신은 무죄

과명	실잠자리과
사는곳	연못, 습지, 하천
관찰 시기	5월~9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성숙하면 색깔이 변해요

아시아실잠자리의 암컷은 미성숙이었을 때 빨간색이었다가 성숙하면 전혀 다른 색깔인 녹색으로 변신을 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흔히 보는 빨간색의 고추잠자리도 미성숙이었을 때는 연한 갈색이었다가 성숙하면 빨간색의 혼인색으로 치장을 하게 된다. 다만 실잠자리아목은 암컷이, 잠자리아목은 수컷들이 색변이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해설 지침

보기와 다르게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잠자리지만, 반면에 자기보다 큰 다른 잠자리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물속에 배 끝을 담아 알을 낳는 특징이 있다.

잠자리 눈이 큰 이유



잠자리는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95%에 이르는 사냥 성공률의 비결은 놀라운 시력 덕분이다. 잠자리는 고생대부터 출현해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번식 능력뿐만 아니라 먹이 활동과 방어 활동도 중요하다. 먹이를 잡을 때나 천적으로부터 피할 때나 모두 타고난 시력의 도움이 컸을 것이다.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개의 겹눈에는 3만개의 홑눈이 있다고 한다. 각각의 홑눈은 직선의 빛만 감지하며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상을 본다고 하는데 무려 30미터 밖의 먹잇감도 파악할 수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뒷날개 길이는 12~19mm, 배 길이는 21~24mm이다. 수컷의 가슴은 풀색, 배끝은 하늘색이다. 암컷은 열은 갈색을 띠다 성숙하면서 풀색으로 변이한다. 배, 등면은 암수 모두 검은색이며, 앞날개의 연문은 뒷날개보다 짙은 색이다. 수컷 성충의 제 9배마디는 파란색, 제 8배마디는 검은색이다. 상부속기엔 검은색의 강모가 나있고, 하부속기 끝은 뾰족하고 검다. 암컷 성충의 앞가슴 가장자리는 둥글고 검은색 무늬가 복잡하게 나 있으며, 산란관이 제 10배마디 너머까지 길게 뻗어 있다.

산란 방법은 암컷이 물 위에 솟아난 수생식물 윗부분 조직에 알을 낳거나 배 끝을 물속에 담가 알을 낳기도 한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4~10월에 논과 농수로, 웅덩이, 연못, 늪, 저수지 등에 서식한다. 물가를 떠나는 습성을 가지는데 낮은 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때때로 산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미성숙일 때의 아시아실잠자리(우)와 성숙한 후의 아시아실잠자리(좌)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아시아실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aracension hieroglyphicum

등줄실잠자리

등에 긴 줄이
멋스런 실잠자리

과명	실잠자리과
사는곳	논, 소하천, 저수지
관찰 시기	5월~9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날씬한 실잠자리의 세계

실잠자리는 일반적으로 몸길이가 5cm 내외로 일반 잠자리보다 작고 복부와 날개도 더 가늘고 얇다.

봄부터 가을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짹짹기를 할 때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인상적인 잠자리다.

주로 물웅덩이나 저수지, 작은 연못 등의 수풀에서 서식하며 몸 색깔이 뚜렷해 눈에 잘 띈다. 날아다닐 때는 소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는 날개를 등 뒤로 접는데, 풀에 앉을 때 옆으로 90도를 이루며 앉아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알 낳는 곳 고르고 골라요

등줄실잠자리가 짹짹기를 한 채로 물 위를 떠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다. 등줄실잠자리는 교미 후에도 암수가 서로 붙은 채로 산란할 장소를 찾아다닌다. 알 낳기에 적당한 곳을 찾고나서는 암컷이 식물 줄기 속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낳는다.

해설
지침

다른 잠자리들보다 수명이 짧아 9월까지 눈에 보이는 한국 잠자리다. 산라기 독특한 번식법을 알려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유충은 평지나 구릉지 등의 수초가 풍부한 연못, 저수지, 수로 등에서 서식한다. 5~9월에 걸쳐 우화한다. 몸길이는 15mm 정도이며, 몸의 색은 담갈색이나 담녹색이다. 머리 뒤쪽에 옅은 색의 줄무늬가 많이 나 있다.

상부속기는 얇고 긴 미세돌기를 가지고 있으며 끝이 뭉툭하며 겹다. 하부속기 끝은 뾰족하다. 제 7배마디 옆 가장자리에 작고 불규칙한 모양의 무늬가 나 있다. 꼬리 아가미는 불규칙한 갈색 부분이 중심선을 따라 이어지고 이 주변에 수많은 기관지가 갈라져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국내 대부분에 분포하고 있다.



등줄실잠자리가 풀잎에 90도로 앉은 모습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등줄실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eriatodon melanurum

노란실잠자리

하트 모양 만드는
사랑의 기술

과명	실잠자리과
사는곳	연못, 습지, 휴경논
관찰 시기	5월 하순~10월 중순(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노란실잠자리의 비행술

노란실잠자리는 몸 색깔이 이름처럼 노랗다. 미성숙 암수는 모두 노란색이지만 성장한 암컷은 연한 녹색으로 몸 색깔이 변한다.

잠자리 중에서 노란실잠자리를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 낮게 날면서 풀숲에서 잘 나오지 않는 데다 잡으려 들면 위로 날아오르는 대신 아래로 곧장 떨어지듯 직하하는 하강 비행기술을 사용해 얼른 풀줄기 사이로 숨어버린다. 잠자리채로는 거의 잡기 어려운 잠자리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잠자리로 머리 모양은 삼각형이다. 노란실잠자리를 채집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려준다.

하트 모양 만들며, 우리 서로 사랑해요! 

노란실잠자리들은 주로 물가나 풀줄기 사이를 누비며 앞으로 뒤로 날아다닌다. 수컷 잠자리들은 마음에 드는 암컷 잠자리를 만나면 하트 모양을 만들어 짝짓기를 하며, 암컷은 수컷의 목을 잡은 채로 물풀의 줄기에 알을 낳는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분포 및
서식지

수컷 성충의 배마디는 노란빛을 띠며 검은색의 세로선이 있다. 상부속기 끝은 뿔뿔하며, 아랫부분에 날카롭고 흑색을 띤 강모가 나 있다. 하부속기는 길고 위로 휘어져 있으며 끝이 뾰족하고 검다.

암컷 성충은 수컷보다 크며, 배마디 끝의 상판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둥글다. 유충 몸의 색은 갈색이며 더듬이는 황갈색, 7마디이다. 겹눈은 검은색, 홀눈은 없다. 앞가슴은 갈색, 다리는 황갈색에 강모가 있다. 제2~9배 마디에 각각 2개의 암갈색 반점이 있으며 미모는 삼각형이다. 꼬리아가미에는 갈색 기관들이 많이 있고, 끝 부분은 갑자기 좁아진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하트 모양을 만들며 짝짓기를 하는 노란실잠자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니?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노란실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_____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_____

Paracension calamorum

등검은실잠자리

화려한 청색 뽀내는
멋쟁이 실잠자리

과명	실잠자리과
사는곳	수생식물이 많은 늪이나 강가, 연못, 논, 물웅덩이
관찰 시기	4월~9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실잠자리 애벌레의 호흡법

실잠자리들은 6개월 이상 물속에서 자라는 인내 많은 잠자리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서 물 위로 나와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잠자리를 장난 삼아 함부로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실잠자리는 알에서 깨어난 후 물속에서 자라는데 애벌레는 꼬리에 낙엽 모양의 아가미가 3개나 있어 산소를 공급받으므로 물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꼬리아가미가 모두 떨어져 나가도 실잠자리는 호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유충의 생존 전략

실잠자리 유충은 육식성으로 어렸을 때는 물벼룩 같이 작은 먹이를 먹다가 자라면서 실지렁이, 장구애비와 같은 생물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먹는다. 행동이 민첩한 편이 아니라 몰래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다가오면 날카로운 아랫입술을 사용해 물어버린다고 한다. 실잠자리의 아랫입술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물리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적에게 쫓길 때는 죽은 시늉을 하거나 꼬리아가미로 헤엄쳐 도망가며 긴 배를 뒤틀어 방어행동도 취한다.

해설
지침

꼬리 부분이 짧고 검은색의 청동빛이 도는 고급스러운 잠자리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수컷 성충의 머리는 검은색에 후안문이 있다. 가슴의 등은 검은빛이 도는 청동색이며 무늬는 없다. 상부 속기는 검고 길고 곧게 나 있다. 하부속기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아랫방향으로 휘어졌다.

암컷 성충의 앞가슴 말단은 둥근 부분이 매우 돌출되어 있다. 유충은 하순전기절 중편에 4쌍의 강모, 측면에 5개의 강모, 절단편에 4개의 이빨 모양 돌기가 있다. 미모는 상대적으로 길며 위, 아래로 휘어져 있다. 꼬리아가미의 말단 부분은 좁고 가장자리에 짙은 색 기관이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국내 대부분에 분포하고 있다.



나뭇잎에 앉아 있는 등검은살잡자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등검은살잡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nax parthenope julius

왕잠자리

살아 있는 화석 실감나는
커다란 잠자리

과명	물달팽이과
사는곳	저수지, 물웅덩이, 특히 논에서 많이 증식한다
관찰 시기	4월~9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내가 바로 잠자리의 왕

잠자리 중에서 색도 화려하고 크기도 커서 잠자리 중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왕잠자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김새만 화려하고 멋진 건 아니다. 왕잠자리는 영역의식이 강해 자신의 구역으로 삼은 연못 물 위를 순찰 비행하는데 그 모습이 여간 우아하지 않다. 연못에 잠시 멈춰 정지 비행이라도 할라치면 백성을 굽어보는 왕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먹이를 낚아채는 솜씨도 일품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나 왕이라는 감투를 씌워줄 만하다.

잠자리는 살아 있는 화석

왕잠자리를 보면 잠자리가 살아 있는 화석이라는 게 실감난다. 잠자리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기 훨씬 전인 고생대부터 이 땅의 하늘을 날아다녔다. 원시 세상을 확보할 때의 잠자리는 날개 길이만 해도 70cm가 넘었을 거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잠자리는 1억 5천만 년 전의 모습과 유사한데 빙하기를 거치면서 크기가 줄어든 잠자리가 생겨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만나는 잠자리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화석이나 다름없다.

해설 지침

왕잠자리의 유충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며, 모기류의 유충에서 치어까지 잡아 먹을 정도로 자생력이 강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성충은 4~10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다. 성충의 몸은 48~54mm길이에 전체적으로 녹색이다. 겹눈, 얼굴, 뒷머리는 녹색, 이마혹은 흑갈색, 이마 꼭대기 부분은 남색에 암갈색 띠가 앞쪽 가장자리에 있다. 수컷의 배에 선명한 남색 무늬가 있으나 암컷은 황록색이다. 상부속기는 짧고 스푼 모양이고 끝부분에 작은 옆가시가 나 있다. 하부속기는 상부속기보다 짧고 반원형이다.

유충의 몸은 갈색이나 짙은 갈색이며 얼룩무늬가 있다. 배 등면에는 넓은 세로줄무늬가 나 있다. 유충은 갈따구나 모기류의 유충에서 치어까지 잡아먹는다. 교미가 끝난 수컷과 암컷은 연결한 채로 함께 날아다니며 연못, 방죽, 저수지, 늪 등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의 조직 내에 산란한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유충은 수초가 많은 저수지나 연못 등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 서식하며 일부 유충이 완만하고 큰 하천의 수초가 많거나 부식질이 쌓인 곳에도 서식한다.



살아 있는 화석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왕잠자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왕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nax nigrofasciatus

먹줄왕잠자리

왕잠자리보다

더 멋지게 화장했어요

과명	왕잠자리과
사는곳	저수지, 물웅덩이
관찰 시기	4월~9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왕잠자리? 먹줄을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먹줄왕잠자리는 왕잠자리와 거의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닮았다. 유충은 더욱 흡사해서 엄밀히 비교해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대신 먹줄왕잠자리가 구별되는 것은 가슴에 있는 굵은 두 줄의 검은색 무늬 덕분이다. 이 두 줄의 굵직한 검은 줄 때문에 이름도 먹줄왕잠자리다.

사는 곳도 약간 다르다고 한다. 왕잠자리는 평지의 연못이나 저수지 등에서 주로 관찰되는 반면 먹줄왕잠자리는 산과 인접한 연못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해설
지침

몸 길이가 약 5cm 정도로, 정수리는 검고 작은 편이다. 눈이 돌출되지 않아 잠자리들 사이에서 구별되기가 쉽다.

애벌레 시절부터 대단해



왕잠자리의 애벌레는 적응력이 강해서 다른 잠자리와 달리 3급수에서도 살아간다.

작은 물벼룩 등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점점 크기가 커질수록 올챙이, 송사리와 같은 덩치 큰 물고기들을 잡아 먹는다. 물속의 폭군으로도 불리는 왕잠자리의 애벌레는 평상시엔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사정거리 안에 먹잇감이 보이면 놀라운 속도로 달려들어 송곳니를 찔러넣는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잠자리는 날렵하고 우아한 날갯짓을 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게 많이 먹기로 소문난 곤충이다. 하루에 자기 체중의 50%나 되는 먹이를 사냥하며, 평균 20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니 대식가가 아닐 수 없다. 서양에서는 잠자리를 모기 매(mosquito hawk)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분포 및
서식지

몸 길이는 48mm 내외이며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다. 등면에는 밝은 갈색 점무늬가 분포해 있으며 배 끝에 부속기가 달려 있다. 머리는 둥근 모양에 겹눈이 돌출되지 않았다. 얼굴은 노랑고 이마의 뒤쪽에 검은 T자 무늬가 나있다. 정수리는 검고 작다. 아랫입술 측면 끝에 크고 강한 가동구가 1개 있으며, 끝 부분이 날카롭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

성숙한 수컷 날개기슴은 녹갈색에 굵고 선명한 줄무늬가 나 있다. 상부속기는 비교적 길고 안쪽 가장자리가 넓으며 끝부분에 가시가 있다. 하부속기는 직사각형이며, 상부속기보다 작다.

유충의 몸은 갈색 또는 암갈색이고 얼룩무늬가 나 있다. 배마디 등면에 넓은 세로줄무늬가 쌍을 이룬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국내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가슴에 먹줄이 선명한 먹줄왕잠자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먹줄왕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rocothemis servilia

고추잠자리

온몸이 빨강게 변해서
더욱 아름다운 잠자리

과명	잠자리과
사는곳	저수지, 온수로, 물웅덩이, 산이나 계곡(성충)
관찰 시기	4월~10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고추처럼 새빨개요

고추잠자리는 미성숙한 시기에는 암수 모두 누르스름한 황색을 띠고 있다. 그러다 수컷의 경우 성숙해지면 얼굴에서 배까지 빨간색의 혼인색으로 변한다.

온몸이 빨강게 성숙한 모습을 초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데 다 고추가 익는 시기와도 맞물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름이다. 고추가 특산물인 지역에서는 이 고추잠자리를 상징 곤충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도 한다.

나 무지 예민하다고요

고추잠자리는 여느 잠자리에 비해 조그만 변화에도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영역 경계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잠자리들은 놀라서 훌쩍 날아 달아났다가도 다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와 앉는데 고추잠자리는 그대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4~10월까지 걸쳐 자생하는데, 눈이 다른 잠자리에 비해 좀 크며 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20~22mm다. 겹눈은 옆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다소 큰 편이다. 돌출된 겹눈의 뒷머리는 좁아지며 털이 많다. 아랫입술에는 갈색 반점이 나있고, 중편의 강모는 14~16쌍이다. 배의 등가시는 없고, 옆가시는 제 8~9마디에 있다.

암컷은 배끝으로 수면을 쳐서 산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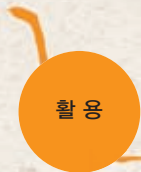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데, 유충은 수초가 많은 연못, 웅덩이, 습지 등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성충은 4~10월에 걸쳐 나타난다.



효 용

신장을 보호하고, 양기와 음기를 강화시키고, 정자 배출을 조절하는 남성의 호르몬 분비 촉진과 천식에 좋다.



활 용

채집하여 환이나 가루로 만들어 약재로 활용한다.



온몸이 혼인색으로 빨갭게 변한 고추잠자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고추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Orthetrum albistylum

밀잠자리

개체수 많은 만큼
짜짓기 경쟁도 치열해요

과명	잠자리과
사는곳	저수지, 연결수로, 물웅덩이, 온수로
관찰 시기	4월~10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내 사랑은 내가 지킨다

암컷 잠자리는 짜짓기가 끝나면 적당한 장소에 산란을 하는데 이때 수컷 잠자리가 산란을 하는 암컷 주위를 마치 경호원처럼 맴돌며 지킨다. 산란을 방해하면서 짜짓기를 시도하려는 다른 수컷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산란하는 암컷을 경호하는 잠자리는 개체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된장잠자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잠자리는 암컷이 산란을 마칠 때까지 짜짓기 하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 다른 수컷이 아예 짜짓기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도 한다.

해설 지침

산란할 때는 물 가까이에서 정지비행한 채로 배 끝을 수면에 치며 나는 게 특징이다.

왜 밀잠자리는 주변을 뱅뱅 돌까?

밀잠자리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잠자리 가운데 하나다. 날씨가 조금 덥다 싶으면 나타나서 가장 빨리 만나게 되는 잠자리 가운데 하나다.

수컷은 성숙하면 물가로 돌아와 맨 땅이나 모래가 쌓인 곳, 크고 작은 돌 위, 나무에 앉아 일정한 영역을 세력권으로 정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땅이라고 과시하는 것이다. 세력권이 확보되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 행동을 펼친다.

잠자리가 불완전변태라고요?

알에서 유충으로 그리고 바로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불완전변태라고 하는데, 잠자리도 불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이다. 여느 곤충들처럼 유충이 번데기로 변하는 과정이 없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수컷은 회청색 계통에 가슴은 회색에 흰 가루로 덮여 있으며 검은 줄무늬가 나 있다. 마디의 끝부분은 검고, 배 끝의 상부속기는 흰색이다.

암컷의 배는 담황색이며 희미한 1쌍의 줄무늬가 나 있다. 배 끝의 부속기는 흰색이다. 4~10월에 걸쳐 성충이 나타나고, 산란은 암컷이 물 가까이에서 정지비행하며 배 끝을 수면에 친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유충은 평지, 구릉지 등의 연못이나 습지에 서식한다.



밀잠자리 암컷이 산란하는 모습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밀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Sympetrum frequens

고추좀잠자리

여름에 산으로
피서 떠나는 잠자리

과명	잠자리과
사는곳	저수지, 연못, 물웅덩이
관찰 시기	6월~10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나도 잠자리라고요!

고추좀잠자리는 이름에 작다는 의미의 ‘좀’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느 잠자리에 비해 몸집이 작다. 수컷이 고추잠자리와 닮았다고 해서 고추좀잠자리가 되었다.

작은 잠자리지만 개체수가 가장 많이 관찰되며 연못, 하천은 물론 산에서도 발견될 만큼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잠자리다.

해설 지침

다른 잠자리보다 몸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조금 작으며 잔털보다는 굵은 털들이 많다. 몸에 줄무늬와 반점들이 많고 다리가 가는 게 특징이다.

더운 건 못 참아요

고추좀잠자리는 대표적인 산지이동형 잠자리다.

고추좀잠자리는 유충이 되면 물이 고인 평지의 웅덩이나 논, 습지 바닥에 서식한다. 이때는 물속의 작은 물고기부터 수생 곤충, 올챙이들을 잡아먹고 산다.

6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화한 뒤에는 우화한 곳을 떠나 산속으로 이동해 성장하는데 기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고추좀잠자리는 평지에서 30도 가까이 올라가면 활동을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이렇게 서식지의 기온에 영향을 받아 서늘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잠자리를 산지이동형 잠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산속에서 이 고추좀잠자리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가을이 되면 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한다. 서늘해지는 가을에 다시 평지의 물가로 내려와 짝짓기를 하고 산란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몸길이는 17~19mm이다. 머리 모양은 둥근 오각형으로, 길이와 폭은 각각 2.4mm와 5mm이다. 더듬이는 7마디로 머리 길이와 비슷하고 제 1, 2마디는 굵으며 2~3mm이다.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이며 뒷머리에 작고 짙은 갈색 반점이 많이 나 있다. 겹눈은 앞 모서리 방향으로 돌출되었고 크고 둥글다. 뒷머리 가장자리에 짧고 굵은 털들이 나있다. 앞가슴 윗면에 짙은 갈색 줄무늬가 있고, 날개가슴은 크고 두껍다. 다리는 가늘고 길며 넓적다리마디에 고리 모양의 갈색 반점이 2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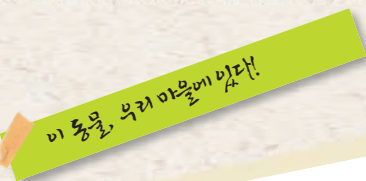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다.



신장을 보호하고 양기와 음기를 강화시키며, 정자 배출을 조절하는 남성의 호르몬 분비 촉진과 천식에 좋다. 채집하여 환이나 가루로 만들어 약재로 활용한다.



더위에 약한 고추좀잠자리



우리 마을 고추좀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 자 :

Sympetrum eroticum

두점박이좀잠자리

얼굴 이마에
커다란 점 두 개

과명	잠자리과
사는곳	논, 얇은 물웅덩이
관찰 시기	6월 초순~12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내 얼굴에 점 있어요

말 그대로 얼굴의 이마 부분에 뚜렷한 점이 두 개 박혀 있다고 해서 두점박이좀잠자리다.

두점박이좀잠자리의 수컷은 성숙하면 몸이 빨갛게 물든다. 이렇게 변하는 색깔을 혼인색이라고 하는데, 짝짓기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다.

연못이나 논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앉아 경계활동을 하면서 암컷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짝짓기를 한다.

자라면서 색깔이 변하는 잠자리들

잠자리는 성충이 되면 혼인색으로 색변이를 한다. 실잠자리과는 암컷이 색변이를 하고 잠자리과는 수컷이 색변이를 한다.

수컷이 색변이를 하는 대표적인 종이 밀잠자리속, 고추잠자리속, 좀잠자리속의 수컷들이다. 밀잠자리속은 검은 회색으로, 고추잠자리속은 몸 전체가 빨간색으로, 좀잠자리속은 배나 몸 전체가 빨간색으로 색변이를 한다.

해설 지침

제주도를 포함해 국내 대부분에 분포하며 밝은 물방울의 모양이다. 이마에 검은 점 2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흘쭉한 형태에 푸른빛을 띠는 갈색을 지녔다. 몸길이는 15~17mm, 머리 길이와 폭은 각각 2.2mm와 4.8mm이다. 머리는 오각형 형태로 겹눈이 둥글고 크며, 앞쪽 모서리 방향에 돌출되어 있다. 뒷머리의 중앙에 타원형 문양과 짧고 긴 강모가 가장자리에 나 있다. 아랫입술은 약 5mm이며, 측면에 짙은 반점이 여러 개 나 있다.

앞가슴과 날개가슴은 작은 편이며, 가장자리에 검은색 줄무늬가 길게 나 있다. 다리는 가늘고 긴데 넓적 다리마디 부분에 고리 모양의 갈색 반점이 2개 나 있다. 날개 주머니는 긴 타원형이며, 뒷날개주머니는 짧다. 배는 타원형으로 가늘고 길다. 등은 짙은색의 반점이 2~3개 나 있으며, 가장자리에 갈색의 말발 문양, 밝은 황색의 물방울 모양으로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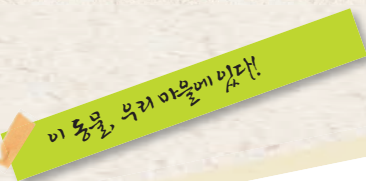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국내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얼굴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는 두점박이줄잠자리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두점박이줄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Pantala flavescens

된장잠자리

바다를 건너오는
모험심 강한 잠자리

과명	잠자리과
사는곳	평지의 개방된 저수지, 연못
관찰 시기	5월~9월(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토속적인 이름과 달리 고향은 바다 건너

된장잠자리는 몸 색깔이 된장처럼 누르스름한 색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에서는 마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잠자리라고 해서 마당잠자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친근하고 토속적인 이름을 가졌지만 된장잠자리의 고향은 적도와 열대지방이다. 추위에 약해 겨울 동안에는 국내에서 알과 유충이 월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된장잠자리는 바다를 건너 날아오는 것들이다. 이 잠자리들이 국내에서 다시 번식하면서 초가을까지 여러 차례 세대를 이어간다.

해설 지침

고추잠자리와 같이 추위에 약하여 서리가 내리면 자취를 감춘다. 배의 윗면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된장과 같은 색상을 가진 잠자리라 해서 된장잠자리, 마당에 많은 잠자리라고 해서 마당잠자리가 부른다.

된장잠자리는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된장잠자리를 작다고 알보면 안 된다. 된장잠자리는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할 만큼 대단한 잠자리다. 그런데 어떻게 된장잠자리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걸까? 비밀은 체형과 날개의 크기에 있다.

된장잠자리는 체형에 비해 뒷날개가 클 뿐만 아니라 몸은 가볍게 생겼으며 가슴속에 공기를 보관하는 기관이 더 넓어 장시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4~10월에 여러 번 나타나며 추위에 약하여 서리가 내리면 자취를 감춘다. 쉬지 않고 공중에 떠다녀 먹잇감인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때때로 억새 등에 붙어 쉬며, 놀라게 하면 갑자기 날아오른다. 몸 길이 23~25mm, 머리 길이 4mm, 머리폭 6mm, 더듬이 3mm, 뒷날개 길이 40mm, 배 길이 30mm 정도이다. 체색은 서식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몸이 대부분 된장과 비슷한 황갈색을 띤다. 배의 윗면에 검은 줄무늬가 나 있다. 머리는 오각형 형태로 반원형의 겹눈은 앞쪽 모서리 방향으로 돌출되었다. 뒷머리에는 작은 갈색 반점들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짧은 강모가 나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북쪽으로 분포가 확산된다.



바다를 건너오는 된장잠자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된장잠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Sympetrum pademontanum elatum

날개띠좀잠자리

잠자리계의
꽃미남은 바로 나!

과명	잠자리과
사는곳	구릉지, 낮은 산과 접한 평지 논
관찰 시기	6월~12월 초순(성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잠자리 중에서 내가 제일 예뻐

날개띠좀잠자리는 날개 안쪽에 띠처럼 무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날개띠좀잠자리는 색시잠자리라고도 불린다. 다 자란 수컷이 혼인색을 띠면 몸 전체가 빨갭게 변하면서 날개의 띠도 더욱 아름답게 보여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가 화장을 한 것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그래서인지 가을에 하늘을 수놓는 날개띠좀잠자리의 무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잠자리로 머리 모양은 오각형이며 가슴 옆면에 줄 무늬가 있는 잠자리다. 날개의 무늬색이 붉은색은 수컷, 흰색은 암컷으로 쉬운 구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잠자리는 왜 발레를 할까?

잠자리가 앉아 있는 모습 중에서 특이하게 두 쌍의 날개를 활짝 펴고 배를 공중으로 쳐들고 있는 걸 볼 때가 있다. 마치 발레리나가 우아하게 동작을 취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것은 잠자리가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몸에 햇볕이 닿는 면적을 줄이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를 향해 배를 곧추 세우게 되는 것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의 길이는 16~18mm 정도로, 머리 길이는 2.3mm 배 길이는 24~28mm, 뒷날개 길이는 27mm정도이다. 머리 모양은 오각형으로 폭이 넓은 편이다. 성숙한 수컷은 가슴과 배가 붉은색, 암컷은 갈색을 띤 노란색이다. 가슴 옆면에 흔적이 남은 것 같은 줄무늬가 있다. 이 가두리 무늬는 수컷은 붉은색, 암컷은 흰색이다. 가두리 무늬 바깥 부분의 날개 끝은 무늬가 없다. 배는 아래가 넓은 타원형이다.

유숙이 느린 하천과 습지에서 7월부터 출현하며, 11월까지 관찰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우화한 개체는 부근의 풀숲에서 성장을 한다.

날개의 끝부분에 갈색의 띠 모양이 있으며, 미성숙시 암수 모두 연한 갈색이나 성숙한 수컷은 몸 전체가 빨갛게 물든다. 암컷은 배의 8, 9마디에 진한 흑갈색의 점무늬가 있는데 수컷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수컷은 풀 가지에 여러 마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관찰되므로 영역 경계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날개띠줄잡자리 수컷(좌)과 배 9마디에 점이 있는 암컷(우)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날개띠줄잡자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Notonecta triguttata

송장헤엄치게

이름처럼 별난 생김새
더욱 별난 수영 솜씨

과명	송장헤엄치게과
사는곳	소규모 저수지, 물웅덩이, 온수로, 휴경논
체장 (성충)	13.2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배영은 내가 금메달감!

송장헤엄치게라는 이름은 물 위를 독특하게 헤엄치는 모습 때문에 얻게 되었다고 한다. 송장헤엄치게는 배를 뒤집어 하늘을 보면서 헤엄을 치는데, 배를 위로 향한 채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수영법 때문에 서양에서는 배영을 하는 수영선수라는 의미의 백 스위머(back swimmer)라고 부른다. 그래도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영국에서는 보우트맨(boatma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송장헤엄치게는 배영뿐만 아니라 똑바로 하는 수영도 잘한다고 한다.

해설 지침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곤충류의 체액을 빨아 먹으며 자라는 동물로, 원통형의 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털이 달린 다리도 헤엄치며 살아간다.

송장헤엄치게의 위장술



몸이 모두 노출되는 물 위를 떠다니는데 무슨 위장술을 발휘하는 걸까? 송장헤엄치게는 몸의 색깔로 착시를 일으키는 위장술을 가지고 있다. 송장헤엄치게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등쪽은 어두운 물색이거나 진흙 색깔과 비슷하다. 반대로 아래서 올려다보면 배쪽은 빛이 들어오는 물 표면의 색깔과 비슷하다. 그래서 물 위에서든, 아래서든 자신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자라도 이와 비슷한 위장술을 가지고 있다.

관찰할 때는 주둥이 조심!



물 바로 아래서 헤엄치는 송장헤엄치게는 소금쟁이 같은 물 위의 생물을 잡아먹는다. 앞다리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일단 잡으면 쉽게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주둥이가 뾰족해 먹이를 찌르는 데 요긴하다. 송장헤엄치게를 관찰할 때는 이렇게 뾰족한 주둥이를 조심해야 한다. 너무 가까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둥이에 쏠릴 수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분포 및
서식지

몸은 원통형으로 긴 모양에 길이는 11~14mm로, 황갈색이나 회갈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를 가지며 벨벳 모양 광택이 난다. 등면은 지붕 모양으로 세로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다. 머리는 가슴보다 좁고 가장자리의 앞면이 뿔뿔하고 광택이 있다. 앞가슴판은 앞 가장자리가 머리 폭보다 약간 좁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능선을 이룬다. 겹눈은 크게 발달하였다. 더듬이는 4마디이고 제2마디가 가장 굵다. 앞날개는 지붕모양으로 회합부가 높으며, 중앙부 주변은 현저한 황갈색 무늬가 있다. 뒷다리는 길게 발달하고, 종아리마디와 발목마디에 긴 털이 뽁뽁하게 나 헤엄다리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하천, 저수지 등 고요한 물속에 서식한다.



수영 실력뿐만 아니라 사냥 솜씨도 일품인 송장헤엄치게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송장헤엄치게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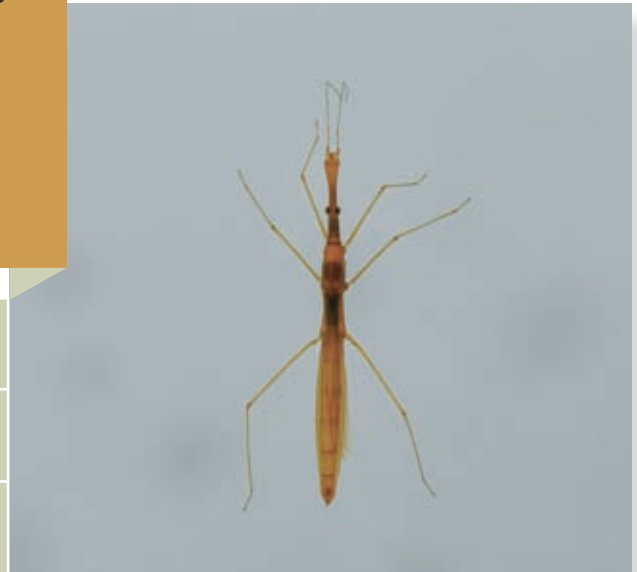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ydrometra procera

애실소금쟁이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곤충

과명	실소금쟁이과
사는곳	수초가 많은 저수지, 논, 논둑, 논둑변부
체장 (성충)	9.5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앞뒤가 다른 소금쟁이

은백색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름과 달리 소금쟁이의 앞면은 어두운 갈색이고 아랫면은 검은색이다. 배의 정중선 쪽에만 검은색인 경우가 많다.

수컷의 앞뒤 가장자리 중간 양쪽에는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다. 날개는 긴 형과 짧은 형이 있는데, 긴 형의 반박지날개는 어두운 갈색이고, 반면은 연한 색 또는 흰색을 띠기도 한다.

해설 지침

수초가 많은 곳에 서식하며, 몸이 가늘고 뒤쪽을 향한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는 게 특징이다.

애실소금쟁이는 어떻게 물 위를 떠다닐까?



애실소금쟁이는 평생을 물 위에 떠서 사는 반수서성으로 연못이나 늪, 냇물 등지에서 산다.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40g밖에 안 되는 가벼운 몸과 몸에서 분비된 기름이 다리의 잔털에 잔뜩 묻어 있어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바닥에 미세한 돌기들이 나 있어 물의 표면장력에 의해 물에 젖지 않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애실소금쟁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물의 표면장력이 줄어들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라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성충의 머리부터 배 끝까지 길이는 9.5mm 내외이다.

몸은 가늘고 길며 체색은 주로 흑갈색과 담색이다. 겹눈은 머리 앞쪽에서 2/3보다 약간 전방에 위치한다.

수컷 제 7배마디에는 장모가 나지 않았고, 뒤쪽을 향한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한 쌍 나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수초가 많은 저수지, 농수로, 논, 논변부 등에 서식한다.



물 위에서 사는 애실소금쟁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애실소금쟁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Laccophilus difficilis

깨알물방개

작아도 너무 작은
초소형 물방개

과명	물방개과
사는곳	구렁지, 저수지, 연못, 논, 물웅덩이, 온수로, 휴경논
체장 (성충)	4.5~5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정말 깨알만큼 작을까?

물방개는 수서곤충 중에서 꽤 큰 편에 속하지만 깨알 물방개는 예외다. 다 자라봐야 5mm 내외에 불과하다.

깨알이라고 하면 깨의 낱알을 말하는데 물방개가 깨한 알만큼이나 작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특이하게 등에 깨알 같은 반점들이 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

해설 지침

크기가 5mm 내외이며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띄는 잠자리과다. 주로 수온이 높은 곳에 살며, 몸통과 다리 사이의 공간은 물의 표면장력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여 호흡에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공기방울을 땡겨 다녀요



깨알물방개는 몸통과 다리 사이의 좁은 틈에다 공기 방울을 담아서 다닌다. 물의 표면장력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이 공기는 깨알 물방개가 호흡하는 데 사용한다.

딱지날개와 배의 등판 사이에도 공기를 담아둘 수 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성충의 머리부터 배끝까지 길이는 4.5~5mm 내외이다. 앞머리와 앞가슴등판은 밝은 황색이며, 수염은 당황색이고 끝은 암갈색이다. 촉각은 매우 기늘다. 딱지날개는 황색이나 황갈색이며, 황갈색과 암황갈색 얼룩무늬가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주서식지는 구릉지, 저수지, 연못, 논, 물웅덩이, 온수로 등이다.

효 용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비뇨기관에 유익한 성질을 가졌다.

채집하여 뜨거운 물에 끓인 다음 햇볕이나 불을 이용하여 말려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알물방개의 수영 모습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네!

우리 마을 개알물방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yphidrus japonicus

알물방개

얼룩무늬 뽀내는
멋쟁이 물방개

과명	물방개과
사는곳	평지의 저수지, 연못, 습지, 논, 담수 휴경논
체장 (성충)	4~4.9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얼룩무늬를 가진 물방개

알물방개는 특이하게 등에 점무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한 황갈색의 딱지날개(굳은날개)에 검은 점들이 촘촘히 모여 있는 것 같은 얼룩무늬가 있는데 개체에 따라 무늬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고 한다. 날개의 중앙에는 1개의 세로줄이 있다.

해설 지침

있다.

개체군이 많이 감소한 물속 환경의 지표생물로, 생태적 가치가 큰 곤충이다. 등판이 적색으로 흑색 줄무늬를 가지고

누가 누가 더 크나?



알물방개는 이름처럼 물방개 중에서 가장 작은 편이다. 깨알물방개와 크기가 비슷하다. 국내에 서식하는 물방개는 50여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물방개들을 큰 순서로 한 줄로 세우면 이렇다.

물방개(30~40mm) > 애기물방개(11.6mm) > 흑외줄물방개(6~7.4mm) > 깨알물방개(4.5~5mm) > 알물방개(4~4.9mm)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개체군의 감소와 물환경의 지표생물서 생태적 가치가 크다. 몸은 4~5mm길이에, 넓은 타원형이다. 머리와 앞가슴 등판은 적갈색이다.

분포 및 서식지

딱지날개는 황색이며 회합선을 중심으로 흑색의 긴 무늬가 있는데 중앙에서 폭이 넓어지며 사각형을 나타내고, 각 모서리에 점무늬가 나 있다. 그 양측에 세로로 긴 점무늬, 아래쪽에 둥근 점무늬가 나 있다.

효 용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연못이나 늪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서식한다.

활 용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뇨기관을 강화하는 효용이 있다.

소금을 뿌려 찌거나 익혀 먹는다.



알물방개의 유영 모습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알물방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Nebrioporus hostilis

흑외줄물방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물방개

과명	물방개과
사는곳	물이 얇은 저수지 수변, 휴경논, 논에 물이 솟는 온수로
체장 (성충)	6~7.4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물방개 중에서 가장 많이 보여요

흑외줄물방개는 황색 등쪽에 검은색 줄 무늬가 있는데 무늬가 없는 부분은 바탕색인 황색이 빈칸처럼 드러나 있다. 물방개 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종이라고 한다.

해설 지침

체형은 다른 물방개처럼 타원형이며 길이가 약간 큰 7mm 내외다. 다소 오염된 하류지에서 서식한다.

물방개는 미래의 식량



유엔에서 벌레 식품의 식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억 명의 사람들이 벌레를 식용하고 있는데, 개미, 메뚜기, 귀뚜라미, 각종 애벌레, 물방개 등 종류도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물방개는 애벌레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종류라고 한다. 물방개는 쇠고기와 비교해봐도 1그램 당 단백질 양은 더 높고 지방은 더 낮다고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성충의 머리부터 배 끝까지 길이는 6.0~7.4mm 내외이다. 체형은 타원형이며, 체색은 금속 광택이 강하게 난다. 머리 및 앞가슴은 흑색, 머리에 적갈색 얼룩무늬가 2개 나 있다. 촉각 및 수염은 황갈색이며, 딱지날개는 적갈색으로 크기가 작다.

배면은 흑색이며 배의 말단부 4마디는 짙은 황갈색이다. 유충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고, 머리 앞쪽이 돌출되어 옆이 굴곡진다.

분포 및 서식지

물이 얇은 저수지, 휴경논, 온수로 등 다소 오염된 하류지에서 서식한다.



개체수가 많은 흑외줄물방개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흑외줄물방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hantus suturalis

애기물방개

이름과 달리

성격은 난폭해

과명	물방개과
사는곳	저수지, 물웅덩이, 휴경논, 논
체장 (성충)	11.6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식성 좋은 물속의 청소부

몸길이는 12mm 정도에 불과하지만 작은 물고기도 잡아 먹을 만큼 포식성이 강한 물방개다.

식성이 워낙 좋아 동물의 사체를 깨끗하게 먹어치우는데 그래서 물속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애기물방개는 이름과 달리 동족포식까지 하는 생태계의 강자다.

해설 지침

몸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얼룩무늬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물방개다.

재미있는 암수 구별법



애기물방개의 암수구별법이 있다. 수컷의 앞다리 발목 마디에는 암컷에게는 없는 빨판이 있다. 이것은 수컷이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이 달아나지 않게 꼭 움켜쥐기 위기 위해 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11.5mm로 중소형이다. 몸은 볼록한 긴 타원형에 광택이 나는 황갈색이다. 머리도 황갈색이며 뒷머리와 겹눈사이에 흑색 무늬가 있다. 앞가슴등판은 황갈색이며 흑갈색의 가로 얼룩무늬가 중앙에 있다. 딱지날개는 황갈색, 가장자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위에 흑색 과립 모양 얼룩점이 산재해 있다. 배면은 흑색이다.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의 물웅덩이, 못, 논, 하천 등 고인 물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물방개 중 하나다.

효용

비뇨기관 강화 및 신장기능 강화에 효용이 있다.



동족포식까지 하는 애기물방개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애기물방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ybister japonicus

물방개

물고기도 무서워서 피하는
대형 물방개

과명	물방개과
사는곳	저수지, 연못, 물웅덩이, 저수지
체장 (성충)	30~40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는다고?

우리나라 물방개 중 가장 크기가 큰 만큼 먹이 활동도 대단하다. 물방개는 성충이나 애벌레 모두 육식성인데 성충이 되면 실지렁이, 가재와 같은 물속의 작은 동물은 물론이고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까지 서슴없이 잡아먹는다.

게다가 생김새가 수영하기에 좋은 유선형이라 드라이빙 비틀이라 불리는데 그만큼 사냥 실력이 뛰어나다.

아가미가 없어도 괜찮아



물방개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기호흡을 해야 한다. 물방개가 공기호흡을 하는 방법은 꿈무늬 끝 두 개의 숨관을 물 밖에 내놓은 다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빨아들인 공기를 날개와 배 사이에 저장해서 쓴다.

또 밖에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날개 밑에 있는 주머니에도 공기를 채운다. 그러면 그 공기가 숨구멍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방개를 관찰할 때 엉덩이 끝에서 거품 모양이 나오면 산소를 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기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새 공기를 마시기 위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 전국 저수지, 연못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 서식하는 물방개 중 가장 크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타원형에 길이는 35~40mm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방개 중 가장 크다. 몸의 등은 녹색을 띤 검은색, 배는 황갈색이다. 광택은 수컷에게 나타난다. 앞머리 양쪽에 오목하게 파인 부위가 있다.

앞가슴등판, 이마방패, 앞머리, 딱지날개 언저리에 황색 줄무늬가 있다. 과거 놀이용 애완곤충으로 물에서 경주를 시키곤 했으며, 학술연구 차원에서도 표본 목적으로 포획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종이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물웅덩이, 연못, 저수지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개체수의 감소로 관찰이 어렵다.



사냥 실력이 뛰어난 물방개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물방개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elophorus (Hydrobaticus) striatus

좀물땡땡이

육식에서 초식, 다시 육식하는
변덕스런 식성 가진 곤충

과명	물땡땡이과
사는곳	저수지, 논, 휴경논, 농수로, 운수로
체장 (성충)	4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먹이가 그때그때 달라요!

물땡땡이는 물방개랑 닮았다고 해서 예전에는 보리방개라고도 많이 불렀다. 옛날에는 물방개를 식용으로 구워 먹기도 했는데, 물방개와 달리 물땡땡이는 구웠을 때 맛이 없다고 해서 똥방개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맛이 없는 좀물땡땡이는 무얼 먹고 살까?

좀물땡땡이는 애벌레 때와 성충 때 심지어 알 낳을 즈음에 식성이 모두 달라진다. 애벌레 때엔 다른 곤충이나 올챙이를 잡아먹는 육식을 하고, 성충은 주로 수초를 먹는 초식을 하는데 알 낳을 즈음에는 다시 육식을 한다.

나처럼 숨 쉬어 봐요!



우리가 좀물땡땡이의 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입수염이고 진짜 더듬이는 머리 아래쪽에 딱 붙어 있어서 헤엄칠 때는 잘 볼 수 없다고 한다.

좀물땡땡이는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 재빨리 공기를 가슴 쪽으로 모으는데 목부터 가슴까지 미세한 털이 있어 공기를 잡아두기 좋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좀물땡땡이는 몸에 어떻게 공기를 끌어오는 걸까?

더듬이로 물과 공기 사이의 표면을 깨트려 몸 쪽으로 공기를 끌어들이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해설
지침

따뜻한 물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물땡땡이로 크기는 4mm 정도 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성충의 머리부터 배 끝까지 길이는 4mm이며, 체형은 난형이다. 머리꼭대기는 넓은 흑색 바탕에 앞머리 쪽을 향한 넓은 흑색줄이 있다. 딱지 날개는 10줄의 점각열에 작은 점각이 조밀하게 나 있다.

등면은 암갈색, 등판 테두리는 밝은 황갈색이다. 날개 밑 중앙에 자리한 어깨 부분에는 한 개의 작은 흑색 얼룩무늬가 나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저수지, 논, 농수로, 온수로 등에 서식한다.



공기를 달고 다니는 잠물뽕뽕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잠물뽕뽕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Sternolophus rufipes

애물뽕뽕이

산란할 때
아기방 만들어요

과명	물뽕뽕이과
사는곳	저수지, 물웅덩이, 휴경논
체장 (성충)	10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아무데서나 잘 살아요

애물뽕뽕이는 저수지 같은 물에서도 생활하지만 흙 속에서도 생활한다. 밤에는 불빛을 쫓아 날아들기도 한다.

수중식물인 물풀과 같은 식물을 갉아먹으며 농수로, 연못, 논 등에서 서식한다.

아기방을 만들어요



애물뽕뽕이는 논에도 서식하는데 논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풀잎을 엮는다. 그 다음에 항문에서 실크를 뽑아 산란방을 만든다.

버들붕어 수컷도 이렇게 알을 낳기 전에 아기방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

해설 지침

저수지 및 논경지에서 서식하며 날개 끝부분이 붉은색을 띠고 몸에 광택이 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성충의 머리부터 배 끝까지 길이는 10mm 내외이고 몸통은 광택이 나는 암청색이다. 머리 꼭대기 부분에 봉선이 있으며, 앞머리에 8자형 점각열이 있다. 다리는 갈색이고 더듬이는 갈색이었다가 끝으로 갈수록 짙어진다. 딱지날개는 4개의 줄무늬가 있으며, 날개 끝부분의 가두리는 붉은 갈색이다.



남부지방에 분포하며, 저수지, 물웅덩이, 휴경논 등에 서식한다.



애물뽕뽕이의 수영 모습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애물뽕뽕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mphibiops mater

알물땡땡이

뒤뚱뒤뚱

건뚫이 헤엄쳐요

과명	알물땡땡이과
사는곳	수심이 얇고 수초가 무성한 저수지
체장 (성충)	3.6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알물땡땡이가 사는 법

알물땡땡이도 물방개처럼 아가미가 없으므로 물속에서 호흡할 수 없다. 그래서 몸속에 공기를 저장한 다음 그것으로 호흡을 한다.

주로 수초에 알주머니를 만들어서 산란하는데 부화하면 애벌레는 자신이 태어난 주머니를 빠져나온다. 유충 시기에는 각다귀, 갈따구 애벌레나 실지렁이를 먹는 육식곤충이지만, 어른벌레가 되면 초식성으로 변해 수초를 주로 먹는다.

해설
지침

다슬기의 새끼처럼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배를 위쪽으로 하여 헤엄치며 서식한다.

물땡땡이와 물방개



물땡땡이는 물방개와 많이 닮았다. 그러나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태에서도 다른 점이 있다. 물방개는 육식을 하는 반면 물땡땡이는 수초를 주로 먹으며 초식을 한다.

물방개가 좌우의 다리를 함께 움직여서 크게 물을 저어 헤엄치는 반면에 물땡땡이는 마치 걸어가듯이 좌우의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며 헤엄을 친다.

물방개가 뒷날개 쪽에 공기방울을 달고 다니는 것에 비해 물땡땡이는 복부 아래쪽에 공기방울을 가지고 다니며 호흡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암수의 명확한 차이가 없다. 성충의 머리부터 배 끝까지 길이는 3.6mm 내외이다. 원형의 체형에 갈색을 띤다. 윗날개에는 검은색 세모꼴 무늬가 1쌍 있으며, 8줄의 줄무늬 무늬가 있으나 기부에서 벌어진다. 복안은 상하로 나뉘어져 있다. 배를 위쪽으로 하여 헤엄친다.

분포 및 서식지

주서식지는 저수지이며, 하천수가 유입되는 쪽의 수심이 얇은 구역, 수초가 무성한 곳, 물웅덩이 등에서 서식한다.



걸어가듯이 수영하는 알물뽕뽕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우리 마을 알물뽕뽕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eltodytes sinensis

중국물진드기

검은 반점으로
구별되는 물진드기

과명	물진드기과
사는곳	구릉지, 저수지, 연못, 논, 물웅덩이, 온수로, 휴경지
체장 (성충)	3.6~4mm 내외



이야기로 알아보기

점으로 물진드기와 구별해요

중국물진드기는 물진드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바로 물진드기에는 없는 한 쌍의 점들이다.

중국물진드기의 등판 뒤쪽 가장자리에 검은 점이 양쪽에 있다. 그리고 겹눈 사이에도 작고 검은 점이 두 개 있는데 물진드기는 그런 점이 없다.

유충과 성충 모두 수중생활을 하고 불빛에도 민감해서 밝은 등불로 유인하기도 한다.

영화배우의 이름을 가진 물진드기도 있다고?



중남미에서 지금까지 가장 깊은 수심(70m)에 사는 새로운 종의 물진드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물진드기의 이름은 제니퍼 로페즈다.

제니퍼 로페즈는 푸에르토리코의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이자 영화배우다. 물진드기를 발견한 연구진이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니퍼 로페즈의 음악을 많이 들었고, 즐거움을 느껴 감사의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설 지침

물진드기과로 동그란 계란형. 머리부터 흑색반점이 있으며, 뭉뚝한 이빨 모양이 넓게 확장되어 육안으로도 보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3.4~3.8mm 정도의 길이에 계란형, 연한 갈색에 검은 점각이 많이 나 있다. 머리 중앙부터 겹눈의 뒤쪽까지 1쌍의 긴 흑색 반점이 있다. 뒷다리 밑마디판의 끝은 뾰족한 이빨 모양이며, 넓게 확장되어 배의 대부분 마디를 덮어 마지막 마디만 보인다. 깔따구의 알, 실지렁이 등을 먹는다.

분포 및 서식지

대부분 고여 있는 물과 농수로 등에서 서식한다.



등에 반점이 있는 중국물진드기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중국물진드기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ynobius leechii

도롱뇽

바위에 알 낳으면 큰 장마
물속에 낳으면 가뭄

과명	도롱뇽과
사는곳	산골짜기, 물가, 개울가, 박우물
먹이	지렁이, 거미, 작은 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도롱뇽 알이 기상통보관?

도롱뇽은 뱀의 습성과 비슷하게 하천의 습지에 산란하며 집단으로 번식하기도 한다. 알집은 바나나 형태로 2열로 배열되어 있는데 1개 알집에 보통 30~75개 알이 들어 있으며, 1쌍의 알주머니에 100개 정도 알이 들어 있다.

그런데 옛날엔 도롱뇽 알을 보고 그해 기상을 예측해 농사에 이용했다고 한다. 도롱뇽이 돌이나 나뭇가지에 튼튼하게 알을 붙여놓으면 그 해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큰 장마에 대비하기도 하고, 물속에 낳으면 가뭄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물막이 공사를 했다고 한다.

해설 지침

어릴 때는 걸아가미로 호흡을 하지만 성장하면 폐호흡을 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으며, 번식력이 강해 한 번에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도롱뇽의 기막힌 사냥법



양서류인 도롱뇽은 혀를 이용해 곤충을 낚아채는 카멜레온과 같은 방법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 도롱뇽의 혀는 그야말로 과녁을 향해 나아가는 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튀어나가 먹잇감을 낚아챈다.

도롱뇽의 혀는 끝이 끈끈해서 혀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곤충을 붙여두는 역할을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알집은 바나나 형태이며 2열로 배열되어 있다. 1개 알집에 보통 30~75개 알이 들어 있는데, 1쌍의 알주머니에 100개 정도 알이 들어 있다. 유생 때는 곁아가미가 발달하지만 성장하여 변태하면 폐호흡을 한다. 서개구치열은 V자 형으로 평균 31~36개의 서개구치를 가지며, 미골수는 지역에 따라 26~30개까지 나타난다. 몸통은 편평하고 피부는 매끄럽다. 수컷의 몸길이는 8~12cm, 암컷의 몸길이는 그보다 작은 7~9cm 정도이다. 몸은 대부분 갈색 바탕에 암갈색 둥근 무늬가 산재되어 있다. 배쪽은 연한 갈색 무늬가 넓게 산재되어 있다. 머리는 편평하고, 눈은 돌출형, 주둥이 끝은 둥근 편이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와 일부 도서, 반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내륙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주변의 저수지나 물웅덩이 등에서도 흔하게 관찰되며, 3~5월인 초봄에 주로 산지의 논두렁이나 하천의 습지에 산란하는데 집단으로 번식하기도 한다.

효 용

경칩이 다가오는 시기에 도롱뇽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 부위가 좋아지거나 몸을 보한다는 속설이 전해져 온다.



도롱뇽 알과 도롱뇽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도롱뇽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무당개구리

새들도 껴름칙해서
먹을까, 말까?

과명	무당개구리과
사는곳	산골짜기, 산기슭 무논
먹이	벌, 나비, 딱정벌레 무리



이야기로 알아보기

새도 안 잡아먹는 술수쟁이 개구리

무당개구리는 세 가지 자기 보호(방어) 방법이 있다. 얼룩덜룩한 무당개구리의 등은 환경에 맞춰 색깔이 변한다. 바위 근처로 가면 검게, 나뭇잎 가까이에서는 갈색으로 변하는 식이다.

두 번째 자기 보호 방법은 죽은 척하는 것이다. 건드리면 벌러덩 자빠져 벌건 배를 드러내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어느새 달아나버린다.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는 독을 내뿜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등쪽에서 흰 거품을 계속 뿜어대는데 이 액체로 된 거품에 독이 들어 있다. 이렇게 독을 내뿜으면 천적인 새들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해설 지침

몸의 바탕색이 여러 색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배의 표면이 투명해 내장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당처럼 화려한 옷 입고



곤충이든 동물이든 이름에 무당이 들어가면 몸의 무늬가 현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당벌레의 등이나 무당거미의 몸도 원색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굶판에서 굶을 하는 무당이 화려하고 원색적인 옷을 입는 데서 연상된 것으로 보인다. 무당개구리도 마찬가지다. 무당개구리는 배를 뒤집어보면 짙은 붉은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얼룩덜룩하게 나 있어 무당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하다. 그래서 무당개구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붉은 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마련이다. 무당개구리가 연상시키는 것은 무당만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이름으로 고추개구리, 귀신개구리, 독개구리라 불리며, 북한에서는 비단개구리라고도 부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크기는 40~50mm이며, 몸의 등 피부 바탕색은 암녹색, 청녹색, 갈색이며 불규칙한 흑색 얼룩무늬와 크고 작은 융기가 흩어져 있다. 배는 붉은색 바탕에 흑색 불규칙한 얼룩덜룩한 무늬가 산재되어 있다. 눈은 크고 눈동자는 하트 모양 또는 삼각형 모양이다.

분포 및 서식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간이나 논 습지에서 주로 발견되나, 서식지 개발 및 이상 기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효 용

만주, 중국의 북쪽에서는 보신용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과 배의 색깔이 확연히 대비되는 무당개구리

이 동물을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무당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Hyla japonica

청개구리

나보다 크게 우는 개구리
나와 봐!

과명	청개구리과
사는곳	산기슭, 밭
먹이	딱정벌레, 파리, 벌, 잠자리



이야기로 알아보기

아이들에게 효도 가르치는 국민 설화의 모델

청개구리 설화는 초등학교 교재에도 등장할 만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엄마 말을 안 듣고 항상 거꾸로 행동하던 개구리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개구리 엄마가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었다. 엄마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산속에다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 냇가에다 묻을까 봐 거꾸로 말했다. 그때야 뉘우친 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의 유언을 끝이곧대로 들어 엄마를 냇가에 묻었다.

그 뒤로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냇가에 나와 울었다고 한다. 청개구리 같다고 하면 말을 안 듣거나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쓴다.

해설 지침

암컷이 수컷보다 체구가 큰 것이 특징이며, 산란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더 크게 운다. 전국 농지에 주로 분포.

청개구리가 밤새 우는 이유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개구리 중에서 몸은 가장 작지만 울음소리는 가장 우렁찬 개구리다. 비온 뒤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청개구리다.

겨울잠에서 깬 청개구리는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 4월부터 장마철이 다 지나도록 울고 또 운다.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목 앞부분에 있어 제 몸보다 더 크게 부풀려 울음소리를 낸다. 그렇게 청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새 요란했다 그치는 새벽녘이나 아침에 눈독 주변을 보면 청개구리 알들이 수북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청개구리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울음소리를 높여 밤사이 짝짓기를 하는 것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비교적 소형으로 크기는 20~45mm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체구가 크다. 일반적으로 등은 녹색, 배면은 흰색이다. 배면이나 다리에 흑색에 가까운 얼룩무늬가 나타난다.

수컷은 목과 입 사이의 울음주머니 부위 피부가 늘어졌고 흑색 반점 무늬가 뚜렷한 점이 암컷과 차이점이다. 5~7월경 논이나 고인 물에 작은 알덩어리를 산란한다. 산란기나 습도가 높은 날 큰 소리로 운다. 유생은 등이 진한 녹색이나 하늘색이며 배는 회색이다. 양 눈은 측면에 있고, 분수공은 몸 왼쪽 측면에 비스듬히 있다. 꼬리 부분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 거제도 등을 포함한 전국 농지에 주로 분포한다. 산지나 평지에 자란 풀이나 나무 위에서 산다.

효 용

부종을 예방하고 체기를 진정시키며, 분만의 진통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출혈의 경우, 청개구리를 달여서 먹으면 효용이 있다.



나뭇잎에 앉아 울고 있는 청개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청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na coreana

한국산개구리

대한민국 국적 되찾은
토종 산개구리

과명	개구리과
사는곳	산기슭, 무논
먹이	작은 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알고 보니 토종이었네

한국을 말하는 코리어나(coreana)라는 학명에서도 보듯이 한국산개구리는 한국의 고유종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개구리다. 그런데 한국산개구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르산개구리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초에 애기개구리라고 <조선량서파충류지>에 기재되었지만 남한에서는 계속 아무르산개구리라고 불리었다. 하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아무르산개구리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이루어져 이제는 한국산개구리라고 불리고 있다.

해설 지침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산개구리 중 몸집이 가장 작다. 물갈퀴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개구리에 속한다. 산란 시기에 배 위에 붉은색 점 무늬가 나타나며 번식기부터 월동 전까지 이동하지 않고 습지에서 생활한다.

작으니까 더 부지런해

한국산개구리는 산개구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 몸통은 갈색이고 배는 하얀색인데, 짝짓기철이 되면 암컷의 배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집단으로 모여 사는데 북방산개구리보다 더 낮은 곳에 산다. 가장 먼저 겨울잠에서 깨어 알을 낳는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산개구리류 중 가장 작으며 크기는 60~80mm이다. 몸은 진한 갈색이나 옅은 황갈색, 배는 누런 우윳빛을 띤다. 고막에서 코 밑까지 검은 줄이 나 있고, 주둥이 윗부분을 따라 흰색의 줄무늬가 둘러져 있다. 뒷다리에 흑색 띠 모양의 무늬가 여러 개다. 물갈퀴가 거의 발달하지 않고, 입부터 목까지 몸의 측면에 황금색 줄이 나 있다.

번식기에 수컷의 복부 쪽은 밝은 흰색이, 암컷은 주황색과 붉은색이 함께 나타난다. 산란 시기에 배 위에 붉은색 점 무늬가 나타난다. 산란기는 5월~6월이며, 번식 시기부터 월동 전까지는 이동하지 않고 습지에 계속 출현한다. 물이 고인 농지, 물 흐름이 적은 웅덩이 등에 다수의 알로 구성된 알덩어리를 낳는다. 알의 수는 200~500개이고 알집은 둥글거나 직사각형이다. 올챙이는 약 30mm까지 성장하며 4월 이후 변태한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농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아무르산개구리에서 이름 바뀐 한국산개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한국산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na dybowskii

북방산개구리

야생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개구리

과명	개구리과
사는곳	산골짜기, 산기슭, 무논
먹이	날벌레, 개미, 지렁이, 거미



이야기로 알아보기

산개구리 중 가장 커요!

주로 산자락의 냇물에 서식하는 산개구리는 북방산개구리를 포함해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이렇게 셋인데, 이 중에서 북방산개구리가 크기가 가장 크다. 셋을 통칭해서 산개구리라고 하지만 각각 엄연히 다른 개구리이므로 구별해서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해설 지침

전국 산지 주변에 널리 서식하며 산개구리류 중 가장 큰 대형종이다. 뚜렷한 흑색 얼룩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며, 다른 한국산개구리와 구별된다. 체구가 작지만 앞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북방산개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북방산개구리는 식용 개구리로 많이 알려져 있어 예전에는 봄철이 되면 북방산개구리를 잡으러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봄철에 나오는 북방산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먹이를 모두 소화시켜 내장이 텅 비어 있는데다 암컷은 알이 꽉 차 있어 밀렵꾼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씨를 말리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면서 지금은 야생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북방산개구리에게는 밀렵도 큰 위협이지만,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커서 개구리로 부화한 후 동사하는 사례가 많을 만큼 산란일이 앞당겨지고 있다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 길이는 4.5cm~8.5cm이다. 등쪽의 색은 황토색부터 적갈색까지 다양하다. 복부와 턱 밑의 바탕색이 우윳빛 흰색이다. 뚜렷한 흑색 얼룩무늬가 눈 뒤쪽까지 나 있고, 눈 앞쪽에는 없어서 한국산개구리와 구별된다.

암컷은 번식 시기에 턱밑과 복부에 붉은색 얼룩무늬들이 나타난다. 수컷은 턱밑에 울음주머니가 있으며, 암컷에 비해 체구는 작으나 앞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번식기가 되면 앞다리의 첫 번째 발가락에 육괴(肉塊)가 나타난다. 유생의 양 눈은 등에 있으며 분수공은 몸통 측면에 있고 꼬리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전국의 산지 주변에 널리 서식한다. 산개구리류 중 가장 대형종이다.



산개구리 중에서 가장 큰 북방산개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북방산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

개구리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개구리

과명	개구리과
사는곳	논, 강, 웅덩이
먹이	메뚜기, 잠자리, 나방, 거미, 벼멸구,



이야기로 알아보기

가난한 시절의 단백질 공급원

옛날 겨울철 마을에 출산하는 사람이 생기면 산파들이 꼭 하는 일 중의 하나는 개구리를 찾아다니는 것이었다고 한다. 겨울에 동면하고 있는 돌 속 개구리들을 잡으러 다녔다. 개구리가 임산부들의 원기회복과 순산을 도와주는 데 요긴했기 때문이다.

보릿고개가 심했던 시절에는 겨울철에 농사일이 없어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때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 빈 들판에서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먹는 장면도 흔한 풍경이었다.

해설 지침

논개구리, 뚝개구리라고도 하며, 주변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로 부화하는 개구리다. 제주도에서는 서식하지 않으며, 과거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참개구리의 뒷다리를 구워먹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표 개구리

예전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개구리였다. 개구리 하면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참개구리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해부 실험을 할 때도 실험동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친숙하다.

참개구리는 실험동물로도 활용되지만 식용이나 사료로도 쓰임새가 크다. 먹이사슬의 중간에 있어 건강한 생태계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참개구리 금개구리 구별법

참개구리와 금개구리는 속 빼닮아서 언뜻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등줄을 보면 세 줄 난 것이 참개구리고, 두 줄 난 것이 금개구리다.

특히 금개구리의 양쪽 등줄은 금색이 선명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논개구리라고도 하며, 몸길이 6~10cm이다. 등면에는 주둥이 끝부터 항문을 잇는 회색의 중앙선 1개와 양 옆의 눈에서 시작하는 윗선 2개로 총 3개 선이 있다. 꼬리 주변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4~6월에 못자리나 논, 연못 등에서 산란하며, 알은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로 부화한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저지대 평야에 있는 습지, 특히 논 습지에 서식 산란한다.

활 용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뱀다리를 구워 먹기도 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참개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대!

우리 마을 참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na chosenica

금개구리

찾아보기가 금처럼
귀해진 개구리

과명	개구리과
사는곳	저수지, 늪, 웅덩이
먹이	잡자리, 거미, 피라미, 작은 물고기, 물속 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오죽하면 멧텅구리일까?

개체수가 많이 줄어 금처럼 귀해진 개구리인 금개구리를 충청도에서는 멧텅구리라고 부른다.

형제처럼 꼭 닮은 참개구리와 비교해 멧텅구리 보인다고 생긴 이름이다. 참개구리가 한 번 도약하면 150cm를 훌쩍 뛰는 데 비해 금개구리는 그 절반도 뛰지 못한다. 몸짓이 둔한 데다 시야도 좁으니 먹잇감이 근처에 있어도 놓치기 일쑤다. 먹이 잡는 솜씨는 떨어지는 대신 천척에게는 쉽게 잡히니 영락없는 바보, 멧텅구리처럼 보이는 것이다.

해설 지침

참개구리와 크기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며 몸의 등에 밝은 녹색에 금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금개구리만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울음주머니가 없고 껌박막이 잘 발달되어 있다.

신화 속에서는 내가 왕!

현실에서는 멧텅구리지만 신화 속에서는 금개구리도 왕 노릇을 했다.

부여의 왕 해부루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연못가에서 우연히 버려진 듯한 어린 아기를 하나 발견했다. 꼭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금빛이 났다고 한다. 해부루가 이 아기를 하늘의 뜻으로 믿고 데려가 금와(금개구리)라 이름 짓고 키웠더니 자랄수록 어엿한 사내가 되어 갔다. 결국 해부루에 이어 부여의 왕이 되었는데, 이가 바로 주몽의 아버지인 금와왕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 크기는 참개구리와 거의 같으며, 성체가 되면 60mm 내외가 된다. 몸의 등은 밝은 녹색, 배는 황적색이며 사지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등 옆선은 금색으로 돌출되어있으며, 머리 위 가장자리는 금색선이 둘러져있다. 등면에는 중앙선이 없고 양쪽 등옆에 2개의 굵고 뚜렷한 금색의 융기선이 참개구리와 구별되는 점이다. 울음주머니가 없으며, 갑박막이 잘 발달되어 있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과 제주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로 5~10월에 활동하며, 10월말경에 동면하며 5~6월에 저습지나 논 근처 들판에 산란한다.



금처럼 귀해진 금개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금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발견 일자 :
촬영 자 :

Rana rugosa

몸개구리

작아도

독을 가진 개구리

과명	개구리과
사는곳	산골짜기, 강, 개골창
먹이	나방, 모기, 지렁이, 물속 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무서운 독을 가진 개구리

진한 갈색의 등에 좁쌀 모양의 돌기가 많이 나 있어 우둘투둘하게 보이는데 이게 꼭 움에 걸린 것처럼 생겼다고 몸개구리라고 부른다.

몸개구리는 두꺼비와 마찬가지로 독이 있으므로 절대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설 지침

몸 전체에 작은 돌기들이 산재하여 주름돌기개구리라고도 불린다. 제주도를 제외한 여러 지역에 분포하며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없어 작은 소리를 내어 짝을 부르는 특징이 있다.

울음소리로 허풍 치는 몸개구리

몸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까이 가야 들릴 만큼 소리가 작다. 특이한 건 몸집의 크기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몸집이 클수록 더욱 저음이 나는데 몸개구리는 이런 소리의 특성을 이용해 허풍을 친다고 한다.

서로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는 소리만으로 몸집을 구별할 수 있다 보니 서로 저음을 내면서 내가 몸집이 더 커, 내가 더 커, 하며 우겨댄다고 한다.

노래하는 개구리의 울음주머니

대부분의 개구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울음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개구리는 허파가 작아 원래 나오는 소리는 작지만 이 소리가 울음주머니를 통해 크게 울려서 퍼져 나온다. 개구리들이 우는 이유는 주로 짝짓기를 위해 암컷을 부르는 것인데, 경쟁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암컷은 같은 종의 수컷이 내는 울음소리를 분간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 전체에 작은 돌기들이 산재하여 주름돌기개구리라고도 불린다. 몸길이는 4~5.5cm이며, 흑갈색이나 회색 바탕의 등에 돌기들과 함께 짧은 융기선들이 뚜렷하게 나 있다. 피부에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

4월 말에서 8월까지 물 흐름이 약한 계류나 습지 등 물웅덩이에 서너 차례에 걸쳐 알덩어리를 낳는다. 알 덩어리는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30~60개 알로 되어있다. 알을 수중식물 잎이나 줄기, 나뭇가지 등에 붙인다. 올챙이는 물 밑에서 월동하다 이듬해变态한다.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없고 작은 소리를 내어 짝을 부른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하천에 널리 서식하나 하천 오염 등으로 인해 개체군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독을 품고 있는 올챙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올챙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

생태계 파괴하는
위험한 무법자

과명	개구리과
사는곳	늪가, 저수지, 웅덩이, 논
먹이	벌레, 물고기, 작은 들쥐, 새끼 뱀



이야기로 알아보기

말 그대로 황소인 개구리

황소개구리는 몸집에서도 토종 개구리에 비해 4~5배 차이가 난다. 영어 이름도 bullfrog, 말 그대로 황소만큼 큰 개구리다.

울음소리도 굵직해서 꼭 황소가 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번식 속도는 빠르는데 뚜렷한 천적이 없어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해설 지침

생태계교란 생물로 외래종이다. 울음소리가 황소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황소개구리이며 토종개구리보다 몸의 크기가 4~5배 차이가 난다. 산란기 또한 비교적 긴 편이며 6천 개에 달하는 알을 낳기도 한다.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의 원래 고향은 미국 남캐롤라이나주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초반 식용으로 사육하려고 일본에서 들여왔다. 그러나 기대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타산이 맞지 않았던 사육농가들이 무단 방류했던 게 계기가 되어 급속도로 야생으로 퍼져나갔다.

황소개구리는 토종 개구리보다 월등하게 큰 체구를 가진 데다 식욕이 왕성해 각종 곤충류부터 달팽이류, 심지어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개구리들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다.

황소개구리가 잡아먹는 국내의 동물이 무려 140종에 이른다는 조사 기록도 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장수말벌과 같은 독충류도 있고, 먹이사슬에서 상위에 있을 것 같은 새나 쥐들도 황소개구리의 먹이로 희생되고 있다. 토종 생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퇴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종이다. 울음소리가 황소의 울음소리와 비슷하여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성체의 체장이 토종 개구리의 4~5배에 달하는 대형종이며 몸길이 111~183mm, 몸무게 139~603g이다. 등은 녹색, 암갈색 및 회색 등 채색변이가 심한 바탕색에 불규칙한 암녹색 또는 검은색 반문이 산재해 있다. 배는 회백색 바탕에 암갈색 무늬가 산재해있다. 수컷은 고막이 크고 앞다리 엄지발가락에 돌기가 튀어나와있는 혼인육지가 있다.

개구리, 뱀, 벌레, 지렁이 등을 포식하며, 천적은 뱀, 너구리, 왜가리, 새, 거북이 등이 있다. 산란기는 5월~9월로 비교적 긴 편이며, 알의 수는 6,000~40,000개이다. 올챙이는 9월~10월경 성체로 변태를 마치며, 부화 후 2년이 지나면 어른 개구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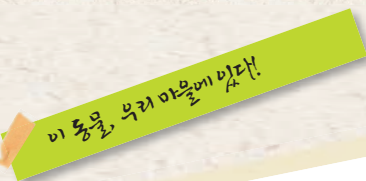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에는 산악지역인 강원도와 전라북도 동북부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전국의 저수지 및 하천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황소처럼 큰 황소개구리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황소개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_____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_____

Elaphe rufodorsata

무자치

우리가 물뱀으로 아는 뱀의
본명은 무자치

과명	뱀과
사는곳	논, 갈대숲
먹이	참개구리, 청개구리, 산개구리, 옴개구리, 물고기, 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내가 바로 물뱀입니다

무자치는 수변을 중심으로 서식하면서 개구리류를 주로 잡아먹는다. 이렇게 물가에서 주로 발견되다 보니 물뱀으로도 불린다. 폐호흡을 하는 무자치는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 몸통을 물속에 집어넣고 머리만 물 위로 내놓고 있는데, 이런 습성 때문에 물뱀으로 불리는 게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무자치다.

다른 이름으로는 무자수, 수사, 무재수, 폐뱀도 있다.

해설 지침

수변을 중심으로 서식하기 때문에 물뱀이라고도 불리우는 무자치는 독성이 없는 게 특징이지만, 개구리같이 소형 양서류를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끼를 낳는 난태생의 동물로 한 번에 11~14마리 정도 낳는다.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뱀은 알을 낳는 난생의 번식법이 있고, 새끼를 낳는 태생의 번식법이 있다. 그런데 무자치는 알을 가지고는 있으나 알을 체외로 보내지 않고 부화할 때까지 새끼가 자라도록 난관 속에서 기른다. 그러다 부화될 때는 얇은 막에 싸여 무자치 새끼들이 나온다.

이렇게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바로 새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번식법을 난태생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살모사와 같은 독사류를 제외하고 난태생인 뱀은 무자치가 유일하다고 한다.

무자치에게 세 번 물리면 재수가 생긴다고?



옛날 눈에 개구리가 많이 살 땐 때는 눈에 무자치도 흔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농부가 논일을 하다 무자치에게 물리는 경우도 잦았다는 것이다. 어차피 해야 할 농사일인데다 사람을 부리기도 해야 했으므로 눈에 흔한 무자치를 겁내지 않도록 일부러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머리는 길고 가는 편이며, 이마관의 앞쪽에서 시작되어 양쪽 끝은 목 부분의 뒤에까지 이르는 좁은 ^모양의 흑색 얼룩무늬가 있다. 주둥이의 폭은 넓다. 등의 배경색은 연한 갈색, 적갈색, 황갈색이며 중앙에 등황색의 세로 줄이 나 있다. 배판에는 사각형의 흑색무늬가 1쌍이나 1개씩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논이나 하천, 습지와 같은 물가 주변에서 서식하나, 최근 서식지 개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물속을 유영하는 무자치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지!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우리 마을 무자치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Elaphe diene

누룩뱀

술 냄새가 날 것 같은
나무 타기 명수

과명	뱀과
사는곳	산기슭, 밭둑
먹이	개구리, 장지뱀, 쥐, 새와 새알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름은 하나도 안 무서운 뱀

뱀은 무서운 생김새만큼이나 무서운 이름을 가진 게 태반이다. 그러나 누룩뱀은 여느 뱀들과 달리 이름에서 친근함이 묻어난다. 몸통의 누런 밤색이 술을 빚을 때 쓰는 누룩의 색과 비슷하다 하여 누룩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개체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 흔하게 보는 뱀 가운데 하나다. 누룩뱀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밀구렁이, 밀뱀, 산구렁이, 석화사, 시루네기, 금화사, 누루네기 등이 있다.

해설 지침

전국적으로 농경지 및 산기슭에 서식하고 있으며, 땅에 굴을 파거나 돌무덤에 산란한다.

내가 나무 타기 명수

누룩뱀은 여느 뱀처럼 설치류나 개구리류를 먹이로 삼지만 새알도 먹이가 된다. 독이 없는 누룩뱀은 먹이를 발견하면 몸으로 조여 제압한 뒤 잡아먹는다. 나무도 잘 타서 새집을 털어 새알이나 어린 새를 잡아먹기도 한다.

음, 뱀한테 나는 이 냄새는 뭐지?

흔히 뱀에게서는 구린내가 난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뱀이 항문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액을 분비하는 것이다. 또는 피부 사이의 냄새샘에서 악취가 나는 지방질을 분비하기도 한다.

뱀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런 고약한 냄새를 분비해 자신을 방어하는데, 특히 누룩뱀과 능구렁이의 냄새가 심한 편이라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의 길이는 70~100cm 정도이다. 등면에 밤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가로무늬가, 배면의 각비늘에는 검은 무늬가 있다.

4~5월에 짝짓기를 하며 7~8월에 10~1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40~50일 정도 지나면 부화한다. 먹이는 개구리, 장지뱀, 쥐 등이며 나무를 잘 올라가 어린 새나 새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분포 및
서식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농경지, 산기슭, 밭둑, 마을 인근의 숲 등에서 서식한다.



나무를 타고 오르는 누룩뱀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누룩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habdophis tigrinus

유혈목이

예쁘게 단장한 꽃뱀의
정체는 유혈목이

과명	뱀과
사는곳	산기슭, 강가, 논
먹이	개구리, 미꾸라지, 쥐



이야기로 알아보기

나, 그런 꽃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꽃뱀이라고 부르는 뱀이 바로 유혈목이다. 검은색과 붉은색 무늬가 선명하고 화려해 붙여진 이름이다.

속어로 쓰이는 꽃뱀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니 유혈목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법하다.

꽃뱀 말고도 다른 이름은 너불대, 너불메기, 늘메기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너불대는 유혈목이의 모양새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고개를 쳐들고 흔들거리는 게 엷은 물체가 바람에 날려 가볍게 자꾸 너불너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지었다고 한다.

해설 지침

개체수가 풍부한 종류였으나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다. 개구리, 설치류 등을 잡아먹는 뱀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 가능한 뱀이다.

일명 한국의 코브라



유혈목이는 일명 한국의 코브라라고도 한다. 유혈목이가 보여주는 특이한 호신술에서 비롯된 별명이다. 유혈목이는 위협을 감지하거나 놀라면 목 부분을 납작하게 만들면서 옆으로 넓게 확장해 몸을 크게 보이려고 한다. 그 모양이 마치 코브라처럼 보이는 것이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아이들이 유혈목이를 잡으면 목이 넓게 퍼지는 것을 구경하려고 일부러 화를 돋우어 장난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혈목이도 안쪽 어금니에 독을 가지고 있어 깊이 물리면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다른 뱀들보다 개체수가 풍부하나 최근 밀렵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올모기라고도 하며, 몸길이 60~120cm이다. 꼬리 길이는 몸길이의 1/5~1/4 정도를 차지한다. 몸은 대체로 녹색 바탕에 불규칙한 무늬가 나 있다. 몸 전체의 무늬는 붉은색, 목의 무늬는 노란색이며 검정색의 무늬가 등선 양쪽에 흩어져 있다. 턱 뒤쪽에 독니가 나 있다.

먹이는 개구리류, 설치류 등을 잡아먹고 낮에 활동한다. 짝짓기는 가을철인 9~10월경 이루어지며, 이듬해 6~7월, 덩굴 속 또는 풀 속에 10~3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타원형의 약 25mm~40mm 크기이며, 30~40일 후 부화한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의 마을 주변, 경작지, 산림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한다. 봄철 저지대의 수로, 하천 주변에서 서식하며 여름철 산림지역으로 이동한다.



고개를 쳐들고 흔들거리는 유혈목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유혈목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Dinodon rufonotatus

능구렁이

능구렁이가 담 넘어
가는 것 보셨나요?

과명	뱀과
사는곳	논둑, 밭둑, 강가
먹이	개구리, 두꺼비, 들쥐, 새알, 뱀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런 능구렁이 같으니라고!

능구렁이가 다 되었다고 하면 순진하던 사람이 제 실속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분간할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다. 또 능구렁이처럼 군다고 하면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음흉하게 굴거나 솔직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속담에도 나오는 능구렁이는 행동이 느린 것 같고 온순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사납기로 유명하다.

가만히 무관심한 척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기도 하므로 독이 없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해설 지침

제주도를 제외한 야산 및 경작지에서 많이 발견되며, 뱀의 습성답게 습한 장소를 좋아한다.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도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로 주둥이의 끝이 납작하고, 이빨이 작다. 옛 어른들은 신경통에 좋은 약으로도 사용했다.

욕심 부리면 황금도 능구렁이로 보여요



능구렁이가 재미있게 등장하는 옛이야기가 있다. 앓은 뱀이 지성이와 봉사 감천이 설화다. 감천이가 지성이를 업고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샘가에 들렀는데 돌 틈에서 우연히 황금을 발견했다. 둘은 서로 가지라고 양보하다가 안 가질 바에는 그대로 두자며 있던 자리에 놓고 다시 길을 떠났다. 길에서 만난 욕심쟁이에게 황금 둔 자리를 알려주자 욕심쟁이가 얼른 샘가에 가서 돌 틈을 뒤졌는데 황금은 고사하고 능구렁이 한 마리만 포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욕심쟁이는 지성이와 감천이를 찾아 사람을 속였다고 화를 냈다. 놀란 지성이와 감천이가 다시 샘가로 가 보니 황금이 반으로 갈라진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대신 절에 시주했고, 나중에 부처님의 은덕으로 지성이는 다리가 낫고 감천이는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60~110cm이며, 등에 붉은색과 검은색의 가로무늬가 여러 개 있으며, 몸 옆구리에 검은색 얼룩무늬가 길게 늘어서 있다. 주둥이 끝은 납작하며, 사람이나 큰 동물은 물려도 이빨이 작아서 큰 상처는 입지 않는다. 난생이며, 5~10개 정도 산란한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주로 야산, 경작지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논 주변이나 물가 근처 같은 습한 장소를 좋아한다. 낮에는 바위 밑이나 나무 그루터기 같은 빛을 가려주는 곳에 숨어 있으며, 밤에 나와 활동하지만 낮에도 가끔 관찰된다. 10월 중순에 동면을 시작하고 이듬해 4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먹이는 개구리, 쥐, 작은 새, 다른 종류의 뱀, 작은 어류 등이다.

효 용

독이 없는 두꺼비를 잡아먹은 능구렁이로 능사주를 담가 먹는데 이 술은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담에도 나오는 능구렁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능구렁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Gloydius brevicaudus

살모사

이름과 달리
모성애가 강한 뱀

과명	뱀과
사는곳	산기슭, 돌무더기, 밭둑
먹이	쥐, 개구리



이야기로 알아보기

살모사는 어미를 잡아먹는 뱀?

살모사는 이름처럼 정말 제 어미를 잡아먹는 뱀일까? 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속설이 생겼을 것이다.

살모사는 난태생이라 뱃속의 알에서 부화할 때 새끼 살모사들이 얇은 막에 덮인 채 어미의 항문을 통해 태어난다. 뜨거운 여름에 어미는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낳으면서 기진맥진해 꼼짝도 못하고, 어미 주위로 난황에서 나온 피가 아직 묻어 있는 새끼 십여 마리가 모여 있다 보니 꼭 새끼들이 어미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해설 지침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독성이 강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새끼를 어미 뱃속에서 부화한 다음 산란하는 특이한 뱀이다. 독사에 물렸을 경우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준다.

조심조심 또 조심!



살모사는 출혈을 일으키는 독을 가지고 있어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밤에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살모사는 낮에는 나무둥지 밑이나 수초가 우거진 서늘한 곳에서 쉬는데, 가을철 성묘객들이 제초 작업을 하다 놀란 살모사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다.

살모사가 일부러 물려고 사람을 쫓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살모사가 있을 만한 수풀 우거진 곳이나 바위 틈, 나무 덩굴을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 살모사를 발견했을 때는 조용히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살모사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이때도 상처 부위가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오도록 유의해야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삼각형 모양의 머리에 눈 위쪽에 굵은 흰색 선이 있다. 정수리의 색은 흑담색이다. 혀의 색은 검은색, 꼬리색은 노란색이다. 몸길이는 60~70cm이고, 몸의 등은 회갈색 내지 암갈색이고, 흑갈색의 다양한 반문이 있다. 배는 검은 편이며, 회색 반점이 있다. 4월 중순~10월에 활동하며 가을철에 새끼를 낳는다.

분포 및
서식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저지대 하천, 경작지 및 야산 등에 서식한다.



맹독을 가진 살모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살모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Amphibiops mater

쇠살모사

작다고 알보면
큰 코 다치는 독사

과명	뱀과
사는곳	산, 밭둑, 강가
먹이	들쥐, 개구리, 도마뱀



이야기로 알아보기

작아도 독이 있어요

쇠살모사의 주요 먹이는 개구리류와 들쥐다. 그래서 먹이가 주로 사는 곳인 계곡의 바위 많은 곳이나 잡목림에서 살지만 밭두렁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에 14종의 뱀이 사는데 그 가운데 3종만이 독이 있으며 살모사, 까치살모사와 더불어 쇠살모사가 포함된다. 쇠살모사는 살모사보다 독성이 약하지만 성질이 사나워 알보아서는 안 된다.

해설 지침

낮은 산지에 서식하며 독사, 부독사, 불독사 등등 이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뱀이다. 살모사 중 가장 작지만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멀고도 가까운 사이

살모사 중에서 가장 작은 살모사로, 작다는 의미를 가진 ‘쇠’가 붙어 쇠살모사라고 부른다. 몸이 대체로 붉기 때문에 불독사라고도 한다.

쇠살모사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는 독사, 부독사, 불독사, 부예기, 몽투리 등이 있다.

쇠살모사는 개체수가 비교적 많은데다 낮은 산기슭이나 들쥐가 많은 밭두렁 등에 서식해 사람 눈에 많이 띄는 뱀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독사에게 물렸다고 하면 쇠살모사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뱀은 왜 혀를 날름거릴까?

뱀은 코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혀바닥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혀를 날름거리면 공기 중의 냄새 입자가 묻어 그것으로 냄새를 감지하는 것이다.

혀의 색깔도 조금씩 다른데 유헤لمок이는 혀가 검지만 쇠살모사는 붉은색을 띠고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25~60cm이며, 머리는 삼각형이고 혀의 색은 붉다. 눈 위쪽에 얇은 흰색 선이 나있다. 몸 옆의 엽전 무늬는 검은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암 차이가 뚜렷하다. 10월 초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 동면한다. 보통 8~9월에 새끼를 낳는다. 난태생이며 한 번에 3~10개를 낳으며, 갓 태어난 새끼의 크기는 보통 15~20cm이다.

분포 및 서식지

전국의 경작지, 낮은 산지, 산림지역 등에 분포하며, 돌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있다. 일광욕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소화 작용을 촉진시켜 낮에도 쉽게 볼 수 있다.



작지만 성질이 포악한 쇠살모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쇠살모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붕어라기보다는
돌고기와 닮은

과명	잉어과
사는곳	저수지나 농수로, 하천의 깊이 얇은 수면 가까이
먹이	잡식성, 작은 동물, 수서곤충, 부착 조류



이야기로 알아보기

못 먹는 게 없어요

참붕어의 식성은 가리는 게 없다는 것이다. 물풀이나 바닥에 붙은 미생물부터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물고기 알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

아무거나 잘 먹는 만큼 내성이 강해서 수질 오염에도 잘 견딘다고 한다.

미끼용으로 쓰는 물고기

참붕어는 디스토마의 숙주 물고기로 알려져 있어 현재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응력이 강해 관상용으로 기르기에 적합하다.

해설 지침

빛을 띤다.

붕어와 달리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며 수염이 없는 붕어로 잘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밝은 빛깔이 아닌 거무스름한

붕어라기보다는

참붕어와 붕어를 구분없이 같이 쓰기도 하지만 참붕어와 붕어는 다른 물고기다. 참붕어는 이름에만 붕어가 들어가지 여느 붕어와 생김새가 좀 다르다. 붕어처럼 넓적하다기보다는 몸이 길쭉한 편이다. 머리도 작고 붕어가 가지고 있는 수염도 없다. 붕어만큼 크게 자라지 못해 6~8cm면 성숙한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참붕어의 모양새는 붕어보다는 오히려 돌고기를 많이 닮았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붕어와 비교했을 때, 몸의 높이가 낮고 전반적으로 길이가 길다. 머리는 작고 비교적 큰 눈이 머리 양옆에 붙어 있다. 입은 위로 돌출되어 있고 수염은 없다. 비늘은 커다란 편이며 둥글며 가장자리에 검은 반점들이 나 있어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한 빛을 띤다.

다 자란 암컷은 노란빛이 돌며 번식기의 수컷은 어두운 갈색이다. 산란 시기는 5~6월로 성숙한 개체들이 물의 얇은 곳으로 모인다.

수컷은 수심 30cm 이내의 얇은 곳에 있는 돌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암컷을 향해 돌진하는 행동을 보인다. 청소한 곳의 돌이나 조개껍데기 표면으로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한다. 산란이 끝난 수컷은 방정한 후 그 주변을 돌며 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 담수역과 북한 지역에 분포하며 저수지, 하천 등의 표면층 가까이에 떼를 이루어 서식한다.



붕어보다는 돌고기와 더 얇은 참붕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참붕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arassius auratus

붕어

월척의 기준은

내 몸 길이 30센티미터 이상

과명	잉어과
사는곳	물 흐름이 느린 하천의 중하류, 댐, 후수, 저수지, 농수로
먹이	잡식성, 유기물, 동물성 플랑크톤, 실지렁이, 수서곤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월척의 기준은 붕어

붕어는 낚시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다. 주로 연못의 바닥에서 생활하는데 미끼를 물면 위로 떠오르는 습성을 이용해 낚아챈다.

월척을 낚았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도 30센티미터 이상 되는 붕어가 통용될 정도다.

이렇게 잡은 붕어는 무와 시래기를 넣고 양념장에 졸여내는 찜으로 많이 먹는데, 붕어찜은 별미로 인기가 높다.

해설 지침

서식지에 따라 붕어의 색깔이 바뀌며 잡식성인 동물이다. 우리나라 전역 하천에 분포하며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 자생하기가 쉽다.

붕어는 언제 붕어가 되었을까?

붕어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에 모두 서식하는 물고기다. 어원도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로부터 부르던 이름이 후유였고, 나중에 지유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부어와 즉어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다 조선 중기에 한글로 붕어라고 쓰게 되면서 지금까지 쓰이게 되었다.

가을철 원기회복에는 내가 최고

한의학에서는 몸에 기력이 떨어졌을 때 붕어로 만든 음식이 몸을 보하는 데 좋다고 한다.

단백질이 많아 옛날에는 임산부의 산후 조리를 위해 붕어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특히 가을철 몸이 으스스해질 때 먹는 붕어찜은 맛도 일품이지만 체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데도 안성맞춤이었다고.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보통 10~40cm 정도로 황금색 또는 녹갈색, 황록색을 지녔으나 서식지에 따라 변한다. 입은 작으며 입수염은 나지 않는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꼬리자루 폭은 넓다. 머리는 짧고 눈은 작으며 콧구멍이 서로 맞붙어 있으며 앞콧구멍은 다소 작다. 주둥이 또한 짧으며 입은 작고 입술이 두껍다. 아래턱은 위턱보다 짧다. 뒷지느러미는 짧고 주둥이 끝의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보다 길다. 가슴지느러미는 대칭형이며, 좌우의 배지느러미는 서로 붙어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였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청갈색이 선명하며 다른 지느러미는 거의 색이 없다.

먹이는 주로 지각류, 요각류 및 윤충 등과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식물의 종자, 식물질 등 잡식성이다. 산란 시기는 4~7월이며, 전성기는 5월이다. 비가 온 뒤 얕은 물가에 무리지어 수초 등에 알을 낳아서 붙인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담수역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하천의 유속이 느린 지역이나 수초가 많은 지역, 논, 저수지 등에서 서식한다.

효용

약재명은 부어, 즉어 등이 있다. 몸의 기혈음양을 보충하고, 장의 기능을 증강시킨다. 혈액을 잘 흐르게 하고, 부종 등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를 편하게 해준다. 또 몸 속의 기생충을 없앤다.



가장 즐겨먹는 민물고기인 붕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붕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arassius auratus

떡붕어

일본에서 건너온
맛좋은 담수어

과명	잉어과
사는곳	저수지, 흐름이 완만한 하천 하류
먹이	잡식성으로 유기물,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체 조직



이야기로 알아보기

오하이요! 일본에서 온 붕어

떡붕어의 고향은 일본이다. 일본 최대 호수인 비와호에서 살기 시작한 떡붕어는 인위적인 이식으로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고, 국내에도 1970년대부터 들어왔다. 성장이 빠르고 깊은 물에서도 살 수 있어 댐을 지으면 방류하던 물고기였다.

지금은 저수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수적으로 토종 붕어보다 우세하며 교잡으로 잡종 개체도 늘어나고 있다. 낚시꾼들에겐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 중의 하나다.

붕어 맛! 한국에서는 그저 그런 붕어

일본어로 붕어는 후나라고 하는데, 떡붕어는 겐고로후나라고 부른다. 옛날 일본의 비와호 근처에 살던 겐고로라는 하인이 매년 이 붕어를 잡아다가 주인에게도 주고 친구에게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붕어 맛이 얼마나 좋던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늘 겐고로가 주는 붕어를 기다렸다는 데서 겐고로후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국내에서는 일본처럼 떡붕어 맛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 붕어보다는 값이 저렴하지만 생산량은 잉어처럼 많지 않아 양식을 하기에 비생산적이라고 한다. 저수지에서는 유효수면을 이용한 조방적 양식이 가능하다고.

해설
지침

원산지는 일본산으로, 몸의 길이가 40cm까지 자란다. 푸른빛이 도는 회색 또는 은색빛이 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보통 20~30cm의 길이이며 40c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 등은 회색이나 옅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며 배는 은백색이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회색빛이 돌며 그 외의 지느러미는 색이 없다.

외형은 붕어와 비슷하지만 몸의 높이가 뚜렷하게 높으며 머리 앞쪽이 돌출되고 납작하다. 입은 주둥이 끝에서 위쪽으로 돌출되었으며 입술은 얇고 수염은 나지 않는다. 측선은 완전하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아래로 휘어져 있다. 비늘은 머리에 나지 않으며 둥근 비늘이다. 등지느러미 기저부는 머리보다 길며 몸의 중앙부에서 시작한다. 꼬리지느러미 뒤끝은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였다.

산란 시기는 4~6월이며, 비가 와서 물이 늘어날 때 수초나 부유물에 산란한다.

분포 및 서식지

일본이 원산지인 우리나라에는 1972년 도입되어 저수지와 대형 댐호, 하천 하류의 흐름이 느리고 수초가 많은 지역 등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활 용

붕어보다 활발한 양식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집약적인 방식의 양식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낚시꾼들에게 인기 최고인 어종 떡붕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떡붕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Macropodus ocellatus

버들붕어

멋쟁이 아빠 물고기의
지순한 부성애

과명	버들붕어과
사는곳	물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소하천, 늪, 농수로, 연못가
먹이	어릴 때는 물벼룩 따위를 먹고 자라면서 잡식성



이야기로 알아보기

얼마나 예쁘길래 꽃붕어

버들잎처럼 얇고 납작하다고 해서 버들붕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이 주는 어감만큼이나 예쁘고 화려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 꽃붕어라고도 하고, 극락세계에서나 살 것 같은 아름다운 물고기라고 해서 극락어라 부르기도 한다.

버들붕어 수컷의 자식 사랑

버들붕어 수컷의 자식 사랑도 가시고기나 꺾지의 부성애에 뒤지지 않는다. 버들붕어 수컷은 산란기 때 암컷을 찾기도 전에 미리 알을 낳을 거품집을 만들어놓고, 암컷이 산란을 모두 끝내면 혼자서 불철주야 알들을 지킨다. 근처에 다른 물고기가 나타나면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쫓아낸다.

해설
지침

몸 길이는 크지 않아 7cm 정도 되며 좌우로 납작한 게 특징이다. 산란 주기가 짧아 대량 사육이 가능한 어종이다.

한 번 싸우면 끝까지 간다

평소에 온순한 버들붕어는 텃새가 심해서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수컷과는 목숨을 걸고 싸운다. 특히 산란기 때는 더욱 사나워진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들은 알을 낳을 거품집을 만들어놓고 암컷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때 여럿 수컷들이 암컷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죽어라 맹렬하게 싸우는 걸 볼 수 있다.

버들붕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중국에서는 투어라고 부르는데, 수컷 두 마리를 잡아다 싸움을 붙여 내기를 거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버들붕어를 싸움꾼 물고기라고 해서 파이팅 피시로 부른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4~7cm 길이에 긴 타원형 형태가 좌우로 납작하다. 비늘의 모양은 빗미늘로 머리와 배 전면에 덮여 있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어 입이 비스듬하게 위로 열린다. 턱에 이빨이 많이 나 있다. 등지느러미는 새 개 후단부 근처에서 시작하여 꼬리지느러미 시작 부분까지 이어진다. 머리 아랫부분에서 뒷지느러미 전 단부까지 복부는 밝은 노란색이 돌며 체측에 10개 이상의 담홍색 횡반, 아가미 덮개 위에 작은 청색 반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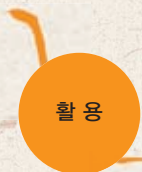
세력권의 보호행동과 산란기 때 수컷의 몸통 뒷부분은 흑색, 전반부는 검은색 가로 줄무늬가 뚜렷해지며 몸 전체가 옅은 흰색으로 변한다. 어릴 때는 물벼룩 등을 먹고 자라며 수서곤충의 애벌레와 작은 물고기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산란 시기는 6~7월이며 이때 수컷은 매우 공격적이고 난폭해진다. 수컷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의 수 초 아랫면에 기포를 생성하고 거품덩어리로 산란을 위한 기포소를 형성한 뒤 암컷을 유인한다. 비교적 산란 주기가 짧고 연중 산란이 가능하여 1회에 많은 알을 낳아 대량 사육이 용이하며 다루기 쉽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저지대의 하천부터 농수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서식한다. 최근 수질오염이나 하천 개수, 농수로 직선화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활용

번식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양식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벚들붕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벚들붕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Cyprinus carpio

잉어

등용문에 등장하는
출세의 상징

과명	잉어과
사는곳	수량이 많은 큰 강이나 댐, 호수, 저수지
먹이	잡식성으로, 부착 조류, 조개, 수서곤충, 갑각류, 실지렁이



이야기로 알아보기

장수와 풍요, 출세의 상징

잉어는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예로부터 귀중한 식용어로, 조선시대 때 이미 양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잉어의 산지를 적어놓은 고서도 있다.

잉어는 예로부터 장수와 풍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효자와 관련되어서도 많이 등장한다. 그만큼 잉어에 약효가 풍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거꾸로 말하면 잉어는 자신을 희생시켜 수많은 효자를 길러낸 셈이다.

중국 황화의 용문이라는 급한 여울목을 잉어가 거슬러 넘어가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에서 보듯 잉어는 출세를 상징하기도 한다.

해설 지침

붕어보다 크기가 조금 크며 수영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에 수영이 굵고 길게 나 있으며 비늘이 크고 전체적으로 덮혀 있다. 말려서 먹으면 위와 간의 소화작용을 돕는 효능이 있다.

鯉(리)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

잉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한자로 잉어는 鯉(리)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잉어의 비늘 가장자리에 검은 무늬가 있어 1리는 36거리라는 걸 연상하여 리자를 쓰게 되었고 잉어의 비늘을 보면서 나무의 결을 연상하게 되어 鯉(리)라 하였다고 한다. 우리말의 잉어는 한자의 이리가 잉어로 변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군을 구한 잉어 이야기

잉어가 장군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거란군과 싸우다 전력이 밀려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큰 강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 돌아보니 거란군이 쫓아오고 있어 이제는 죽었구나 체념하는데 갑자기 잉어들이 나타나더니 제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윤관 장군은 잉어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 후손들인 파평 윤씨 집안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 길이는 30~80cm이며, 체고가 높다, 등면은 녹갈색, 배면은 옅은 갈색이다. 머리는 원추형으로 좁으며, 주둥이 부분이 둥글다. 입수염은 두쌍이며 뒤쪽에 있는 수염이 굵고 길다. 비늘은 크고 뽕뽕하게 배열되었으며, 옆줄이 뚜렷하다. 등지느러미 경사는 완만하고 앞부분이 솟아 있으며,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색은 진하다.

산란 최성기는 5월 하순~6월 초순경이며, 수초가 많고 수심이 얇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수질이 나쁘더라도 호수, 저수지, 강, 소하천 등 담수가 되어 있는 곳에 서식한다.

효 용

잉어의 내장과 비늘을 제거한 뒤 생으로 먹거나 햇볕에 말려 약으로 사용하며 약재명은 이어, 노래미 등이라 한다. 발한작용과 지갈작용이 있으며, 기침을 멈추고 천식을 낮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위의 활동을 도와준다. 그리고 소변장애 등의 치료에 좋다.

활 용

양식업으로 활용 가능하다.



풍요와 장수, 출세를 상징하는 잉어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잉어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Lefua costata

쌀미꾸리

미꾸리를 닮았지만
종개과 물고기

과명	종개과
사는곳	물살이 느린 소하천, 늪, 농수로의 수초지대
먹이	수서곤충



이야기로 알아보기

미꾸리가 아니라니까요!

쌀미꾸리는 이름에만 미꾸리가 들어가지 실은 종개과에 속한다. 크기는 미꾸리보다 작고 모양은 미꾸리와 몹시 닮아서 예전부터 구분하지 않고 미꾸라지 새끼로 취급하고는 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과에 속한다. 크기로 분간하는 것 말고도 입수염의 개수로도 구별할 수 있다. 미꾸리나 미꾸라지의 수염이 열 개인데 반해 쌀미꾸리는 여덟 개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지만 특히 강원도의 영동 지역에 많이 서식해 강원도에서는 추어탕으로 쌀미꾸리를 사용하는데, 쌀미꾸리가 미꾸라지에 비해 더 맛이 좋아 원주추어탕이 유명하다.

해설 지침

몸의 크기는 송사리보다 크며, 꼬리가 납작하고 미꾸라지와 조금 다르게 생겼다. 미꾸라지과와 다르게 잡식성이 아닌 수서곤충을 먹는 동물이다.

쌀미꾸리가 살 수 있도록

쌀미꾸리는 지방마다 다르게 용지리, 용달치, 하늘고기라고도 불렀는데, 예로부터 미꾸라지 사촌으로 여기는 건 대동소이했다.

쌀미꾸리는 민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였으나 미꾸리보다 좀더 깨끗한 물에서 살다보니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 보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물고기가 되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5~6cm 길이에 원통형으로 저서성 소형이다. 꼬리는 납작하며, 머리는 상하로 납작하고 입은 주둥이 아래에 있다. 수염은 외비공 앞에 1쌍, 윗입술에 3쌍이 나있다. 수컷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기점까지 폭넓은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나 암컷은 분명하지 않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 옅은 갈색의 아주 작은 점이 산재되어 있다. 등지느러미 기조수 6개, 뒷지느러미 기조수 5개다.
산란 시기는 4월 하순~6월 상순이다. 주로 수서곤충을 먹는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얇은 물, 물풀이 무성한 호수, 늪, 소하천, 농수로 등에 주로 서식하나,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효용

원기 회복 및 피로 회복의 효용이 있다.

활용

음식의 종류인 추어탕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미꾸리와 닮았지만 종개과 물고기인 쌀미꾸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어!

우리 마을 쌀미꾸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리

물고기 방귀로 지은
유별난 이름

과명	미꾸리과
사는곳	진흙이 깔린 늪, 모래가 깔린 곳, 농수로
먹이	잡식성으로, 애벌레, 조류, 유기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방귀 편다고 지은 이름

미꾸리는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입을 내밀어 공기를 들이마신다.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는 흡수하고 탄산가스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한다. 이때 가스가 배출되면서 항문에 공기 방울이 생기는데 사람이 방귀를 끼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해서 밑이 구리다는 뜻을 담아 ‘밑구리’라 하였다가 차츰 미꾸리로 굳어졌다고 한다.

겨울잠을 잔다고요?

대부분 온수성 어류는 겨울철이 되면 낮은 수온 때문에 동면하게 되는데 미꾸리는 뱀 속에서 동면하는 습성이 있다. 점액을 내어 몸을 보호하고, 몸을 둥글게 구부려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구멍 안에 2~3마리가 같이 들어가 몸의 건조를 방지한다.

해설 지침

미꾸라지와 마찬가지로 몸 표면에 점액을 분비하지만 등과 꼬리에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꾸라지와 같이 미꾸리 또한 보양식으로 식용이 가능하다.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달라요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생김새가 워낙 흡사해 거의 구분하지 않고 미꾸라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다른 물고기다. 미꾸리는 미꾸라지보다 입수염이 짧고 미꾸라지에는 없는 까만 점이 꼬리지느러미에 있다. 미꾸리는 몸이 원통형인 데 반해 미꾸라지는 옆으로 납작한 것도 차이점이다. 그래서 둘을 구분할 때는 동글이(미꾸리)와 납작이(미꾸라지)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미꾸리가 미꾸라지에 비해 보기 어려운 것은 미꾸라지가 오염된 물에서 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가늘고 길며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다. 머리 위쪽에 작은 눈이 붙어 있으며 입은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입 주변에 5쌍 수염이 나 있다. 암컷의 가슴지느러미는 둥글고 짧으며, 수컷의 가슴지느러미는 가늘고 길다. 몸 옆면에 작고 검은색의 점이 산재되어 있으며 등과 꼬리지느러미에 작은 반점이 나 있다. 몸 표면은 점액을 분비한다.

산란 시기는 6~7월이며 비가 온 뒤 산란행동을 한다.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산란하며 진흙이나 모래 속에 알을 파묻는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 늪, 진흙이 깔린 곳 등에 주로 서식한다.

활 용

양식업으로 활용되어 사람들의 전업이나 부업의 종류로 각광 받고 있다.



미꾸라지와 사촌지간인 미꾸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미꾸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Misgurnus misolepis

미꾸라지

가을철 보양식
추어탕의 주인공

과명	미꾸리과
사는곳	물 흐름이 느린 하천
먹이	어릴 때는 동물성 플랑크톤, 자라면서 실지렁이, 조류



이야기로 알아보기

내가 추어탕의 주인공

미꾸라지를 부르는 이름 중에 가장 익숙한 이름은 추어(鰍魚)다. 가을(秋)의 물고기(魚)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가을 추위가 시작될 무렵부터 미꾸라지를 푹 고아서 국물을 낸 추어탕을 많이 먹게 된다. 늦가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미꾸라지는 살이 통통 올라 더욱 먹을 만한데 날씨가 쌀쌀해질 때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기도 하다.

해설 지침

주로 하천 하류 흐름이 약한 곳에서 많이 서식하며 머리에 비늘이 없고, 몸의 표면에는 점액이 분비되어 손으로 잡기가 어렵다. 원기 회복 보양식으로 각광받아왔다.

미꾸라지가 나오는 속담들

미꾸라지만큼 속담에 자주 오르내리는 물고기는 없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면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집단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 쓰는 속담이다.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한다고 하면 시시한 일을 해놓고 큰일을 한 것처럼 빠질 때 비꼬아 쓰는 속담이다. 미꾸라지 용 똥다고 하면 보잘 것 없던 사람이 크게 되었을 때 쓰는 속담이다.

미꾸라지 천 년에 용 된다는 속담은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노력하면 훌륭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미꾸리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크며 가늘고 길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하다. 몸의 바탕색은 흑갈색이며 등의 색은 진하고 배의 색은 열게 나타난다. 수컷은 암컷보다 작다. 머리 위쪽에 작은 눈이 붙어있고 입이 아래쪽을 향해 돌출되었다. 머리에는 비늘이 없으며 미꾸리보다 비늘이 크다. 미꾸리보다 긴 5쌍의 수염이 입 주변에 나왔다. 몸 측면에 작고 까만 점이 산재되어 있는데 등과 꼬리지느러미에 작은 반점이 나타난다. 몸의 표면에는 점액이 분비된다.

잡식성으로, 산란 시기는 4~6월이며, 비가 내려 논이나 농수로에 물이 가득 차면 짝짓기를 한다. 수컷이 암컷의 배를 감싸안고 압박하여 산란을 유도한다.

분포 및 서식지

효 용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주로 하천의 하류인 흐름이 느린 곳에 주로 서식한다.

혈맥, 숙취해소, 갈증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음식물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부분인 중초를 따뜻하게 만들고 조화롭게 한다.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치질을 치료한다.

추어탕의 주인공 미꾸라지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미꾸라지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Oryzias latipes

송사리

먹을 것 없었지만
아이들은 가장 좋아해

과명	송사리과
사는곳	물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소하천, 늪, 농수로
먹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장구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송사리만 하다고?

송사리는 다 자라 봐야 몸길이가 4cm 내외인 소형어라 흔히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사람을 얄잡아 부를 때 송사리에 비유한다.

속담에도 송사리가 나온다. 고기는 안 잡히고 송사리만 잡힌다는 속담은 목적하던 바는 다 놓치고 쓸데없는 것만 얻게 되었을 때 쓴다. 그만큼 쓰임새가 유용한 물고기는 아니다.

해설 지침

몸이 작고 수심이 얇은 물에 떼를 지어 서식한다. 몸 뒷부분의 등지느러미가 짧고 수컷의 경우에는 찢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 낳는 게 잠자리와 닮았어요

송사리도 대륙송사리와 마찬가지로 급한 급류보다는 얇은 수심에서 산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헤엄을 치는데 환경 변화에 내성이 강해 쉽게 만날 수 있는 물고기다.

1년 내내 산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송사리를 볼 수 있고 주로 아침에 보는 송사리는 산란하는 암컷 송사리다. 잠자리처럼 알을 달고 다니다가 물풀에 붙이며 번식한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고기이기도 해서 생태 체험이나 물고기와 친해지게 해주는 학습에도 제격이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약 3~4cm 길이에 몸의 높이는 높으며 뒷지느러미 부분부터 급격하게 낮아진다. 몸은 가늘고 길며 담회갈색을 띠며 배 쪽은 더 밝다. 머리는 상하 방향으로 약간 납작하며 윗부분이 편평하다. 눈은 큰 편이다. 주둥이는 끝이 둔하며 입은 작고 위로 비스듬하게 돌출되었다. 양 턱 주변에 작고 검은 점이 촘촘히 있다. 몸 뒷부분의 등지느러미는 길이가 짧으며 수컷의 경우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다. 뒷지느러미는 등지느러미보다 앞부분에서 시작되며 길이가 길다. 꼬리지느러미 끝의 가장자리는 직선형이다.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산란 시기는 5~7월이며, 이른 아침에 알을 낳는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 동해에 유입되는 하천 하류인 낙동강, 탐진강 등과 서·남해 도서지방 등 수심이 얇고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저수지나 늪 등에 떼를 지어 서식한다.



작지만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인 송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마을 송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대륙송사리

이산가족 되면서
서로 달라졌어요

과명	송사리과
사는곳	물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소하천, 늪, 농수로
먹이	동물성 플랑크톤, 장구벌레



이야기로 알아보기

송사리와 대륙송사리는 어떻게 헤어졌을까?

송사리가 다 같은 송사리 아닌가? 알고 보니 다른 송사리가 있었다.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대륙송사리가 송사리에 비해 약간 더 작다는 것, 송사리의 배지느러미가 진한 황색을 띠는 데 비해 대륙송사리는 미색을 띤다는 것. 그러나 가장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염색체 차이이다.

송사리는 염색체수가 48개인데, 대륙송사리는 46개라는 게 밝혀졌다. 분포하는 곳도 조금 달랐다. 백두대간을 경계로 왼쪽 지역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송사리가 염색체수가 46개인 대륙송사리였다.

1억 년 전 백두대간이 융기하면서 나뉜 송사리들이 백두대간을 경계로 오랜 세월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살다 지금처럼 달라진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지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사리보다는 작은 편에 속하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며 산란 시에 암컷이 알을 달고 다니다가 수초에 붙이는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작아도 왕 노릇은 한다 

송사리는 작아서 거의 먹지도 않는 물고기지만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서열 의식이 다른 물고기들 못지않게 확실하다. 몇 마리만 수조에 넣어두어도 가장 크고 힘 센 송사리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약한 송사리가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은 3~4cm 길이로 송사리보다 작은 편이다. 머리 꼭대기는 편평하고 몸 높이는 높으며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진다. 주둥이 끝에 있는 입은 위를 향해 돌출되어 있고, 아래턱이 윗턱보다 길다. 눈은 매우 큰 편이다. 등지느러미는 몸의 뒤쪽에 있으며 뒷지느러미 기부는 길다. 꼬리 지느러미는 갈라져 있지 않고 끝부분이 직선에 가깝다.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산란 시기는 5~7월로 주로 아침에 알을 낳는데, 암컷이 알을 달고 다니다 수초에 붙인다.



분포 및
서식지

우리나라의 한강, 만경강, 금강, 동진강, 영산강 및 서해안 도서 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심이 얇고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저수지, 늪, 하천 표층에서 떼를 지어 서식한다.



송사리와 염색체가 다른 대륙송사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대륙송사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Rhynchocypris oxycephalus

버들치

맑은 물에 사는
버드나뭇잎 같은 물고기

과명	잉어과
사는곳	물이 깨끗하고 온도가 낮은 산간 시냇물, 강 상류
먹이	잡식성으로 부작 조류, 수서곤충, 작은 갑각류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젠 아무데서나 잘 살아요

버들치라는 예쁜 이름은 맑은 물에 떠다니는 게 버드나뭇잎 같다고 해서 생겼다. 예로부터 스님이랑 같이 사는 물고기라고 해서 중고기라고도 불렀다. 절이 있는 깨끗한 계곡이 대부분 산을 끼고 있어 버들치가 많이 살았다는 것이다.

버들치는 이렇게 원래 물이 깨끗하고 차가운 하천 상류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수지나 수온이 높은 하류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버들치가 이미 변화된 물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지침

주둥이가 약간 뾰족한 것이 특징이며 물의 흐름이 느린 여울에서 산란하는 어종이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제외하고 깨끗하고 차가운 물에서 서식한다.

멋진 생존 전략가

물속이 흰히 보이는 곳에서 사는 버들치에게 산란기는 가장 예민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들치는 주위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산란기에 독특한 번식 전략을 구사한다. 그것은 바로 알을 낳기 전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다. 알을 지키기 위한 암컷의 노력이 멋지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의 길이는 6~12cm이며, 몸체의 앞부분은 통통하다. 몸의 색은 황갈색이나 회갈색인데 배면은 흐리며, 짙은 색의 작은 반점이 몸 전체에 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다. 주둥이는 약간 뾰족하며 입은 위를 향해 돌출되었다. 입수염은 없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다. 눈은 머리 가운데 위치한다.

먹이는 부착조류, 수서곤충, 작은 갑각류 등이다. 산란 시기는 4~7월이며, 물의 흐름이 느린 여울에서 집단으로 산란한다.

분포 및
서식지

동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차갑고 깨끗한 시냇물이나 강 상류 등에 서식한다.



맑은 물에서 사는 바들치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

우리 마을 바들치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Zacco platypus

피라미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가장 많은 수 자랑

과명	잉어과
사는곳	하천 종류의 여울부, 저수지, 댐
먹이	잡식성으로 수서곤충의 유충, 부착 조류, 유기물



이야기로 알아보기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1위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물고기가 바로 피라미다. 피라미는 무려 전체 개체수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두 번째가 붕어, 세 번째가 갈겨니다.

이렇게 어디서고 너무 흔하게 보이다 보니 피라미는 작은 물고기를 통칭하는 물고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피라미 같은 녀석’처럼 상대방이 약하고 작아서 상대가 안 된다고 여길 때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해설 지침

몸의 길이는 붕어보다 크며 전체적으로 청록색을 띤다. 입수염이 없으며 자갈이 깔린 곳에다 산란을 한다.

견지낚시 하면 역시 피라미

얇고 유속이 급한 여울에서 얼레로 미끼 달린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며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견지낚시라고 하는데 피라미가 대표적인 견지낚시의 대상 어종이다.

피라미는 물이 빠른 하천의 물속에 알을 낳는데, 알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간 데서 성장한 후에 태어난 여울로 돌아온다고 한다.

여름에 보여요 피라미는

1급류에 사는 버들치보다 한 낮게 낮은 2급류에 사는 민물고기다. 내성이 강하여 3급수에도 잘 견디며 버들치와 달리 모래나 자갈이 깔린 곳에서 6~8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여름에 쉽게 볼 수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의 길이는 12~17cm이며, 몸은 옆으로 납작하다. 몸은 전체적으로 청록색을 띠며 등면은 짙고, 배면은 은백색이다. 그리고 붉은색의 세로 무늬가 불규칙하게 나 있다. 지느러미는 붉은색이 나타나는데 꼬리지느러미만 나타나지 않는다. 또 뒷지느러미는 상당히 긴 편이다. 입수염은 없으며, 위턱이 아래턱보다 길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위를 향해 돌출되었다.

먹이는 수서곤충의 유충, 부착조류, 유기물 등이다. 산란 시기는 5~8월이며, 잔자갈로 깔린 바닥에 산란장을 만들고 암수가 산란한다.

분포 및 서식지

서해 ·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주로 분포하며, 최근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피라미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지!

우리 마을 피라미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이야기제공자 :

채록일자 :

내용 :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Monopterus albus

드렁허리

논두렁 뚫는 귀신

한때는 미움 받던 물고기

과명	드렁허리과
사는곳	진흙이 깔린 논, 농수로, 늪지
먹이	육식성으로, 어린 물고기, 곤충, 지렁이



이야기로 알아보기

이제는 반가운 도둑일세

드렁허리는 생김새가 장어처럼 생겼는데 논에서 산다고 해서 논장어라고도 불린다. 힘이 좋은 드렁허리는 밤사이 돌아다니며 논두렁을 들쭉서 뚫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옛날엔 아침에 논에 가보니 드렁허리가 논두렁을 다 뚫어놓아 논바닥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는 농부들의 푸념이 심심찮게 들리곤 했다.

농부들에게 물 도둑 취급 받으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보기 드문 물고기가 되었다. 최근엔 친환경 농업이 늘어나 논 생태계가 복원되는 곳에서 드렁허리도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드렁허리가 발견되는 논은 그만큼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해설
지침

생김새가 뱀장어와 비슷하여 착각하기 쉽다. 전체적으로 주황빛을 띠는 육식성이다.

드렁허리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드렁허리가 알에서 부화되었을 때는 모두 암컷이라고 한다. 차차 자라면서 암수동체가 되고 다 성장해 몸 길이가 40cm 가까이 되면 수컷으로 변한다. 스스로 성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물고기가 비단 드렁허리만은 아니다. 성별이 바뀌는 물고기가 지구상에 400종 가까이 된다고 한다.

드렁허리의 호흡법

드렁허리는 물이 마른 곳이나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잘 견딘다. 비결은 공기 호흡에 있다. 드렁허리가 물 밖으로 얼굴만 내민 채 가만있는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다. 드렁허리는 아가미로도 호흡을 하지만 구강의 모세혈관으로 공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물 밖으로 고개가 나와야 한다. 공기호흡 덕분에 드렁허리는 산소가 부족한 물속이나 더러운 곳에서도 살 수 있다.



생태자원 이해하기

생김새

몸길이는 60cm이며, 뱀장어와 같이 길고 가는 원통형이다. 몸 가운데 주름이 깊고 길게 나 있으며, 전체적으로 주황색이다. 등은 황갈색, 배면은 옅은 주황색이며 몸 전체에 작은 반점이 산재되어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은 없다. 머리는 작으며 주둥이는 뾰족하며 윗입술 앞쪽이 패여있다. 위턱은 아래턱보다 길며 입의 양 옆에 콧구멍이 있다. 눈은 아주 작으며, 피박으로 덮여 있다.
먹이는 어린 물고기, 곤충, 지렁이 등으로 육식성이다.

분포 및 서식지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하며 진흙이 깔려 있는 논, 농수로, 늪지 등에 서식한다.

효 용

백발이 하얀 머리를 검게 할 정도의 영양력을 끼치는 보양식으로 효용이 있다.

활 용

보양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기름에 튀겨먹거나 날것으로 먹기도 한다.



장어처럼 생긴 드렁허리

이 동물, 우리 마을에 있겠어!

우리 마을 드렁허리 이야기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이야기제공자:

채록일자:

내용:

서식 위치 :
발견 일자 :
촬영자 :

용어해설 식물편

각과	딱딱한 껍질에 싸여 들어 있는 열매. 견과라고도 한다. 도토리, 호두.
견과	각과와 같이 쓰이는 말. 열매는 다 익어도 열리지 않는다.
결각상	잎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한 모양. 대체로 안쪽으로 날카롭고 깊게 갈라져 있다. 왕고들빼기.
겹산형꽃차례	겹산형화서. 산형꽃차례가 갈라져 다시 산형으로 꽃차례를 이루는 모양.
경생엽	줄기에서 나는 잎.
꽃밥	꽃 수술의 끝에 달린, 꽃가루를 담고 있는 주머니.
꽃싸개조각(포편)	포(꽃의 기부에 있는 잎과 같은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
꽃차례	화서. 꽃이 꽃대축에 달리는 배열 상태.
난형	잎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 전체적으로 계란 모양이랑 비슷하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2:1, 3:2 정도.
도란형	잎이 잎자루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 거꾸로 선 달걀 모양 같다.
도심장형	잎자루를 잡고 보았을 때 잎의 모양이 심장(하트) 모양이 되는 것.
두화	꽃대 끝에 많은 꽃이 뭉쳐 붙어서 머리 모양을 이룬 꽃.
막질	반투명에 가까운 얇은 막과 같은 상태.
머리모양꽃차례	민들레처럼 꽃자루가 없거나 짧은 꽃이 조밀하게 모여 머리 모양을 이루는 꽃차례.
모인꽃싸개(총포)	꽃차례 밑에 붙어 꽃을 둘러 감싼 포. 국화와 꽃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바소꼴	피침형과 같은 말.
부수엽	연꽃의 잎처럼 수면에 떠 있는 수생식물의 잎.
분과	합쳐서 자란 씨방들이 성숙하면서 열매가 분리되는데, 이렇게 분리된 각각의 열매를 말한다.
삭과	암술의 자방 속에서 수정 후 씨앗이 되는 부분을 배주라고 하는데, 배주를 싸고 있는 잎을 심피라고 한다. 삭과는 두 개 이상의 심피에서 자라면서 심피 수대로 나는 열매로, 모감주나무가 이에 해당한다.
산방꽃차례	산방화서. 꽃자루의 길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져 꽃차례를 이루는 꽃들이 거의 같은 높이를 갖게 되면서 평면처럼 배열된다.
산형화서	꽃대축 끝에 작은 꽃자루를 갖는 꽃들이 방사상으로 퍼지듯이 배열된 꽃차례.
생식줄기	홀씨를 달고 있는 잎 여러 장이 이삭 모양으로 모여 있는 걸 포자낭수라 하는데 이것이 달리는 줄기로 쇠뜨기에서 볼 수 있다.
소포	보통의 포보다 작은 포.
수과	해바라기 씨는 씨가 아니라 열매다. 이렇게 껍질이 얇고 씨앗과 분리되는 열매.
수꽃	수술은 발달하고 암술은 없거나 퇴화된 꽃.
수상꽃차례	수상화서. 가늘고 긴 꽃줄기에 꽃자루 없는 작은 꽃들이 이삭처럼 촘촘한 모양으로 나는 꽃차례. 이삭꽃차례라고 하며, 질경이, 벼가 대표적이다.

씨방	암술의 일부로, 속에 밑씨가 들어 있다. 밑씨가 씨방 안에 들어 있으면 속씨식물, 씨방이 없으면 겉씨식물이라 한다.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복숭아나 감이 씨방이 자란 열매다.
암꽃	수꽃과 반대로 암술만 있고 수술은 없거나 퇴화된 꽃. 밤나무, 호박의 꽃.
암꽃이삭	암꽃이 피는 꽃 이삭.
양성화	한 꽃에 수술과 암술이 다 있는 꽃. 벚꽃, 진달래꽃.
여러해살이풀	3년 이상 잇따라 살아가는 식물.
엽맥	잎몸에 있는 관다발.
엽병	잎자루. 잎몸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
엽상체	줄기·잎·뿌리 같은 기관으로 분화하지 않은 식물. 관다발이 없어 식물체 전체가 잎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엽액	잎겨드랑이. 줄기에서 겨드랑이처럼 잎이 나오는 부분. 줄기와 잎자루 사이.
엽초	잎집. 잎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주로 벼과 식물에서 볼 수 있다.
영양줄기	영양 활동을 하는 잎 등이 달리는 줄기. 생식줄기와 구분해서 쓰는 말이다.
우산털	씨방의 맨 끝에 붙은 솜털 같은 것.
우상복엽	잎자루 양쪽에 새의 깃 모양으로 작은 잎들이 달린 것.
응화수	수꽃이삭. 수꽃이 피는 꽃 이삭.
원추꽃차례	원추화서. 총상꽃차례의 축이 다시 갈라지면서 꽃이 열리는데 꽃 모양이 전체적으로 원뿔 모양을 하고 있다.
원추화서	원추꽃차례와 같은 말. 총상꽃차례의 축이 다시 갈라지면서 꽃이 열리는데 꽃 모양이 전체적으로 원뿔 모양을 하고 있다.
이삭꽃차례	가늘고 긴 꽃줄기에 작은 꽃들이 촘촘하게 달린 모양. 벼과의 식물을 비롯한 질경이, 여뀌가 여기에 해당된다.
잎겨드랑이	줄기에서 겨드랑이처럼 잎이 나오는 부분. 줄기와 잎자루 사이.
잎몸	잎에서 잎자루와 턱잎을 제외한 넓은 부분.
잎집	잎이 막 시작되는 부분에서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주로 벼과 식물에서 볼 수 있다.
잎혀	잎집과 잎몸 연결부의 안쪽에 있는 헛바닥 모양의 가늘고 긴 막. 잎혀는 잎집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방	암술 밑의 볼록하게 부푼 기관. 밑씨를 담고 있고 성숙한 후 열매가 된다.
잔이삭	벼과에서 꽃차례의 기본을 이루는 한 단위 부분.
지하경	식물의 줄기가 땅 속에 있는 것. 이런 줄기는 땅속을 수평으로 기어서 자란다.
총상꽃차례	긴 꽃차례의 축에서 비슷한 길이의 꽃자루들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며 뻗어 나와 꽃이 피는 모양. 냉이, 아까시 나무가 대표적.
취산꽃차례	취산화서. 꽃 밑에서 나온 한 쌍의 꽃자루 끝에 꽃이 한 송이씩 달리고, 바로 그 꽃 밑에 또 한 쌍씩의 작

	은 꽃자루가 나와 그 끝에 꽃이 달리는 꽃차례. 중앙의 꽃이 다 피운 뒤 주위의 꽃들이 핀다.
취산화서	꽃 밑에서 나온 한 쌍의 꽃자루 끝에 꽃이 한 송이씩 달리고, 바로 그 꽃 밑에 또 한 쌍씩의 작은 꽃자루가 나와 그 끝에 꽃이 달리는 꽃차례. 중앙의 꽃이 다 피운 뒤 주위의 꽃들이 핀다.
탁엽	잎자루가 줄기에 붙어 있는 곳 좌우에 쌍으로 달린 비늘 같은 잎.
턱잎	탁엽. 잎자루가 줄기에 붙어 있는 곳 좌우에 쌍으로 달린 비늘 같은 잎.
포과	얇은 주머니 모양의 열매. 명아주.
포영	벼과 식물의 작은 이삭을 밑에서 받치는 기관.
피침형	앞이 창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양. 밑에서 1/3 되는 부분이 가장 넓다.
허수술	양성화에서 수술이 있으나 모양만 남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불임성인 것. 꽃가루가 형성되지 않는다.
협과	1개의 심피로 성숙해 다 익으면 두 개의 봉합선을 따라 벌어지는 열매. 강낭콩이 대표적이다.
호영	벼과에서 꽃의 맨 밑을 받치고 있는 한 쌍의 작은 조각. 겉껍질.
화관	꽃잎의 집합. 꽃잎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도 하다.
화주	속씨식물에서, 암술 머리와 씨방 사이를 차지하는 부분.
화피	꽃잎과 꽃받침을 함께 일컬을 때 쓰는 말.
화피조각	화피를 이루는 낱알의 조각.

용어해설 동물편

가동구	잠자리 유충의 아랫입술 측면에 있는 집게이빨. 사냥감을 포획할 때 사용된다.
가두리 무늬	곤충의 날개나 어떤 부위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는 무늬.
각경	껍데기의 지름. 우렁이나 달팽이 류의 크기를 잴 때 쓰는 말.
각정	우렁이나 달팽이 껍데기의 꼭지 끝부분으로, 껍데기에서 가장 오래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점처럼 보인다.
각축	복족류(달팽이, 우렁이 류) 껍데기의 중심 축. 각축을 중심으로 나선 모양의 나층이 돌려난다.
강모	동물이나 곤충의 몸 표면에 생기는 가늘고 긴 돌기. 가시털, 센털이라고도 한다.
깜박막	순막. 물안경 구실을 하는 눈의 투명한 막. 제3의 눈꺼풀이라 한다.
나층	나사조개류에서, 나선 모양으로 감겨져 있는 한 층.
나탑	나사조개류의 몸 위에 있는 층 전체.
난생	동물이 알을 낳아 번식하는 것.
난태생	알을 낳기는 하는데 모체 안에서 알을 낳는다. 모체의 태반이 아닌 알 속의 난황을 영양분 삼아 발육하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새끼로 밖에 나오는 태생.
미모	곤충의 배 끝에 붙어 있는 한 쌍의 가느다란 털. 유충에게는 헤엄칠 때 유용하며 성충에게는 날다가 하강할 때 유용하다.
반문	몸에 나 있는 얼룩얼룩한 무늬.
변태	동물이 성장하다 짧은 기간 동안 크게 형태가 변하는 걸 말한다. 곤충의 경우 알, 유충(애벌레), 번데기, 성충(어른벌레)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완전변태, 잠자리처럼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변태라고 한다.
분수공	숨을 쉴 때 물을 들이마시는 기관.
상부속기	곤충 따위의 몸 또는 몸의 구조물에 마디로 이어져 붙어 있는 부분을 부속기라 하는데, 그 중 위쪽에 있는 부속기.
성충	어른벌레. 곤충류의 일생 중 최종적으로 성숙한 개체.
연문	잠자리 날개의 끝부분에 있는 흑색이나 갈색의 작은 문양이 나타나는 부분.
우화	곤충이 유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해 성충이 되는 것.
유생	동물의 개체 발생 단계 중 배(胚)와 성체(成體)의 중간 시기로 아직 생식기관이 발달하지 않는다.
유충	애벌레. 곤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거치는 어린 형태의 시기.
육괴	번식기가 된 개구리의 발가락에 나타나는 혹.
용기선	동물의 몸에 나는 선 중에서 높게 일어나 들뜬 선.
인두	공기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되는 소화기관.
전흡반	동물이 다른 동물 또는 이성 개체에 흡착하기 위한 빨판 기관. 흡충류(吸蟲類)의 경우 흡반이 몸의 앞끝에 있으면 전흡반, 몸의 중앙 복면의 정중선 위에 있으면 후흡반이다.
점각열	곤충의 줄무늬.

제공	복족류 껍데기 밑바닥 중심에서 껍데기 정상까지 빼내어져 있는 구멍. 각축의 위치에 해당.
체층	껍데기 주둥이에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의 가장 큰 한 층.
축순	세로의 각축과 평행 또는 일치하는 껍데기 주둥이의 일부분.
치상돌기	이빨 모양의 돌기.
패각	조개류의 껍데기. 패각은 무기염류 95%(대부분이 탄산칼슘으로 인산칼슘 1~2%, 탄산마그네슘 0.5% 이하)와 단백질성의 콘키오린으로 구성된다.
하부속기	곤충 따위의 몸 또는 몸의 구조물에 마디로 이어져 붙어 있는 부분을 부속기라 하는데, 그 중 아래쪽에 있는 부속기.

참고문헌 / 참고자료

- 강방훈, 손진관, 김미희 외(2012). 2012 농촌마을 소규모 습지의 실태와 활용. 수원: 농촌진흥청
- 곽준수 외(2010). 야생화 약초도감. 서울: 푸른행복
- 구자옥 외(2008). 한국의 수생식물과 생활주변 식물 도감. 서울: 자원식물보호연구회
- 구자옥, 이도진, 국용인, 천상욱(2008). 한국의 수생식물과 생활주변식물 도감. 서울: 학술정보센터
- 국립생물자원관(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양서류·파충류. 인천: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수목원(2013). 한국의 민속식물-전통지식과 이용. 포천: 국립수목원
- 권오길(2012). 권오길교수의 강에도 못 생명이. 파주: 지성사
- 김무상(2003). 어류의 생태. 서울: 아카데미서적
- 김익수(2013). 그 강에는 물고기가 산다. 서울: 다른세상
- 김종원 외(2013). 한국 식물 생태 보감1. 서울: 자연과생태
- 김태정(200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1. 서울: (주)현암사
- 김태정(201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2. 서울: (주)현암사
- 김태정, 강은희(2004). 쉽게 찾는 수생식물. 서울: (주)현암사
- 나영학(2013). 야생화 산책(우리가 미처 몰랐던 야생화 이야기).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 노세윤(2009). 민물고기 쉽게 찾기. 서울: 진선출판사
- 박경현 외(2009). 살아있는 생태박물관1 우리곤충이야기. 서울: 채우리
- 박경현 외(2009). 살아있는 생태박물관2 우리식물이야기. 서울: 채우리
- 박민철, 성환길, 장광진(2008). 효능에서 재배까지 우리 산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서울: 푸른행복
- 박성준 외(2012).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는 한국의 곤충.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 변현단(2010). 약이 되는 잡초음식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파주: 도서출판 들녘
- 서정오(2010). 두꺼비 신랑. 경기도 파주: 보리
- 서정오(2011). 아기장수우투리. 경기도 파주: 보리
- 심재한(2001). 생명을 노래하는 개구리. 서울: 다른세상
- 유태종(1999). 유태종 박사의 식품동의보감. 서울: 아카데미북
- 이동혁(2006). 처음 만나는 나무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비컴
- 이동혁, 제갈영(2012). 우리나라 나무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비컴
- 이완옥, 노세윤(2007). 특징으로 보는 한반도 민물고기. 서울: 지성사
- 이윤주(2013). 우리나라 옛이야기 <꼬부랑 동동>. 경기도: (주)아이스페셜
- 이정현(2011). 한국 양서 파충류 생태도감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 이하상(2013). 고전과 설화 속의 우리 물고기. 서울: 도서출판목근통
- 자연과사람들(2009). 자연이 말을 걸어요. 서울:주니어랜덤
- 장계남(1991). 양식 기술지침서30 담수어 양식. 서울: 오성출판사
- 정광수(2007). 한국의 잠자리 생태도감. 서울: 일공육사



단행본

정구영, 박종열(2013). 효소 동의보감. 서울: 글로박스

정연옥 외(2012). 야생화 백과사전 가을편. 서울: 가람누리

정연옥 외(2012). 야생화 백과사전 봄편. 서울: 가람누리

정연옥 외(2012). 야생화 백과사전 여름편. 서울: 가람누리

차승훈(20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 뱀. 서울: 하우넥스트

최기철(1991). 민물고기를 찾아서. 서울: 한길사

허복구, 박석근(2002). 재미있는 우리 꽃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서울: 중앙생활사



보고서

방상원 외(2006). 국내 도입 외래동물 현황파악 및 생태계위해성 등급분류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터넷 사이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ature.go.kr>

국가자연사 연구종합정보 시스템 <http://www.naris.go.kr/v2>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https://www.nibr.go.kr/species>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 <http://www.nier.go.kr/eric/portal/erip>

네이버 지식사전 <http://dic.naver.com>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디지털 청주문화대전 <http://cheongju.grandculture.net>

야생화 클럽 <http://wildflowe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감 수

식생 분야 전통지식 : 김현 교수(전주대학교)

생물 전 분야 : 김남춘 교수(단국대학교)

식생 분야 : 이상화 박사(주. 태연)

양서파충류, 저서생물, 어류 분야 : 오홍식 교수(제주대학교)

사진
제공

강방훈(농촌진흥청), 이병모(농촌진흥청), 손진관(국립농업과학원)

김일남(생태조사단), 김종명(생태와 환경), 이상기(한국자연환경연구소)

이상화(태연), 이승주(Newcastle Univ.), 전영철(생태조사단)

아메랑(<http://blog.naver.com/amery930>)

『강방훈, 손진관, 김미희 외(2012) 농촌마을 소규모 습지의 실태와 활용, 농촌진흥청』 자료에서 일부 사진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농촌마을 생태체험

1판 1쇄 발행 2014년 11월 30일

발 행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전해경

편집기획 농업환경부장 이상범

편 집 인 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

역 은 이 김경희, 이상영, 김미희, 최재웅
정명철, 홍서연, 이선민, 강지윤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65-851,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TEL 063-238-2631

제 작 처 고즈넉(TEL 02-6269-8166)

ISBN 978-89-480-2833-1 94520

발행처





이야기가 있는
농촌마을 생태 체험